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1 6 Vol. 234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말러

부산 **MBC** 창사 52주년 기념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I
SYMPHONY IV

Walter

Program

모차르트 교향곡 제41번 「주피터」
말러 교향곡 제4번

2011.6.16 목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 리신차오



소프라노 - 오은경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협찬 Bⁿ 비엔그림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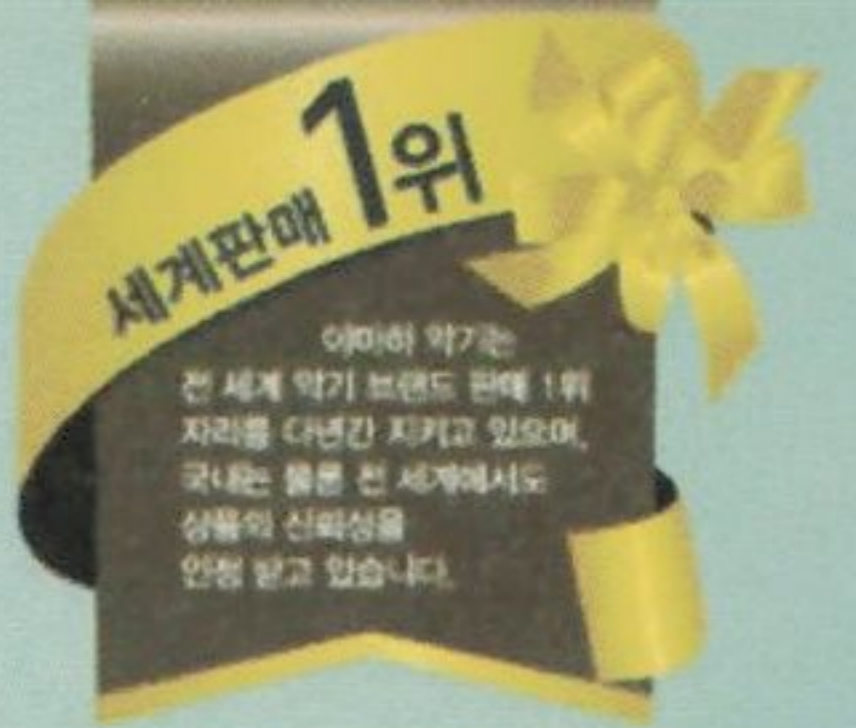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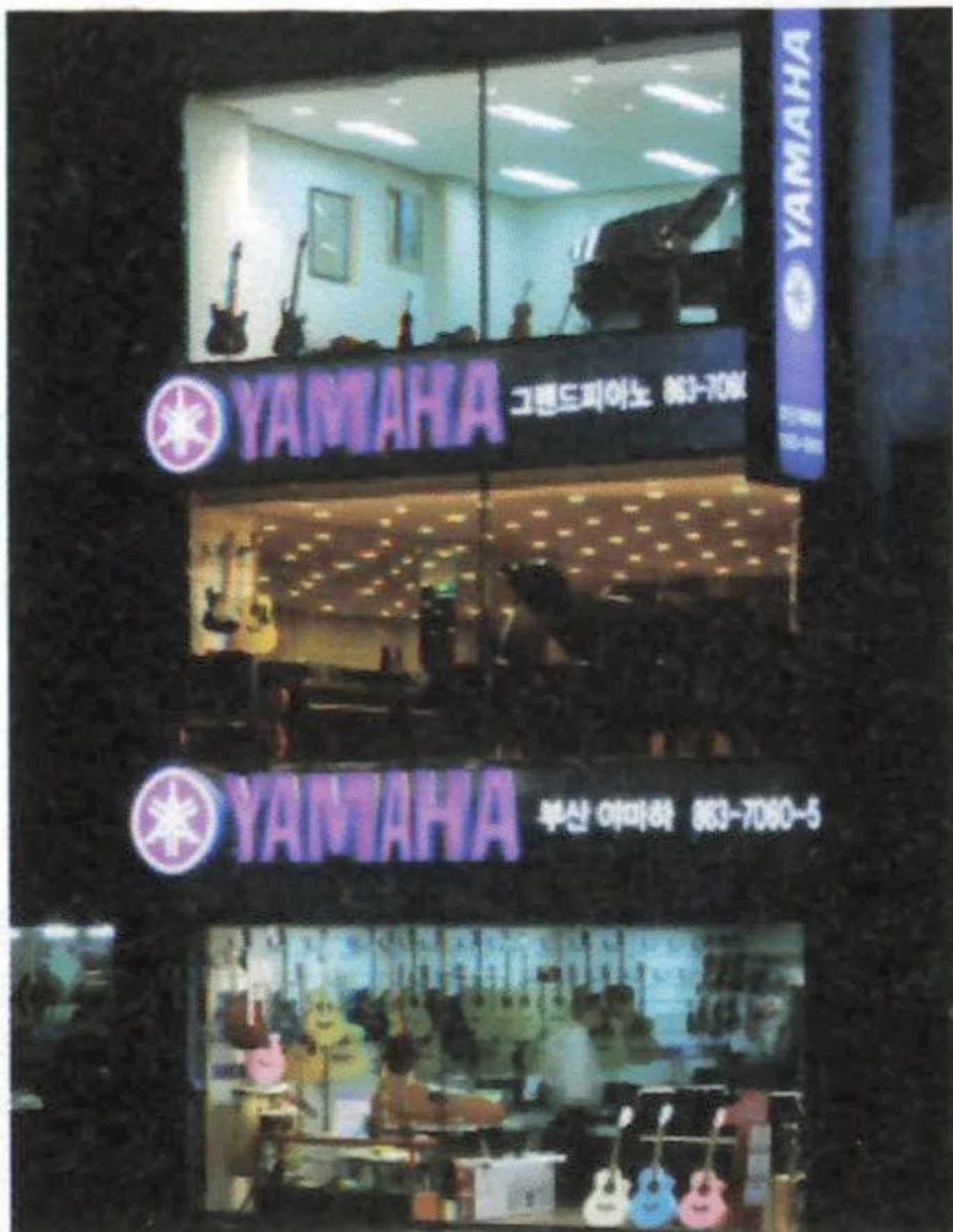
오늘도 가장 많은
세계인의 어린이들이
야마하 피아노와 함께 성장합니다

100여 년 동안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피아노 - 야마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열정과 즐거움이 야마하를 더 좋은 피아노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워진 야마하 피아노 - 세계인이 만듭니다



영원한 감동을 전하는
부산야마하피아노

야마하 색소폰 특가판매 문의환영!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대여합니다.



6월 사은 대잔치

- 1** 행사기간중 야마하 피아노를 특별가격에 드립니다. (한정 판매)
- 2** 행사기간중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특별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EVENT 행사기간 5.25~6.25

디지털 피아노 구매 고객께
USB 메모리를 드립니다.

USB 메모리(4GB)



포터블 키보드 구매고객께
야마하 머그컵을
드립니다.

야마하 머그컵



부산시립극단 제41회 정기공연/배우 박찬영 정년퇴임 공연

nowhere

원제 | Ce Formidable Borbel!

원작 | Eugene Ionesco (November 26, 1909~March 29, 1994)

번역 | 정보임 재구성 · 연출 | 김지용

출연 | 박찬영 이돈희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유성주 염지선 이혁우 황창기 김두리 김은옥 김주연 이연희 김정원 박준서 박규한 차승현 박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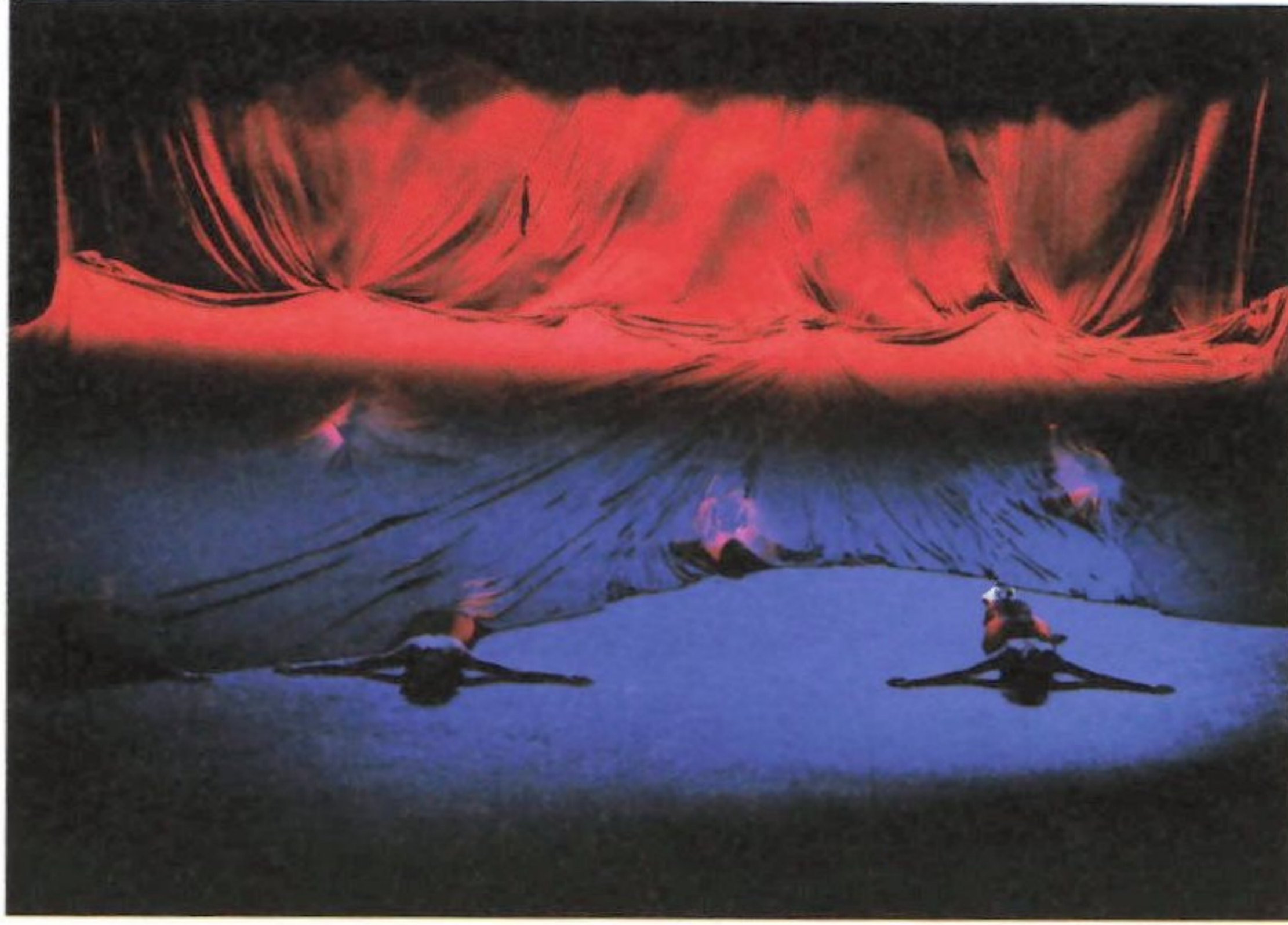
2011.6.13(월)~19(일) 평일 19:30 토·일요일 16: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15,000원**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후원 | metro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극단 607-3151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C/O/N/T/E/N/T/S

08 커버스토리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에서 세상과 통하다'

10 프리뷰

16 반갑습니다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 김희은

18 은현리 풍경에서 시를 읽다 ⑱

힌구름 흘러가는 곳에 즐거움이 있지만 | 정일근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불편, 호기심, 끈기에서 비롯된 독일의 발명품들 | 김지혜

24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⑱

바이올린 플레이어 | 이동신

26 불멸의 거장, 리스트 ④

바이마르시절 : 바이마르의 전설 | 황윤하

28 그림, 풍류를 만나다 ④

주막풍경 | 변광석

30 그곳에 가면

한·일 우호의 상징 조선통신사의 역사를 배운다

조선통신사 역사관

32 우리는 문화가족

"노래따라 마음도 흘러가요" 한마음선원 합창단

34 리뷰

을숙도 명품콘서트 | 김창욱

고형윤 개인전 | 박미경

36 프로그램 가이드

54 나의 애청음반

존 루터 '글로리아' | 김희성

56 새로 나온 음반, 새로 나온 책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1년 6월호 통권 234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 Fax. 051-607-3109

발행인 | 최성달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1년 5월 25일
인쇄처 | 소문출판인쇄사 Tel. 051-256-2301~3 / Fax. 051-248-7960



June
06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

MON

TUE

전시실

부산회화제

대, 중전시실
6월 1일(수)~6월 8일(수)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제 5회 한서미술대전

대, 중전시실
6월 16일(목)~6월 18일(토)
* 시상식
6월 16일 오후 6:00 국제회의장
문의: 정중옥(010-2582-4201)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대, 중전시실
6월 20일(월)~6월 25일(토)
* 시상식
6월 25일 오후 2:00 국제회의장
문의: 송호(011-845-9599)

국제회의장

사)민족음악학회, 동아대학교
음악문화학과 대학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죽은 자를 위한 마지막 노래:
한국의 종교별 죽음관과 장례의식 음악**
6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기조발제: 조선우, 한국의 장례의식 음악 연구,
왜 필요한가?
발표
김성혜: 한국 불교의 죽음관과 장례의식 음악
홍정수: 한국 개신교의 죽음관과 장례의식 음악
주은경: 한국 천주교의 죽음관과 장례의식 음악
박미경: 한국 무속의 죽음관과 장례의식 음악
문의: 김근영(010-5546-4249)

5

대 | 뮤지컬 '광화문연가' 부산공연 14:00,
18:00 11만원 · 9만9천원 · 7만7천원 · 6만6천원
5만5천원/에스제이엔티(1599-2005)

6

중 |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19:00 부산국제무용제(890-2507)

소 |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19:30 무료/박경호(010-5555-3117)

7

중 |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축하공연
19:00 부산국제무용제(890-2507)

소 |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2

대 |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부산공연
15: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13

대 | U.K.O 제 22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정희재(01-589-3111)

14

대 | 부산시립합창단 제 138회 정기연주회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진혼곡'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19:3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19:3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19

20

대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21

대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중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중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16:0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소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26

27

중 | 조각용 개인발표회 '조각용의 길' 17:00
균일 1만원/이주현(011-581-3000)

중 | YMCA 부산오페라합창단 '현대음악의
진수와 비틀즈, 뮤지컬 그리스의 앙상블'
19:30
균일 1만원/YMC부산 오페라 합창단(802-6209)

소 | 하늘이 주신 선물 Dear My Family
17:00 초대/김정혜(010-4552-4106)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usan.go.kr>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 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 바랍니다.

WED

1

THU

2

FRI

3

SAT

4

소 |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소 |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2-Yesterday 김목경 Band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소 | 토요일상설무대-춤소리예술단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8

9

10

11

소 | 부산시립무용단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11:00
 균일 1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중 | 창작합창21 제 7회 정기작품 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II' 19:30
 초대/조해선(890-1325, 010-8501-5117)

대 |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부산공연 20: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대 |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부산공연 15:00, 19: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중 | 인코리안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 13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장은정(010-4842-6688)

15

16

17

18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19:3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19:3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19:3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소 |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16:0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22

23

24

25

대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대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대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대 | 부산하모니합창단 제 8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장연수(010-2593-1651)

중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중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중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중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소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소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소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예선 09:00
 부산MBC(760-1125)

소 | 토요일상설무대-한누리우리춤연구회 '여인별곡' 17:30
 무료(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9

30

7/1

7/2

대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MBC(760-1125)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라틴 클래식'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10회 솔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 제 28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09:00
 부산MBC(760-1125)

소 | 길(道)-지수복 제자발표회 19:00
 초대/김계영(010-9700-7787)



미국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Busan International Dance

춤, 바다에서 세상과 통하다

6월 3일~7일 해운대해수욕장,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6월의 싱그러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에서 13개국 춤 작가들의 열정적인 춤 잔치가 펼쳐진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산비엔날레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자리 매김한 부산국제무용제가 바로 그 주인공. 올해 7회를 맞는 부산국제무용제는 소통과 조화를 화두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핀란드, 호주 등 세계 13개국 150개팀, 200여 작품이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지난해 9월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김희은 운영위원장은 부산국제무용제 영문명칭을 BIDF(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에서 2011년부터 BID(Busan International Dance)로 바꾸고 인종과 국가, 언어를 초월한 춤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춤 세상을 준비했다. 부산국제무용제의 이니셜인 BID는 영어로 '노력·시도'를 뜻하는 말. 올해부터 국내참가팀은 기존 초청제가 아닌 공모 경쟁방식을 도입해 참신한 무용인들이 대거 참가했고 3월부터 진행된 시민춤 릴레이와 스트리트 홍보공연 등을 통해 부산국제무용제를 부산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시민축제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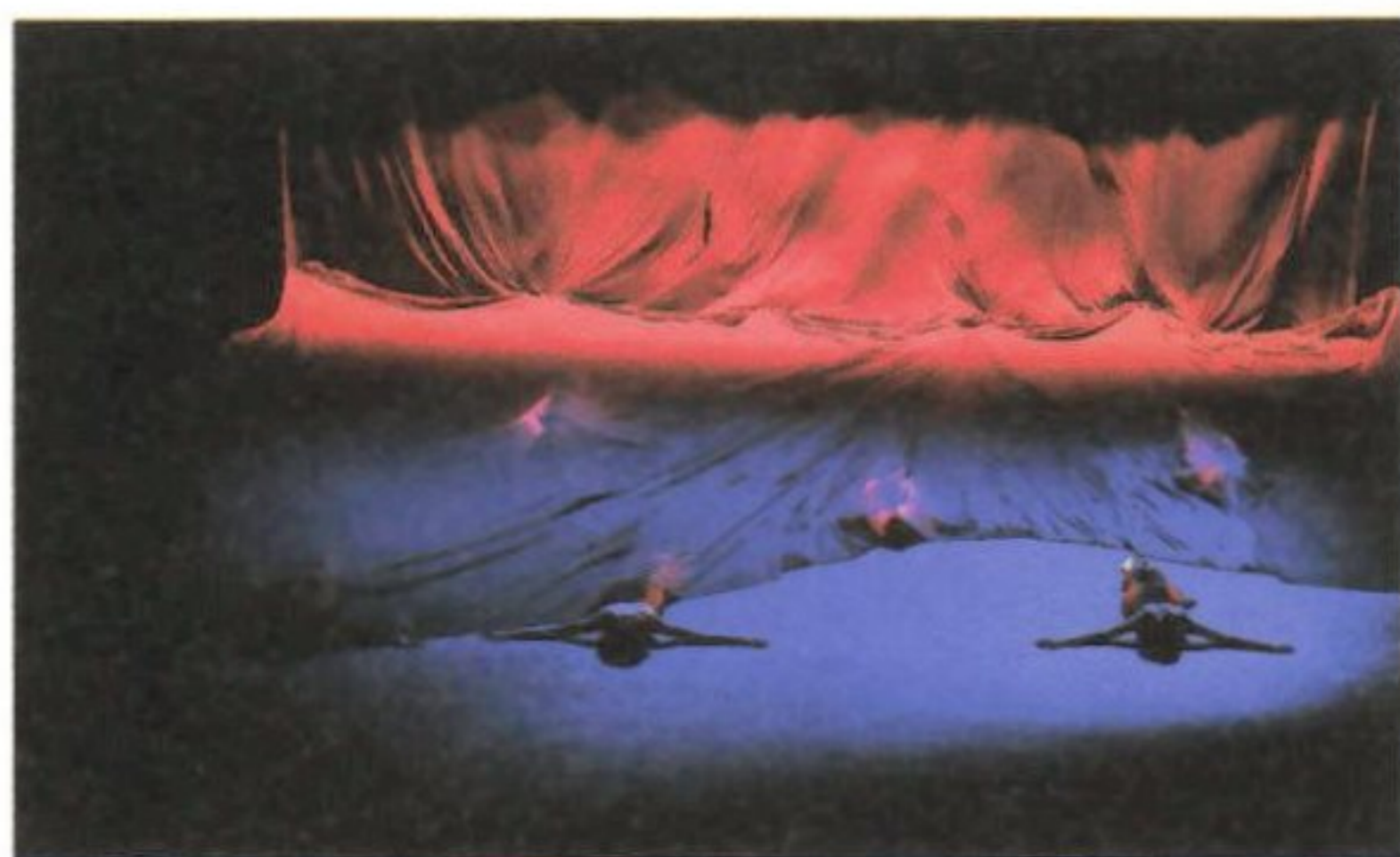
올해 부산국제무용제는 6월 3일 해운대 해변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초청작 공연, 6월 6일과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대한민국 예술계의 주역이 될 춤 작가들의 등용문인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과 폐막식이 열리고, BID 아카데미 초청공연, BID 국제포럼 등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BID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춤 릴레이, BID 스트리트 춤 퍼포먼스, 무용전공자들의



이 자유참가공연 '열린 춤 무대', 남녀 노소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춤 한마당, BID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해운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무대는 부산시립무용단과 유니버설발레단, 미국의 River North Dance Chicago, 호주의 Expressions Dance Company 등이 열정적인 몸짓으로 부산시민들의 감성을 깨운다.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폐막무대는 부산이 배출한 트러스트 무용단과 빛소리친구들이 장식한다. 전 세대, 전 장르의 소통과 조화를 위해 특별히 초청된 '빛소리친구들'은 장애인도 멋스럽고 즐겁게 춤 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스스로 즐기기 위해 창단된 국내 유일의 장애인 무용단으로 지난 2년간 준비한 '휠체어 댄스'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해운대의 푸른 바다와 파도와 어우러져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운 춤 세상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멕시코



스페인



일본



호주

| 주요 일정 |

>> 6월 3일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 17:00 BID 개막 식전행사
- 19:00 BID 개막식
- 19:30 BID 공식초청공연
-한국, 미국, 호주, 영국·홍콩, 타이완, 핀란드, 일본

>> 6월 4일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 14:00 BID 국제포럼 '무용축제와 마케팅'
- 17:00 BID 열린춤무대
- 18:00 BID 춤아카데미
- 19:00 BID 공식초청공연
-한국, 미국, 멕시코, 네덜란드, 타이완, 일본, 핀란드, 중국, 호주, 영국·홍콩

>> 6월 5일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 17:00 BID 시민춤릴레이 선정작 공연
- 19:00 BID 공식초청공연
-한국, 호주, 중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미국
- 20:20 해변무대 폐막식

>> 6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19:00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 19:40 AK21 축하공연

>> 6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19:00 폐막축하공연, BID시상식, 아듀 BID, 폐막식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6월 13일-19일 월-일요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극단이 이오네스코의 자전적 희곡 ‘Ce formidable bordel!’ 을 재구성한 ‘noWhere(재구성, 연출/김지용)’ 로 연극애호들과 만난다. 2009년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립극단이 한국에서 초연해 화제를 모은 ‘noWhere(지금...여기)’ 는 어렵고 난해하다는 부조리극의 고정관념을 깬 세련된 부조리극으로 호평 받은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극단 창단 멤버로 입단, 수 많은 무대를 통해 인상깊은 연기를 선보여온 단원 박찬영이 6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운 좋게도 로또에 당첨된 주인공 ‘박찬영’ 역을 맡아 이오네스코의 부조리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번 무대는 단원들의 이름과 극중 배역이름이 동일하다. 주인공 박찬영이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우연하게 로또에 당첨되자 박찬영이 다니던 직장동료들이 당첨을 축하해준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김은희는 박찬영을 몸으로 유혹하고, 유성주는 따로 차릴 사업자금을 얻고자 하며, 이혁우는 친구라는 말로 현혹한다. 옛애인 이현주는 옛일을 들먹이며 다시 사귀자고 한다. 박찬영은 동료들을 비웃으며 사라진다. ‘noWhere’ 는 박찬영이 급작스러운 물질적 풍요 후에 찾아오는 주변의 변화를 겪으며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인가라는 질문을 재미있게 던진다.

원전에서는 등장인물이 사회에서 자기만의 방 속으로 점점 숨어드는 형태였으나 이번 작품에서는 자기만의 방에서 나와 사회를 보고 세계를 인식하는 수순을 한 번 거친다.

연출가 김지용은 원전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꽤 만만찮은 공연시간을 의식해서 극의 리듬에 많은 신경을 썼다. 군중이 등장하는 장면은 군무로 처리했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구현해야할 장면은 세트의 활용보다는 배우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살려 표현해냈다.

- 원작/E. 이오네스코 ‘Ce Formidable Bordel!’
- 번역/정보임
- 재구성, 연출/김지용

출연

박찬영, 유성주, 이혁우, 이돈희, 정행심,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황창기, 김은옥, 김두리, 김주연
이연희, 금경훈, 박주희, 박규한, 차승현, 박준서

- 입장권 | 균일 1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2)



부산시립합창단 제138회 정기연주회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진혼곡(Ein Deutsches Requiem)

6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7080 가요합창음악회를 선보인 부산시립합창단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진혼곡(Ein Deutsches Requiem)으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독일진혼곡은 브람스가 존경하는 스승 슈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레퀴엠을 작곡하기 시작하여 1865년에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1868년에 완성, 대성공을 거둔



지휘자 김강규



소프라노 남순천



바리톤 김종화

곡이다. 레퀴엠의 가사를 가톨릭 고유의 제례문이 아닌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판으로 번역한 성경 속에서 선택하였는데 일반 레퀴엠이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때 부르는 것과 달리 음악회 용으로 작곡되었다. 브람스의 음악 중 Top10에 들어갈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이 곡은 고급의 합창곡 중에서도 예술미와 장엄미가 뛰어나다.

모차르트 이후의 '레퀴엠'은 가톨릭교회(성당)에서 집전을 위함이 아니고 음악가 자신의 내세관을 표현한 경향이 있는데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은 특히 가사의 내용이 죽은 이를 위한 진혼이 아니고 죽은이를 떠나보내고 살아남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작곡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바탕으로 한만큼 하느님을 통하여 안식이라는 종교적 신념과 환희,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전통적인 레퀴엠에서 가사의 내용만 다를 뿐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하다.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고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 남순천과 바리톤 김종화가 협연한다.

바리톤 김종화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 부산을 중심으로 폭 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베켄바흐 국제콩쿠르 성악부문 1위, 파싸우 국제성악콩쿠르 가곡부문 1위, 로까델라마치에 국제오페라콩쿠르 1위 없는 3위에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김종화는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극장, 바이마르 국립극장 초청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하이든 '천지창조', 헨델 '메시아', 포레, 부르크너, 브람스 '레퀴엠', 오르프 '까르미나부라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바하,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미사곡 등 다양한 무대에서 왔다.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솔로/소프라노 남순천(부산시립합창단원), 바리톤 김종화

· 반주/이승윤, 이경미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PREVIEW

부산MBC 창사 52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0회 정기연주회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I - Symphony IV

6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해 말러 탄생 150주년에 이어 올해 말러 서거 10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6월 16일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연다.

이번 무대에서는 2009년 6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이후 말러 교향곡 1번, 2번, 5번을 연주해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대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생애와 그의 작품을 기리기 위해 말러 교향곡 4번에 도전한다. 말러 교향곡 4번은 교향곡 2번, 3번과 함께 3부작을 이루는 세 곡 중에서 가장 밝고 간결하며 아름다운 곡이다.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상하게 하는 이 곡은 고전적인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러 교향곡에서 중시되는 금관악기 중 일부(트롬본과 튜바)가 빠지는 등 편성도 소규모다. 연주 시간도 55분 정도로 말러 교향곡 중에서 짧은 편에 속한다.

교향곡 4번은 말러 자신의 지휘로 이뤄진 초연 당시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제 1악장에서 많은 청중들은 좀 더 격렬한 주제를 기대했으나, 너무나 단순한데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어지는 악장에서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보인 반면, 열심히 말러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말러는 교향곡 4번 4악장에 특별히 소프라노 독창을 배치, 천국 생활의 즐거움을 묘사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오은경이 경쾌하고 밝은 선율의 평온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서울대학교와 맨해튼 음대, 스톤이부룩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한 소프라노 오은경은 동아 콩쿠르, 음악협회 콩쿠르, 뉴욕 교수협회 Gaeumann 콩쿠르에 입상하고 '라트라비아타' '돈조반니' '라보엠' '루치아' '가면 무도회' '춘향전'



‘코지판투테’ ‘기적의 의사’ 등 다수의 오페라 무대와 KBS 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경기 필하모닉, 프라임 필 오케스트라, 유라시안 필하모닉, 바로크합주단,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등과의 협연무대에서 서 왔다. 뉴욕과 일본(큐슈, 히로시마), 서울에서 독창회를 가진 바 있는 오은경은 현재 세종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말러 교향곡 4번 연주에 앞서 모차르트 교향곡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모차르트 최후의 교향곡 제 41번 ‘주피터’를 들려준다. ‘주피터’는 모차르트의 음악과 삶의 모든 대립적 요소들인, 영감과 기교, 환희와 반성, 외향적 힘과 내향적 수줍음 등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통일되어 있는 명곡이다. 연주시간 약 35분.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7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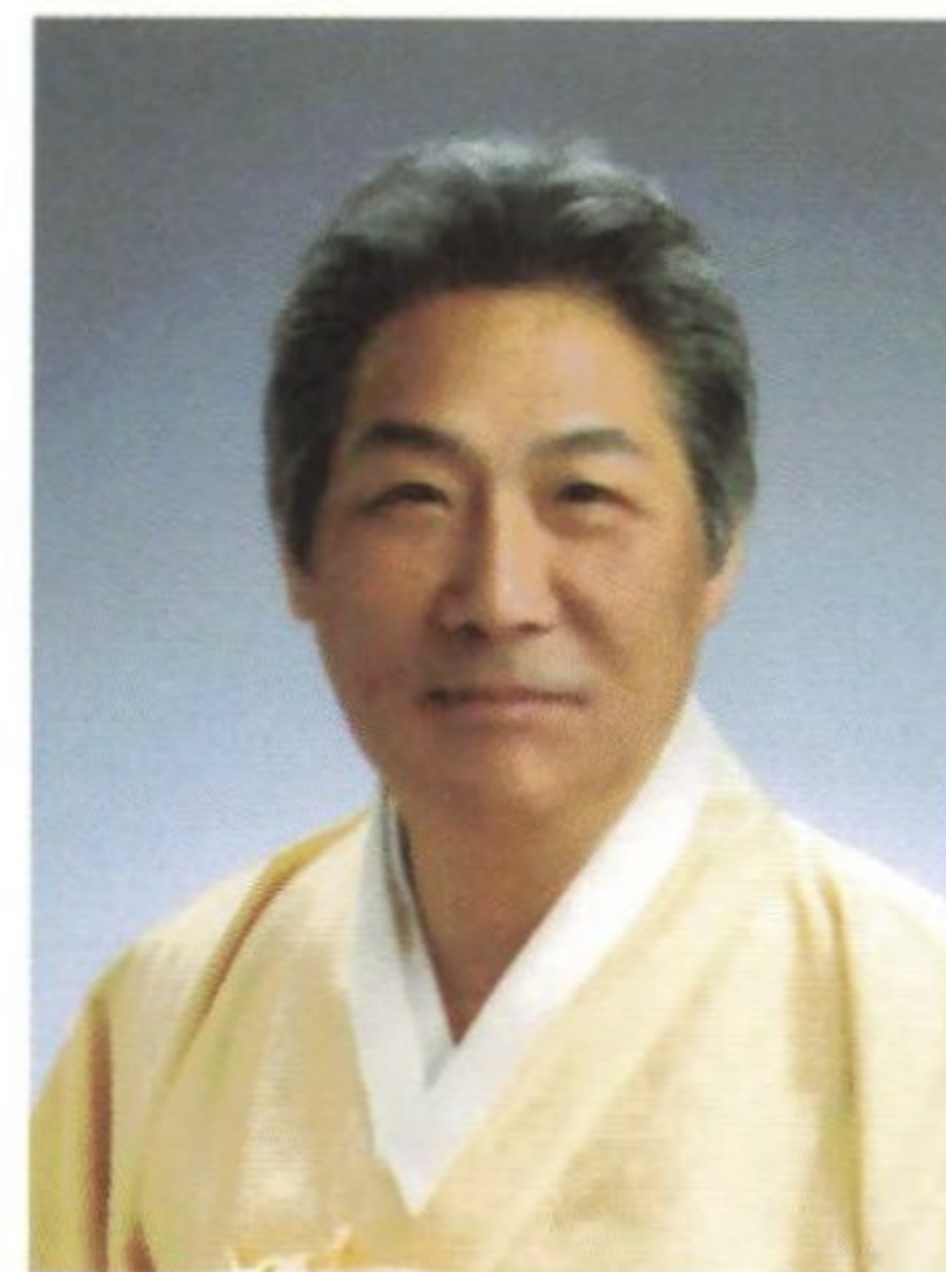
웃맵시를 새롭게 여미고

6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3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 지역간 교류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6월에는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인 주영위 객원지휘자와 함께 지역정서가 담긴 창작국악곡을 중심으로 신명나는 무대를 열어준다.



객원지휘자 주영위



대금 유경조



보컬 윤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유경조, 가수 윤성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2011년 대구시립국악단 위촉곡인

이정호 곡 '상주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 등 대구시립국악단 위촉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통해 처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만나는 객원지휘자 주영위는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국악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KBS 국악관현악단 부수석을 역임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2010년 대구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한 주영위는 현재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경북국악관현악단 단장 및 상임지휘자, 해금실내악단 '이현의 농'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곡인 국악관현악 '꽤치나(정동희 곡)'는 2009년 대구시립국악단 위촉곡으로, 경상도 특유의 메나리 창법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민요인 '꽤치나 칭칭나네'에서 모티브를 따온 곡이다. 또 다른 2009년 위촉곡인 대금협주곡 '하늘소리, 청성(권은실 곡)'은 대금의 우아함과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청성곡과 정악의 아름다우면서도 위풍당당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느낌의 창작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유경조의 대금협연으로 들려준다.

2010년 위촉곡인 국악관현악 '도라지(이지민 곡)'는 민요 '도라지'의 선율을 모티브로, 대금과 해금의 주선율로 시작되는 서정적인 1악장과 박진감 넘치는 관현악적 요소로 표현된 2악장, 각 악기의 솔로 선율과 리듬, 서양악기인 베이스를 첨가해 리드미컬한 느낌을 살린 3악장으로 구성된 곡이다. 락밴드 '아프리카' 보컬로 있는 가수 윤성이 들려주는 '우리의 노래'에서는 '상주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이정호 곡)', 영화 '왕의 남자' OST 중 '인연',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령'을 들려준다. 2011년 위촉곡인 '상주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는 경북 상주지역에 전해내려오는 노동요로, 삶의 애환과 남녀간의 사랑이 해학적으로 표현된 '상주 모심기 노래'를 전형적인 메나리토리 멜로디를 주제로 현대적인 감성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2010년 위촉곡인 국악관현악 '세계를 향한 메아리(임교민 곡)'. 총 3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서정적인 해금의 2중주 선율을 시작으로 리드미컬하면서도 위풍당당한 관현악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우리의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 입장권 | 초대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및 순회연주회

라틴 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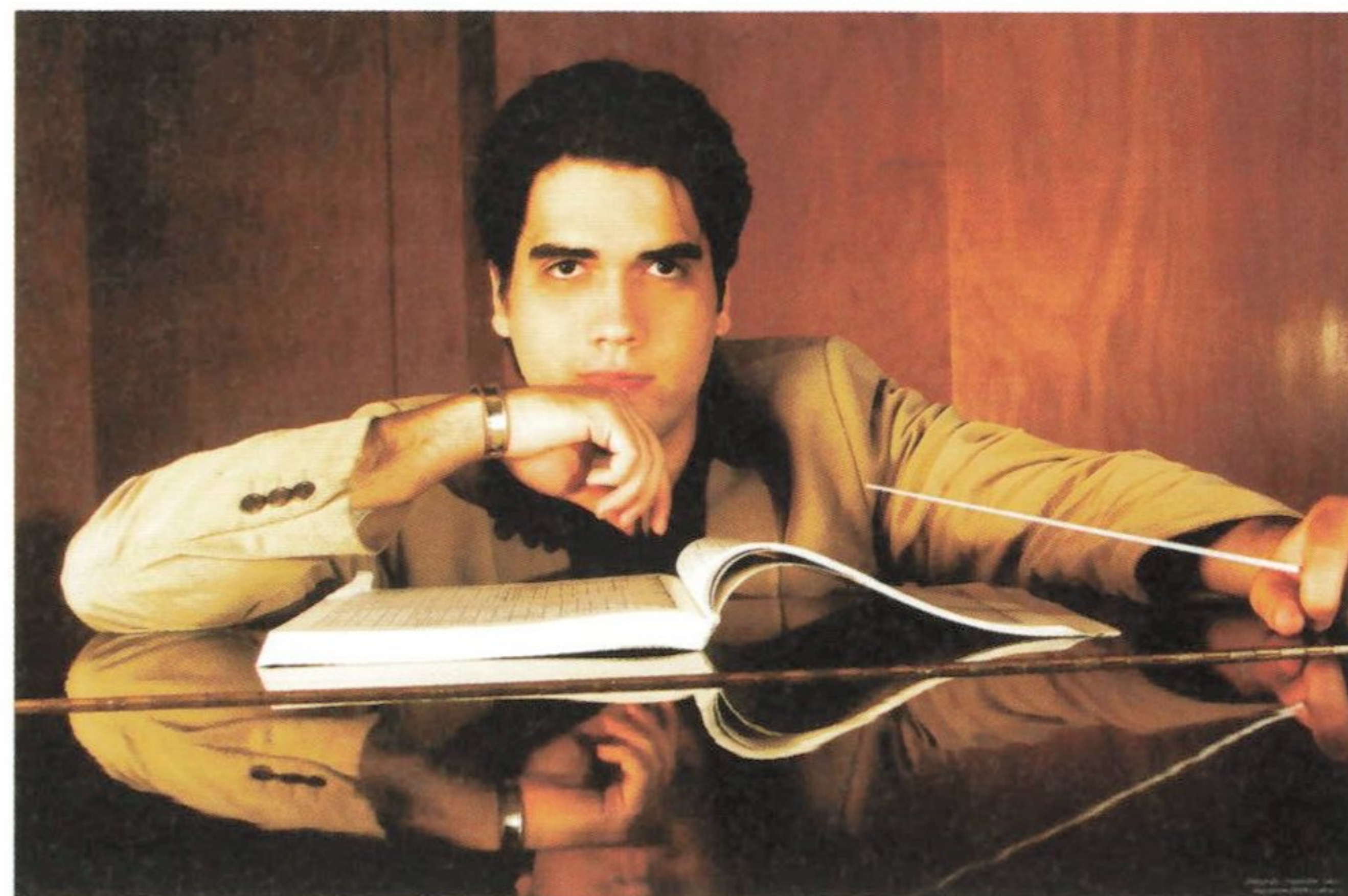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출신의 젊은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Manuel López)가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부산을 찾는다. 라틴의 열정과 화려함이 묻어나는 '라틴클래식'의 진수를 들려줄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와 베네수엘라 테레사 카레노 유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수많은 베네수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하며 '라이징 스타, 빼어난 재능을 지닌 지휘자'로 각광받아 왔다.

1983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태어난 마누엘 로페스는 6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1999년 베네수엘라의 국립아동교향악단 단원으로 입단하여 미국,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의 투어에도 참가하였다.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4년간 활동하기도 한 마누엘 로페스는 2000년, 마에스트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의 지도 아래 지휘 수업을 시작했다.

200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게오르그 솔티'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준결선에 오른 마누엘 로페스는 당시 '비범한 인간적 기백, 뛰어난 관념의 전문가적 책임감, 진정한 예술적 통찰력'을 가진 지휘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와 푸치니의 '라보엠'의 해외 제작 시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의 부감독을 맡은 바 있는 마누엘 로페스는 두다멜의 대기지휘자로 활동하며 두다멜로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기도 했다.

협연자 없이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 마누엘 로페스는 이노센테 카레노 교향시 '마르가리테냐', 알베르토 히나스테라 무곡 모음 '에스탄시아' 작품, 호세 파블로 몬카요 '우아광고', 실베스트레 레부엘타스 '센세마야', 아르투로 마르케스 단손 제2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

번'을 들려준다.

몬카요 '우아광고'는 레부엘타스의 센세마야 등을 비롯한 멕시코의 클래식 곡 중 가장 즐겨 연주되는 곡 중 하나이다. 몬카요는 현악기의 피치카토와 하프를 사용해서 멕시코의 향토색 짙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견잡을 수 없이 격한 리듬감과 기쁨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깊은 서정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오케스트레이션은 오히려 힘찬 금관악기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펫과 트롬본이 마치 경합을 하는 듯 교대로 연주된다.

마르케스 '단손 제2번'은 멕시코시티 대학의 위촉을 받아 작곡에 착수, 1994년 3월 5일 멕시코에서 프란시스코 사빈 지휘로 초연되어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론도 형식의 이 곡은 메인 테마가 매우 아름답고 우아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듯하다가 격정적인 리듬이 폭발하듯 나타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자연주의 피아노 음악의 거장

조지 윈스턴 LOVE WILL COME

7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이 7월 5일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로 부산 음악팬들을 찾아온다. 앨범 'December'로 국내 앨범 최고의 판매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조지 윈스턴은 계절의 변화와 공기, 바람, 물과 같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깊고 따뜻한 울림을 가진 피아노 연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해왔다.

민요, 블루스, 재즈 음악의 전통은 물론, 동시대 음악인들의 재능을 동시에 흡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펼쳐온 조지 윈스턴은 그의 고향 몬타나의 대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평화로운 음율을 선율로 담아내 '자연주의 피아니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지 윈스턴은 1980년부터 'Autumn(1980)' - 'Winter Into Spring(1982)' - 'December(1982)' 등의 계절 시리즈를 연달아 발표하며 음악적, 상업적인 성공을 동시에 거두었다. 특히 'Autumn'과 'December'는 평론가들의 찬사와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누렸던 조지 윈스턴의 대표작이다. 잠시 공백기를 가졌던 조지 윈스턴은 1991년 'Summer'를 발표하면서 계절 연작시리즈를 마감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조지 윈스턴은 1994년 'Forest'를 발표하며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고, 1996년에는 그가 평소에 존경해 왔던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빈스 과랄디(Vince Guaraldi)에 대한 오마주 'Linus & Lucy'를 발표했다. 'Forest' 앨범은 그래미賞 '최우수 뉴에이지 앨범상'을 수상했다. 그외 'Summer(1991)', 'Forest(1994)', 'Plains(1999)'를 비롯해 'Montana-A Love Story(2004)' 등 6개의 앨범이 미국 빌보드차트 뉴에이지 부문 1위에 올랐다. 1998년 내한 당시 IMF로 실직을 맞은 수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공연 개런티 전액을 '실직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탁한 바 있는 조지 윈스턴은 1999년 앨범 'Plains' 보너스 트랙에 한국 팬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들을 위해 '아리랑'을 수록하는 등 한국 팬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져왔다.

4년만에 발표한 신작 '러브 윌 컴(LOVE WILL COME)'은 애니메이션 '피너츠(Peanuts)'의 음악을 만든 재즈 피아니스트 빈스 과랄디에게 헌정한 두 번째 음반으로, 과랄디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했다. 과랄디의 섬세함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신의 음악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한 조지 윈스턴은 이번 신작 앨범에서 재즈를 흡수, 조금은 번잡할 수 있는 재즈의 피아니즘을 정결하고 맑은 타건(打鍵)으로 소화해 냈다. 이번 무대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Thanksgiving'과 같은 자연과 추억을 담은 작품들과 자신의 음악에 영향을 준 도어스, 빈스 과랄디, 재즈 피아니스트 제임스 부커, 헨리 버틀러, 그의 하모니커 스승인 샘 힌튼 등에게 영감을 받은 다양한 작품들을 들려준다.

● 입장권 | VIP석 88,000원 ·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 라임기획(1600-1602)



춤으로 새로운 세상을 연다

부산국제무용제 김희은 운영위원장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산. 열정의 도시 부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국제무용제가 6월, 부산을 뜨겁게 달군다.

부산국제무용제 김희은(동의대학교 특수체육과 교수) 운영위원장은 6월 3일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개막을 앞두고 요즘 막바지 점

검이 한창이다.

지난해 9월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11년 시작과 함께 부산국제무용제 준비로 바쁘게 달려온 김희은 운영위원장은 올해 7회를 맞는 부산국제무용제를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축제로, 세계적인 해양 춤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김희은 운영위원장이 구상한 2011년 부산국제무용제의 콘셉트는 ‘소통과 조화’이다.

“그동안 부산국제무용제는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춤언어를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국내외의 수준 높은 공연팀이 소통과 조화를 화두로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한 열정적인 소통 커뮤니티 댄스를 펼칩니다.”

2005년 출발한 부산국제무용제는 짧은 시간동안 세계적인 무용제로 성장해왔다. 첫 회 때 시비 1억원으로 동아시아 2개국 공연팀과 국내 팀을 초청해 출발했지만 2009년 지역 무용제 최초로 지원 받은 국비 3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해 규모가 커졌고 지난해는 ‘땅, 하늘, 바다의 춤 릴레이 축제-그 기상과 힘’이란 주제로 프랑스, 일본, 미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등 11개국 127팀이 참가해 부산의 바다를 뜨겁게 달구었다. 올해는 ‘춤, 바다에서 세상과 통하다’를 타이틀로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핀란드 등 13개국 150개팀이 부산을 찾는다. 국내팀으로는 부산에서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유니버셜발레단, 안은미컴퍼니, 서울예술단이 오랜만에 부산을 찾고 미국의 River North Dance Chicago, 호주의 Expressions Dance Company 등이 열정적인 몸짓으로 부산시민들의 무뎠던 감성을 깨운다.

김희은 위원장은 지난해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부산국제무용제 영문명칭을 기존 BIDF(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에서 BID(Busan International Dance)로 바꾸었다. 영어로 ‘Bid’는 ‘노력·시도’를 뜻하는 말. 부산국제무용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정비하고 BID라는 영문명칭에 걸맞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큐알코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일본 관광객들에게 부산국제무용제를 적극 홍보하는 등 마케팅에 많은 신경을 썼다.

부산국제무용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월부터 시민 춤 릴레이를 펼쳐온 김희은 위원장은 스트리트홍보공연을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잊을 수 없다. 그 열기를 반영하듯 자원봉사자모집 경쟁률이 28:1을 기록해 즐거운 비명을 질렀을 정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무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는 힙합, 팝핀, 댄스 스포츠 등의 장르도 모두 무용 범주에 속합니다. 무용도 이제 순수예술이라는 고정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김희은 운영위원장의 무용철학은 확고하다. 2001년 힙합을 가미한 작품 ‘바람, 꿈, 바우덕이’를 발표해 당시 현대무용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 그는 매 작품마다 관객들에게 재미를 안겨줄 수 있는 소통하는 작품에 주력해온 무용가이다. 요즘은 힙합을 가미한 작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야했던 당시와 정서가 많이 바뀌어 국제무용제 준비 작업에 더 힘이 난다. 올해부터 국내초청작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순수와 대중적인 작품에 대한 벽을 허물고 다양한 장르, 계층에 문을 열었다. 폐막공연에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무용단 빛소리친구들도 초청했다. 무용제가 무용인들만의 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김희은 위원장은 시민문화 춤 릴레이를 통해 선정된 아마추어팀들의 공연과 해변 특설무대를 찾아준 관람객들이 함께 참가하는 특별한 폐막식 뒷풀이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다른 공연도 그렇지만 무용은 특히 관객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무용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춤으로 하나 되어 세상과 통하는 문(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열정으로 우리는 새로운 춤언어로 세상과 통하는 행복한 춤 세상을 만날 수 있다.(사진제공/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흰 구름 흘러가는 곳에 즐거움이 있지만

정일근_시인, 경남대학교 교수

중국 남조 시대 양나라에 도홍경(陶弘景 · 456~536)이란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는 통명(通明)이고 호는 은거(隱居)여서 세상이 그를 ‘도은거’라 불렀다고 합니다. 호가 은거이니 그가 숨어살기를 즐겨워했다는 것을 쉽게 아실 것입니다. 도은거는 일찍이 벼슬을 버리고 산중에 숨어 살았지만 음양오행에 능통하여 양나라 무제(武帝)의 신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국가의 길흉과 큰일에 자문을 맡아 ‘산중재상(山中宰相)’ 이라고도 불리었다고 합니다.

저는 5, 6세기 사람의 삶이 속도, 가속도를 추구하는 현대와는 분명 다를 것인데 그런 세상도 싫어 산중으로 숨어버린 도은거가 참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그가 능통한 음양오행이 가르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저자거리와 산중의 삶 중에서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를요. 사람은 어느 시대든 제 몸과 마음이 행복한 쪽으로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양 무제가 산을 떠나 조정으로 돌아오라고 권하자 도은거가 대답 대신 지어 올린 시 중에 ‘지가자이열(只可自怡悅)’란 명구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이운(怡雲)’, ‘나 홀로 구름을 즐긴다’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怡雲에는 자연을 벗하며 사는 은자의 소중한 삶이 숨어 있습니다. 저도 감히 怡雲을 꿈꾸며 은현리란 유토피아를 찾아 숨어들었지만 세상의 유혹은 예나 지금이나 화려하기만 합니다. 산중에 숨어 흘러가는 흰 구름이 즐기며 살려는 마음보다 도시의 불빛이 더 밝은 법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할수록 그 불빛의 유혹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怡雲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말 속에 사람의 둥근 길을 숨겨 두고 살았습니다. 옛 선비들의 꿈, 요즘말로 하면 ‘로망’이었던 것입니다.

조선 시대, 19세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서유구 선생도 그 구절에 무릎을 치며 자신의 서재를 ‘자이열재(自怡悅齋)’라 이름 했다고 합니다. 서유구 선생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쌍벽이었던 대학자였지만 그의 꿈은 산중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사는 일이었습니다. 허나 산중에 숨어 살며 구름이나 즐기며 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로 속탈 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깊은 깨달음이고 또한 뼈를 깎는 수행의 다름아닐 것입니다. 서유구 선생도 怡雲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즐긴다는 것, 그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자 ‘이(怡)’를 우리는 쉽게 ‘즐겁다’는 뜻으로 풀이 하지만 스스로 즐거워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텃밭에 남새가 자라듯이, 나무속에 해마다 둥근 길이 하나씩 만들어지듯이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일이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들 怡雲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허나 구름을 즐기기에 나의 몸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구름을 즐기려면 구름이 되어보아야 하는데 70~71kg쯤 되는 내 몸무게는 너무 무거운 욕심의 무게입니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흘러가는 흰 구름까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먼 지 재어 보십시오.

오늘도 하늘엔 흰 구름은 유유자적 자유로이 흘러가는데.

둥근 길

정일근

나무는 자신의 몸속에 둥근 시간 숨기고 산다
나이테가 둥근 것은 시간이 둥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간이 둥근 것은 우리 사는 세상이 둥글기 때문이다
사람의 시간이란 직선의 속도는 아니다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는 둥근 시간이 사람의 시간이다
둥글게 걷다보면 당신은 어디선가 나무의 시간과 만날 것이다
하늘이 사람의 엄지손가락에 나무의 나이테 같은
사람이 걸어갈 둥근 길을 숨겨 놓은 것처럼



사진 정일근



불편, 호기심, 끈기에서 비롯된 독일의 발명품들

김지혜 _독일통신원

이번 호에도 독일의 발명품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없이 동반하는 친근한 벗과 같은 발명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발명품은 인류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창조물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와 호기심 그리고 끈기에서 비롯됨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모니카_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부쉬만, 1821년

혀로 소리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이미 2,800년 전 중국에서 시작된 바 있는데 자유롭게 움직이는 혀놀림으로 대나무를 통을 자극해서 음색과 음높이 등 소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고안된 악기에 이르지 못한 채 완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의 하모니카 형태의 고안은 약 200여년 전 독일 튀링겐 지방의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부쉬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유명한 악기 제조업자의 아들이었는데 부친을 닮아서 어릴 때 부터 악기 제작에 뛰어난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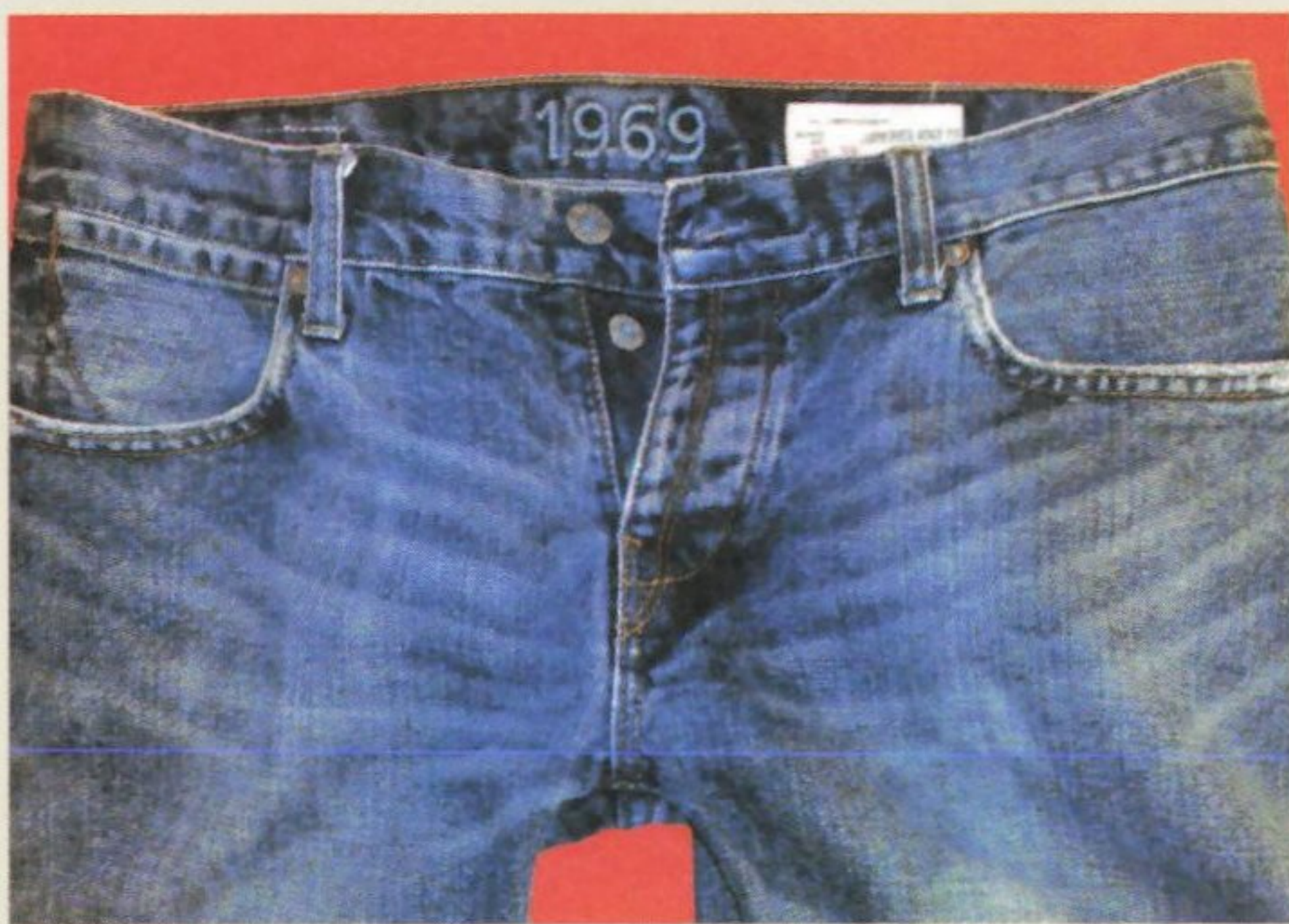
주를 보였는데 16세때 피아노 조율을 용이하게 하고자 풍금 비슷한 소리를 내는 4인치 크기의 악기를 고안해내기에 이른다. 그는 그 조그만 물건의 숨은 가능성을 파악하고는 계속 개발을 해서는 입으로 불어서 21개의 음을 낼 수 있는 하모니카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마치 울먹이는 듯한 아주 부드럽고センチ멘탈한 여린 음에서부터 뜨겁게 호소하는 포르테 음에 이르는 폭넓은 다이내믹과 함께 동시에 연주자의 깊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모니카는 작아서 쉽게 휴대할 수도 있고 배우기도 쉬워서 금방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하모니카는 '블루스 하프'라고 불릴 만큼 블루스와 재즈, 민속음악 등에서 빠질 수 없는 감초와도 같은 악기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1965년 12월 16일 우주인 발터 쉬라는 우주선 제미니 4호에서 징글벨을 연주함으로써 하모니카는 우주에서 처음 연주된 악기로 알려져 있다.



MP3_프라우엔호퍼, 1987년

1980년대-90년대에 워크맨이 당시 젊은이들의 음악 문화를 바꾸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면 MP3는 디지털 음악 문화의 판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손가락 크기의 작은 기계에 수천여곡의 음악과 각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처음 개발한 것은 1987년 프라우엔호퍼 연구소이다. 당시에 오디오 데이터를 MP3포맷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음악과는 상관없었는데, 더 나은 전화의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음악 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물론 음악을 불법다운 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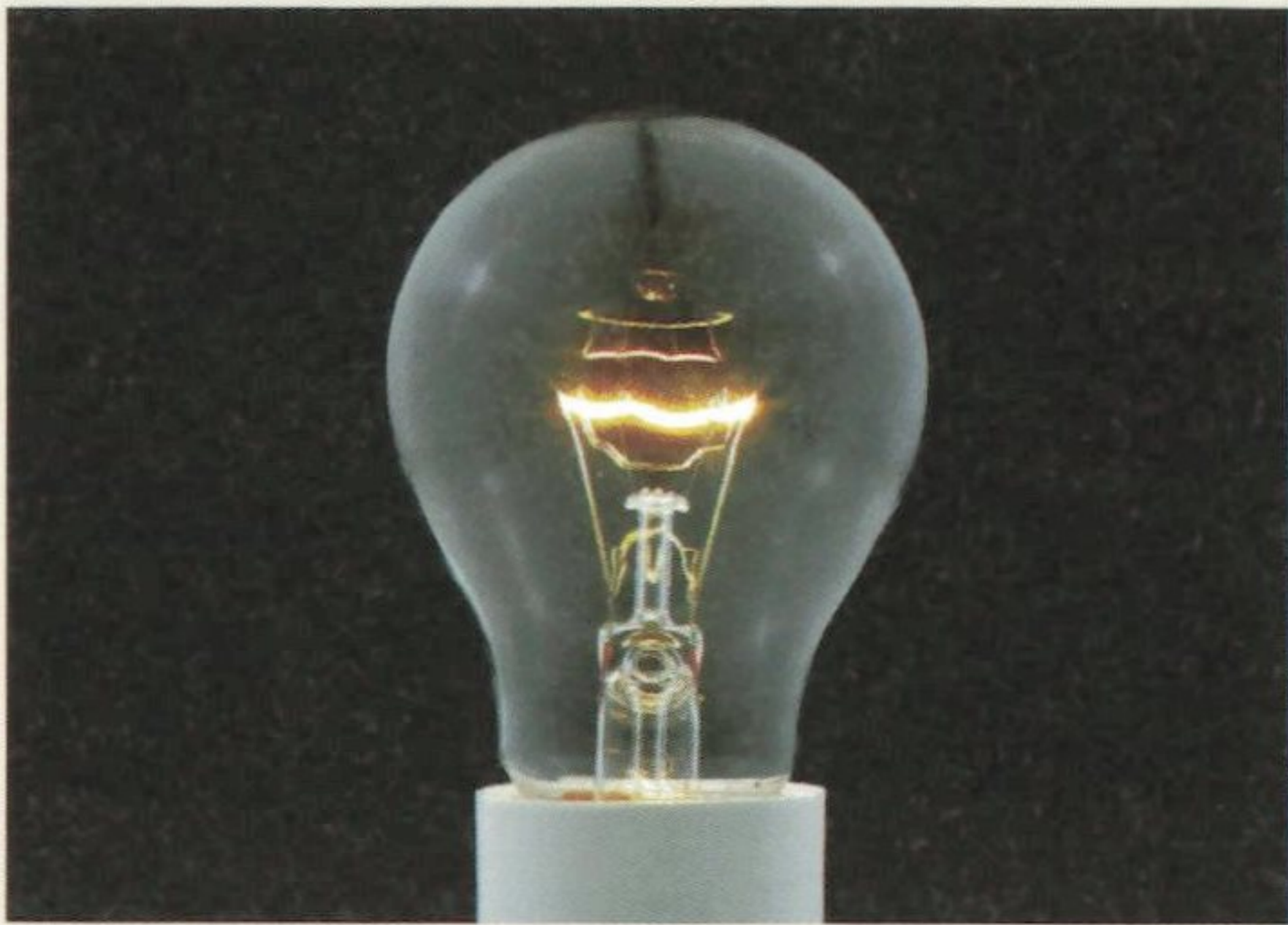
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학교와 직장 가는 길, 휴가지, 자동차 안 등 이 미니 기계의 도움으로 우리의 환경이 움직이는 음악실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청바지_레비 슈트라우스, 1873년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 신나게 카브리올을 타고 거친 사막을 질주하는 젊은이들, 제임스 딘과 말론 브란도를 떠올리게 하는 청바지는 1950년대 미국 패션 문화를 대변하는 산물이었다. 하지만 청바지는 놀랍게도 미국인의 발명품이 아니라 독일인의 아이디어였음을 독자들은 꼭 기억하기 바란다. 1848년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인 레비 슈트라우스는 185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광부들을 위해서 천막천을 이용해서 튼튼한 바지를 제작하기 시작했다가 이후 푸른 면 데님을 사용해서 바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초창기 청바지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꺼운 소재 때문에 바

느질이 시원찮다는 점이였다. 이 문제점은 네바다에 사는 재봉사 야콥 데이빗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해결되는데 그는 동으로 된 작은 버튼을 부착함으로써 오늘날의 튼튼한 청바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두사람이 함께 특허를 신청하게 되었고 2차 세계 대전 때 미군들을 통해서 청바지가 레비 슈트라우스의 고향 유럽에도 도착하게 된다. 오늘날 청바지는 전세계 패션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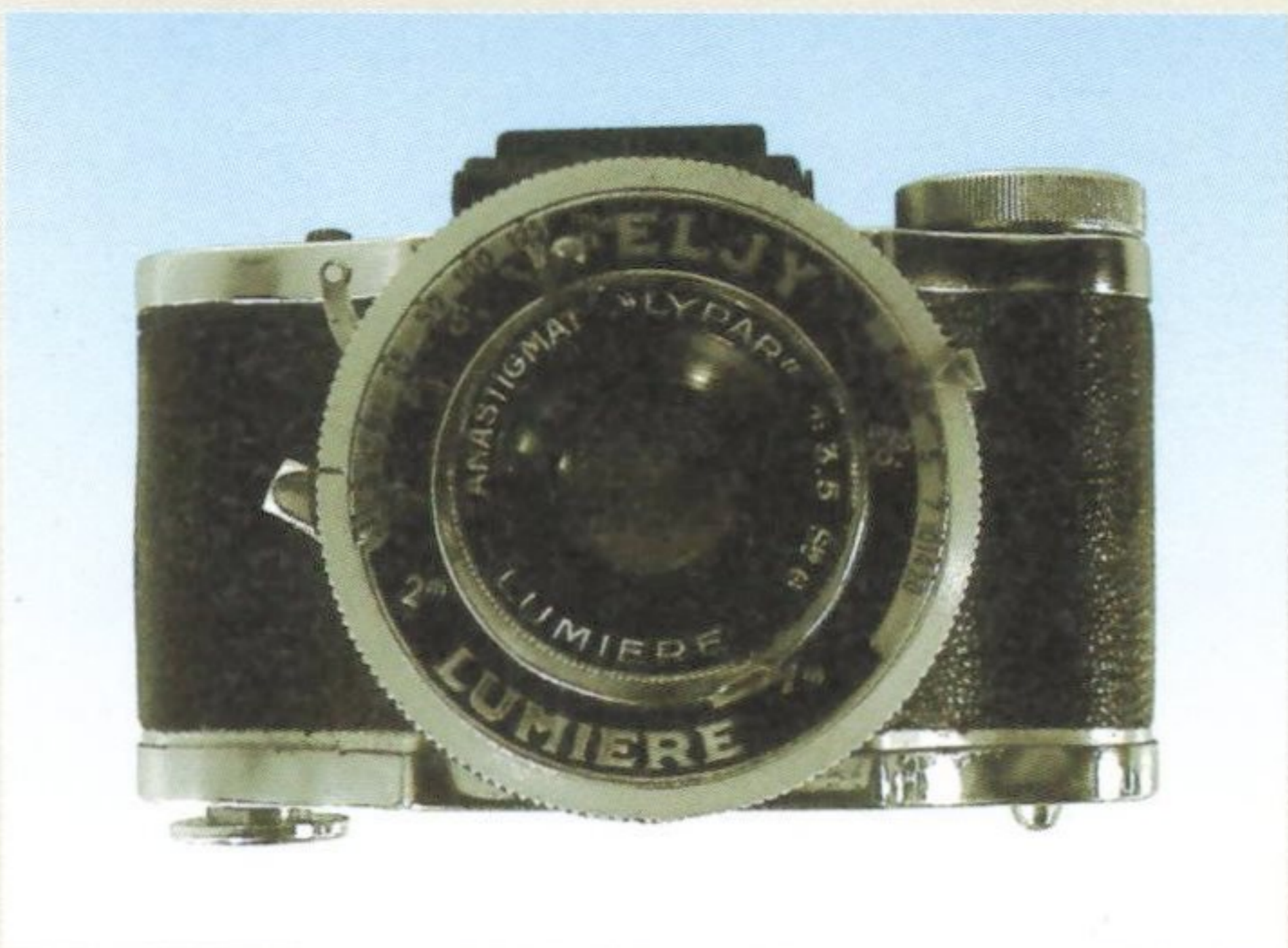
전구(백열등)_하인리히 괴벨, 1854년

1837년 이후 하인리히 괴벨은 인공적인 빛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 전구 실험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소방차의 출동이 늘 대기해 있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전선을 찾지 못해서 전구는 금방 불이 꺼져 버렸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거듭한 결과 1854년 진공 상태에서 필라멘트의 수명이 오래 간다는 것에 착안해서 최초로 40시간 동안 빛을 발하는 전구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후 세상을 밝혀주는 착한 등불이 되었다. 현재는 백열등 대신 새로운 절전 전구들이 개발됨으로써 백열등의 생산은 점점 중지되고 있다.



헬리콥터_헨리히 폭케, 1936년

땅을 벗어나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인류의 꿈과 시도는 기원후 4세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비행기의 발명으로 그 꿈은 현실화 되었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날들이 1936년 베를린에서 선을 보이게 된다. 본체 위에 달린 십자형의 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자유자재로 방향 조절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 조종사는 자유자재 곡예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구사해야 한다. 자유로운 방향 이동이 가능한 헬리콥터의 발명 덕분에 헬리콥터는 공중에서의 교통 상황 탐사, 산불 진압, 인명 구조에 늘 출동되는 감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휴대용 카메라_오스카 바르낙, 1925년

신문과 잡지 1면에 게재된 해외 토픽 사진들, 추억이 담긴 가족 사진, 로맨틱한 휴가를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휴대용 카메라는 더 이상 없어서는 안될 필수물이 되었다. 세공기술자이자 취미 사진 기사였던 오스카 바르낙은 우연히 당시의 커다란 카메라가 가진 특징-현광관에 찍힌 그림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다는 사실-에 감안해서 사진 찍는 사람의 눈에 맞는 작은 포맷을 카메라에 장착했다. 다시 말하면 35mm 영화필름용 렌즈와 24개의 36mm 플래시를 장착한 것이다. 이어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이미 유물이 되어 버린 두루마리 필름을 카메라 안에 삽입하게

함으로서 손안에 쏙 들어가는 휴대용 카메라가 우리의 나들이길의 동반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TV_만프레드 폰 아르데네, 1930년

1930년 성탄절 저녁 만프레드 폰 아르데네는 최초의 전기 텔레비전 수신에 성공한다. 이후 1935년 정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까지 기술 개발을 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TV를 통한 오락거리 제공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TV가 있기 전에는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볼거리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다였지만 TV의 보급으로 인해서 친구, 이웃, 가족들이 거실에 놓인 조그만 움직이는 그림 상자 앞에 수시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 1953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등극하던 날 독일인들의 대다수는 TV 덕택에 그 장면을 체험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 이후 24시간 TV 수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연간 1억 6천 7백만대의 TV가 판매된다.



커피 필터_멜리타 벤츠, 1908년

‘커피는 의식이다 (Coffee is cult)’ - 라고 할 만큼 커피는 단지 음료수가 아닌 마치 영혼을 유혹하는 ‘검은 성수’로 추앙받고 있다. 독일인 한 사람이 매년 마시는 커피는 150리터에 달할 정도이고, 이탈리아인들은 아침 출근길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커피는 현대인의 의식이자 트렌드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두의 품종은 물론 볶기의 정도, 물의 온도와 종류, 커피의 분쇄 정도, 커피를 뽑을 때의 압력 등 여러가지 변화 요소들이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분류되고 있다. 오늘 날과 같은 고압력 최첨단 커피 머신이 개발되기 한참 전에는 분쇄된 원두로부터 향과 커피 고유의 맛을 제대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필터가 아주 중요했다. 1900년대 초 유럽에서는 커피를 걸러내기 위해서 철로 된 채를 사용했는데 이 때 커피 찌꺼기가 항상 같이 내려와서 커피 맛을 둔탁하게 할 뿐 아니라 씹히기까지 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였던 멜리타 벤츠는 우연히 아이들의 노트를 찢어서 채에 받혀서 커피를 걸러냈는데 이 때 커피 앙금이 종이에 걸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960-70년대 학교를 다녔던 독자들은 당시의 거친 재질의 누런 종이 노트를 기억할 것이다) 1908년 7월에 멜리타 벤츠는 베를린에서 특허 신청을 내게 되었고 회사를 설립한다.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1937년 오늘날의 봉지 형태의 종이 필터 개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녀가 설립한 회사는 멜리타 (Melitta) 라는 메이커의 필터를 생산해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되고 오늘날 3,800명의 직원을 가진 세계적인 커피 제품 회사로 자리잡고 있다.

독일통신원 김지혜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포츠담대학과 함부르크음대에서 음악치료와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베를린에서 음악치료사,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린 플레이어

이동신_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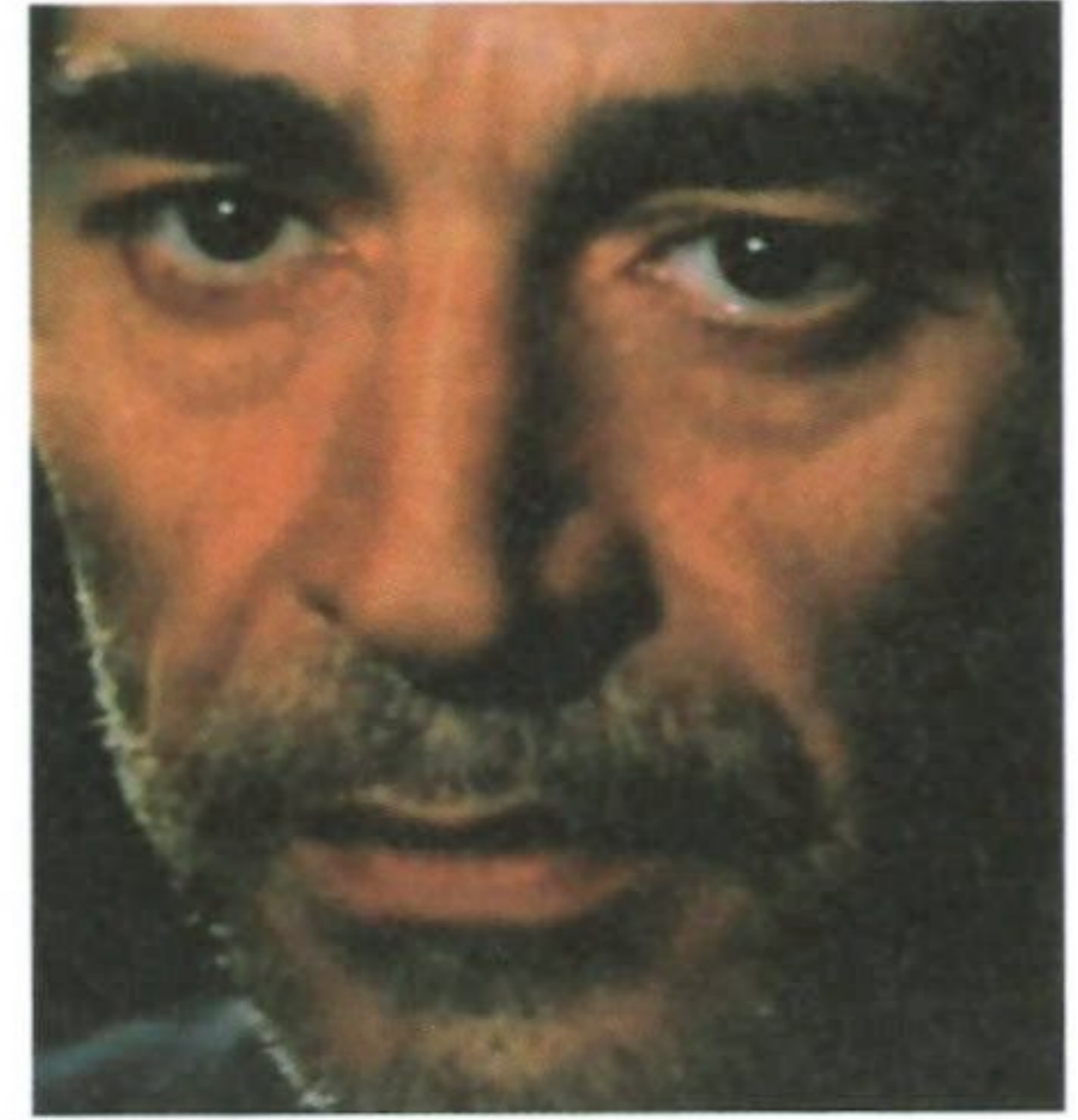


칸 영화제 본선 진출작인 살리 반 당 감독의 '바이올린 플레이어'는 제도권에서 밀려나 지하세계로 스며든 한 예술가와 그의 음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되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1994년 살리 반 당 감독의 영화 <바이올린 플레이어>는 파리를 배경으로 한 음악영화이며 칸 영화제 본선 진출작이기도 하다. 앙드레 오데의 소설 <무지칸트>가 원작인 이 영화는 제도권에서 밀려나 지하세계로 스며든 한 예술가와 그의 음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아르몽은 오로지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짐짓 고상함을 가장하고 음악을 즐기는 척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값비싼 옷에 천박한 교양을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 한 곡도 연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는 사사건건 동료 음악가들과 충돌하고 결국 음악적인 견해 차이가 빌미가 되어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오케스트라를 그만둔다. 그리고는 위선으로 가득 찬 제도권을 떠나 비제도권 예술가들의 무대인 파리의 지하도로 스며든다.

파리의 지하도는 이름 없는 예술가들의 해방구와 같은 곳이다. 아르몽은 지하도에서 예술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새로운 음악인생을 시작한다. 그는 한 늙은 첼로 연주자와 함께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독주곡 <사콘느>를 함께 연주하면서 음악적 교감을 주고받는다. 그들의 연주를 듣고 지하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든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음악회에 합세한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의 악사로 변신해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던 아르몽에게 불행이 닥친다. 불량배들이 그의 분신과도 같은 바이올린을 부수어 버린 것이다. 새 바이올린을 장만할 수 없었던 아르몽은 자신의 연주를 녹음한 테이프를 틀어 놓고 연주하는 흥내를 내는 것으로 만족



이 영화의 전편에 흐르는 '샤콘느'는 바흐가 작곡한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제 2번' 중 다섯번째 곡으로 그 규모나 예술적 완성도에 있어서 단연 압도적인 걸작이다.

해야 했다. 이 때 아르몽의 친구가 나타나 그에게 바이올린을 준다.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잡은 아르몽은 몇 소절 연주 해 보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곧 연주를 멈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음을 눈앞에 둔 할아버지가 음악을 들려달라는 마지막 애원을 한다. 할아버지의 간청에 감동을 받은 아르몽은 다시 바이올린을 들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영혼의 연주를 시작한다. 그가 연주한 곡은 역시 장장 15분에 걸친 바흐의 <샤콘느>. 지하철을 타고 길게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소리는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지하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깨운다. 이때 화면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아르몽의 모습과 그의 연주를 들으며 하나 둘 씩 영혼의 잠을 깨는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어준다. 음악과는 무관하게 살았을 부랑자 노인이 서서히 음악 속으로 몰입되며 눈빛이 살아오는 장면이나, 좌절한 무용수가 스트레칭을 하며 다시 춤 동작을 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부랑자들이 하나 둘 일어나 잊고 있던 삶의 의지를 새삼 불러일으키는 장면은 압권이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처음에 음악을 들려달라고 간청하던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남루한 옷 자락을 잡은 채 서서히 숨을 거둔다.

이 영화의 전편에 흐르는 <샤콘느>는 바흐가 작곡한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제 2번> 중에 나오는 곡이다. <샤콘느>는 그 중의 제 5곡에 해당되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나 예술적 완성도에 있어서 단연 압도적인 걸작이다.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실제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라고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돈 크레머 자신도 '순식간에 자신을 사로잡은 영화'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꽤히 음악 감독과 연주를 담당했다고 전해진다.

<바이올린 플레이어>는 단순한 흥미위주의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무려 15분을 바흐의 <샤콘느> 연주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 긴 시간동안 카메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음악을 경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섬세하게 영상으로 잡아낸다.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 없이 음악과 영상에만 15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즐거리의 재미보다는 영상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비롯된 삶의 깊은 의미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추구하는 프랑스 영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바이마르의 전설

함양하 한국리스트협회 회장

리스트는 순회연주기간 동안에도 1842년부터 바이마르 대공화국에서 특별 음악감독으로 초빙을 받고 정기적으로 바이마르와 독일의 몇몇 도시에서 지휘를 하였다. 1847년 1월 러시아의 키예프 연주 당시 카롤라인 자인 비트겐슈타인 후작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급속히 가까워졌고 이후 리스트는 죽을 때까지 연인으로, 실질적인 부부로, 또 정신적인 동반자로 그녀와 깊은 관계를 갖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녀는 리스트에게 연주여행을 중단하고 작곡에 전념할 것을 조언하였다. 리스트는 그녀의 조언으로 연주여행을 중단하고 1848년 바이마르 대공화국의 음악책임자(Kapellmeister)로 부임하여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약 12년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음악을 작곡하고 자신이 전에 작곡하였던 작품들을 수정하거나 스케치하였던 작품들을 완성한다.

비트겐슈타인 부인은 1848년 4월 러시아를 떠나 그해 여름부터 바이마르에서 리스트와 함께 거주하며 리스트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귀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신앙심이 깊고, 사려 깊은 성품으로 리스트와 리스트의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격려하였다. 그들은 바이마르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알텐부르크 언덕의 넓은 저택에서 거주하였으며, 리스트는 비트겐슈타인 부인의 헌신적인 뒷받침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휘, 작곡, 교육의 음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리스트는 바이마르 시내의 극장과 오케스트라에서 감독과 지휘 일을 하였고 저녁에는 알텐부르크 저택에 음악인들을 초대하여 실내악 연주 등 많은 음악 행사를 가졌다. 이 때 방문했던 많은 음악인들이 알텐부르크의 음악회 경험을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술회하고 있다. 독일의 위대한 시인 괴테와 쉴러의 활동무대였던 바이마르 대공화국은 한때 북쪽의 새로운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의 문화적 명성을 누렸으나 리스트가 찾아갈 당시에는 과거의 영광스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대공비였던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예술에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졌던 여인으로 리스트가 바이마르에서 활동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였다.

리스트는 바이마르공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진취적인 음악인들의 새로운 음악을 많이 연주하였다. 바그너의 탄호이저, 로엔그린, 슈만의 제노베바(Genoveva)와 만프레드 (Manfred), 베를리오즈의 벤베누토 첼리니 (Benvenuto Cellini), 베르디와 도니제티의 오페라들을 공연하였다. 리스트는 특히 바그너의 천재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다음 세대에 새로운 음악의 거장으로 기억되리라고 예견하였다. 드레스덴에서 활동하던 바그너는 1849년 정치적 반란 사건으로 도피자가 되는데 리스트는 바그너가 무사히 망명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주었다. 이후 바그너는 11년간 독일 땅을 밟을 수 없었고 독일 지역에서 바그너의 음악이 공연되기 어려웠으나 바이마르 공국의 오케스트라에서는 리스트에 의해 여러 차례 바그너의 오페라가 공연되었고 리스트가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지휘하거나 연주할 때는 바그너의 오페라 서곡이나 피아노 편곡 등을 연주곡목에 넣어 자주 연주하였다. 리스트는 바그너 뿐만 아니라 진취적이고 재능이 보이는 다른 음악가들과 그들의 음악을 헌신적으로 성원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였다. 리스트의 이러

한 진취적인 태도는 보수적인 구 관료들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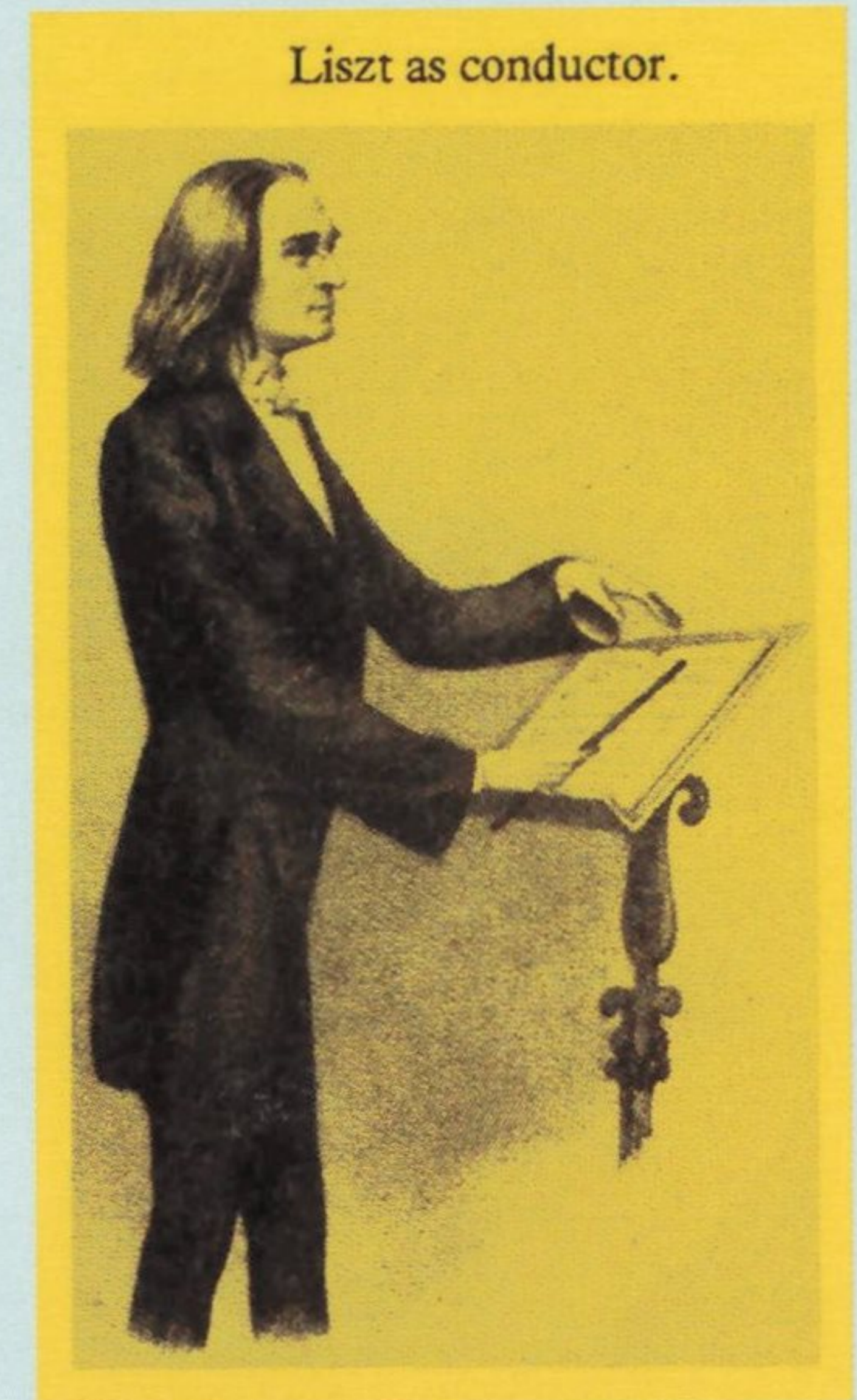
리스트는 평생동안 끊임없는 탐구심으로 항상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였고 자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음악을 담기 위해서 새로운 음악 형식이나 기존 형식의 변형을 필요로 하였다. 리스트는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그는 '주제변형기법'을 발전시켰고 '교향시'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창안하였다. 리스트는 바이마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12개의 교향시, 파우스트 교향곡, 단테 교향곡 등의 관현악곡들과 2개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비롯한 협주곡들, 피아노 소나타 나단조(1852-53) 등을 비롯한 다수의 피아노 음악, 피아노 편곡, 오페라 편곡(판타지아), 오르간을 위한 작품들, 그란 미사곡 등의 합창곡, 약 50여곡의 가곡 등 방대한 양의 음악과 수많은 걸작들을 작곡하였다. '피아노 소나타 나단조'는 리스트의 새로운 기법들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작품으로 19세기 음악사에 하나의 이정표적인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각 처에서 리스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예술가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리스트는 그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쳤다. 그는 평생 동안 한스 폰 뷔로우, 피터 코르네리우스, 칼 타우지히 등 500명이 넘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와 같이 활발한 리스트의 음악 활동에 의하여 바이마르가 당시 새로운 음악의 중심지가 되어 '신독일학파'나 '미래주의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음악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리스트의 이러한 진취적인 음악 운동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음악인들도 있었는데 브라암스, 요하킴 등의 음악인들은 리스트가 음악의 형식을 함부로 변화시켜 고전음악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표제음악과 절대음악 논쟁도 함께 결부되어 소위 '낭만시대 음악인들의 전쟁'이 큰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수십년 간 계속된다. 상대방의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음악인들 사이에 깊은 갈등을

야기하기까지 한 어느 면에서는 소모적이기도 했던 이 논쟁은 20세기에 들어서까지 계속되었다.

리스트는 바이마르를 새로운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고 빛나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한쪽에서는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의 비협조나 방해도 있었다. 리스트를 처음 초빙하였던 대공이 1853년 서거하고, 리스트의 음악활동을 후원해주었던 마리아 파블로브나 대공비도 1860년 서거하게 되면서 새로운 음악에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리스트의 계획과 궁정극장의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되자 리스트는 바이마르에서 자신의 꿈을 계속 실현하기 어렵다는 실망을 하고 바이마르를 떠나게 된다.

한편 바이마르에서의 비트겐슈타인 부인과 리스트의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은 안정적이고 행복하였으나 이들의 비합법적인 동거상태는 당시의 법과 관습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부인이 리스트를 만날 때 이미 그들 비트겐슈타인 부부는 수년간 별거 상태였고 이혼이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1848년 부인이 러시아를 떠나오며 페테스부르그의 교회 법정에 이혼청원을 하였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러시아에 남아있는 막대한 그녀의 재산과 관련한 문제도 결부되어 문제가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나중에 부인의 전남편 쪽에서는 이미 개신교 교회로부터 이혼을 허락받고 1856년 재혼까지 할 수 있었으나 비트겐슈타인 부인 쪽에서의 이혼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최종 단계에서 보류되었다. 결국 부인과 리스트는 로마 교황청에 둘 사이의 합법적인 결합을 청원하게 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로마로 가게된다(1861).



주막풍경

변광석_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김홍도의 주막풍경

조선은 개국이후 팔도에 술매매와 음주를 금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술의 재료인 곡식의 낭비와 도덕의 타락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오면 농사의 수확과 장사의 이익이 커지면서 사회의 생업인구가 증가하고 먹고 마시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술 소비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본격적으로 금주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도성(都城)의 쌀값이 뛰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곡식을 소비시키는 것으로 술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엄중하게 금지할 것”을 임금이 명령했다. -〈영조실록〉권33, 영조 9년(1733) 정월 10일(임진)-

곡식 소비의 주범은 술이었고 술의 주범은 고기안주였다. 그래서 잔치를 벌일 때는 술대신 기악(伎樂)만 동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될 리는 만무했다. 그 폐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제 서울과 큰 도시의 거리에는 그 수요가 한이 없고, 큰 마을에서도 한 양조장에서 1년에 쌀 수백석을 소모하니, 이는 가난한 집의 10년 양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시골의 시장에는 주점이 3분의 1을 차지했으니, 그 소모되는 쌀이 과연 얼마나 많겠는가? 만약 술을 일체 엄금한다면 흉년이 들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할 것이다.” -〈성호사설(星湖僊說)〉제16권, 인사문-

금주령을 늘 내려도 술소비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술은 필요악이었다. 우리는 길가다가 배고프면 식당을 찾는다. 옛날에는 이런 식당이 주막이었다. 주막은

밥집 겸 술집 기능이 다 있었다. 이번호에는 잘 알려진 김홍도와 신윤복의 주막풍경을 비교해본다.

먼저 김홍도의 주막으로 찾아가 보자. 한눈으로 봐서 싸리담으로 둘러쳐진 초가지붕의 소박한 술집이다. 그림 한눈에 낮은 식단앞간이의자에 앉은 2명의 손님과 주모, 아이가 보인다. 자세히 보니 시장터 주막이다. 얼큰한 국밥 한그릇을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먹어 치우는 손님이 있다. 옆에는 이미 다먹고 밥값을 내려는 손님인데 곰방대를 입에 문 남정네가 주모앞에 배짱을 내놓고 주머니를 열고 있는게 약간 짓궂어 보인다. 마침 술구기로 탁배기 한잔 퍼내는 주모의 손길은 바쁜데 뒤에서 치맛자락을 잡고 아이는 보채고 있다. 패랭이(蔽陽子, 平涼子)를 쓰고 커다란 밥사발을 비우고 있는 자는 부보상(등짐장수)이다. 이들은 장터를 떠돌아 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이다. 그야말로 소박한 서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단원 이전에는 이렇게 밥집의 주모나 배짱을 드러낸 하층민을 아무도 그리지 않았다. 김홍도나 신윤복의 눈에는 그림의 대상이 신분이나 지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김홍도는 서민들의 풋풋한 생활을 담아내었고, 신윤복은 양반과 중인들이 벌이는 기묘한 일들을 그려내었다. 이들은 모두 열린 시대정신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다음은 사치스러운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 1758~?)의 술집풍경을 들여다 보자. 구도상 화면의 아래 부분은 부유한 기와집에다가 진달래가 화사하게 핀 담벼락이 묘사되어 있고 옆에는 초가도 보인다. 혜원의 그림에는 주로 진달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진달래가 그의 심성과 통하는지 모르겠다. 화면의 윗부분은 주막안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각도로 그리면서 좌우로 공간 분할을 확연히 해놓았다. 오른쪽 대청방향은 술손님 5명이 얼굴에 적당히 단청이 된채로 머무적 그리며 서있고, 왼쪽 부엌공간은 머

리에 가체(다래머리)를 하고서 곱게 단장한채 주모가 시중들고 있다. 마당 한편에는 맨상투를 튼 중노미가 서있다. 이 녀석은 손님이 타고온 나귀를 마방(馬房)으로 몰아넣어 여물을 먹이는 등 잡일을 한다.

그림 속에서는 이제 막 술자리가 과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이다. 도포 소매자락에 손을 넣고 동료들 재촉하는 양반은 의관이 어수선한게 거나하게 취한 것 같다. 고급 남색치마를 입은 주모와 바로 앞에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의 강렬한 청홍(靑紅)의 색대비가 압권이다. 노란 초립에 붉은 철릭(天翼)을 입은 자는 궁궐의 잡직에 종사하는 별감(別監)으로 액정서(掖庭署)의 예속이었다. 이들은 한양시내 유흥가나 사람모이는 곳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존재다. 악대나 광대들을 불러놓고 놀고 마시는 주역인데, 오늘날 칠공자니 뭐니 하는 졸부자제들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것과 다름없겠다. 19세기 <한양가(漢陽歌)>에 나오는 별감에 관한 묘사를 보면 잘 나타난다.

“별감(別監)의 거동 보소. 난번(비번:非番) 별감 백여 명이 맵시도 있거니와 치장도 놀라울사. 편월(片月) 상토 밀화(蜜花) 동곳(상투가 풀어지지 않게 꽃는 물건) 대자(大字) 동곳 섞어 꽃고, 곱게 튼 평양망건(平壤網巾) 외점박이 대모관자(玳瑁貫子) 상의원(尙衣院) 자지팔사(紫地八絲) 초립 밑에 팔괘(八卦) 놓고...”

주모의 가체와 남색치마는 상당한 고가 브랜드였다. 가체의 시세가 중인층 가옥의 무려 5채 값이었다고 하니 가히 짐작할 만하다. 한양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이런 고가 상품을 살 수 있었던 건 양반관료부터 한량이나 중인들처럼 호주머니 두둑한 돈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때 오른쪽에서 두사람이 어서 나가자고 재촉하고 있다. 아마 포교가 단속나오는 모양이다. 하나는 갓을 쓰고 남색 철릭을 입고서 율부채로 손짓하는 양반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에 갈대기 전건을 쓰고 까치등거리를 입은 의금부 나장(羅將)이다. 나장은 궁궐에서 왕명으로 죄인을 심문하는 자로 밖에 나오면 꽤나 힘을 쓰는 존재였다. 그런데 별감



신윤복의 주막풍경

좌우에 갓을 쓴 두 사람은 당연히 벼슬없는 양반들로서, 18~19세기 당시 이같은 별감·나장 등 중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일행이 나가자고 종용해도 별감은 술구기로 튼 주모의 술을 받으려고 젓가락을 막 놓고 있다. 분위기가 약간 묘하니까 이 순간에 총각 중노미의 표정이 약간 심드렁해 보인다. 술집 내부의 인테리어도 제법 꾸며놓은게 여느 주막과는 사뭇 다르다. 우선 부뚜막에 여러 안주거리와 술잔, 술동이 등이 놓여있다. 주모 뒤로는 오층으로 된 찬탁에 그릇이 진열되어 있고, 대청마루 안쪽에는 쌀뒤주와 백자그릇들이 있으며, 옆에는 아주 깔끔한 삼층장이 보인다. 그림 속의 남색, 홍색, 분홍색 등의 배치가 술집 전체를 화사한 분위기로 연출해 놓은게 혜원의 뛰어난 색채미감이 잘 드러나 있다. 제화시는 이렇다.

술잔 들어 밝은 달 맞이하고(舉盃邀皓月)

술단지 끌어안고 맑은 바람 대한다(抱甕待淸風)

이렇게 청풍명월에 술을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두 그림의 술집풍경이 판이하다. 단원의 주막이 포장마차라면 혜원의 주막은 고급 룸살롱이다.

요즘 막걸리가 많이 팔리고 있다. 가뜰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팍팍한 생활을 달래려고 서민들이 막걸리를 찾는 것이다. 반면에 고가의 양주도 잘 팔린다고 한다. 고위층이나 졸부들은 고급 유흥주점에서 향락파티를 즐기기 때문이다. 단원과 혜원이 지금의 세태를 보면 어떻게 그렸을까.



조선통신사역사관 조감도

한·일 우호의 상징 조선통신사를 배운다

조선통신사 역사관

조선시대 공식 사절단으로 일본에 ‘원조한류’ 바람을 일으켰던 조선통신사. 한·일 양국간의 평화와 문화교류의 첨병역할을 했던 조선통신사의 의의를 오늘에 되살리는 조선통신사축제가 어느덧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1811년 마지막 조선통신사 파견 후 2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조선통신사 복원 노력이 시작된지 10년이 되는 해. 이 특별한 해를 기념해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지난 4월 21일 문을 열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이 개국 직후 당시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주던 왜구를 막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정사, 부사, 종사관 등 세 사신과 역관, 제술관, 의원 등 총 400~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으로,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서 출발해 일본의 에도(현재의 도쿄)까지 왕래하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다. 조선통신사는 1607년에서 1811년까지 200여년 간 총 12회에 걸쳐 왕래가 이루어졌는데, 통신사를 통한 교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선과 일본의 평화적 외교관계를 상징한다.

자성대공원 내 문을 연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부지 859㎡, 연면적 578㎡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상설전시관과 영상홍보실, 옥외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통신사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 안전을 기원하는 해신제를 올렸던 영가대 옆에 자리하고 있어 그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영가대는 1617년 조선 통신사가 일본으로 출항하기에 즈음하여 이곳에서 해신제를 거행한 이래로 역대 통신사의 출항지가 되었던 곳이다.

역사관 1층에는 조선통신사의 정의와 역할, 삼사 임명식 등을 패널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사, 부사, 종사관, 군관 등 당시 통신사 사절단의 모습을 홀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0여석 규모의 영상홍보관에서는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배경과 이동과정, 의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3D 입체영상물이 상영되고 있어 특히 이 곳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2층 전시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사절단이 되어 조선통신사 행로를 따라 갈 볼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당시 통신사 선단과 일본의 호송단을 재현한 축소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관 중앙에는 쓰시마에서 교토, 에도로 이어지는 통신사의 행로를 보여주는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 험난했던 1년간의 여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전시관 한쪽 벽면에는 1636년(인조 14년) 통신사 일행이 에도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행렬도 ‘통신사 입강 호성도(通信使 入江戸城圖)’를 바탕으로 제작된 스크린이 걸려있다. 관람객이 다가서면 마치 병풍처럼 스크린이 켜지면서 그림의 행차도가 움직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층 전시관에서 연결된 야외공간에는 영가대 현장, 통신사의 길 등 포토존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한다.

“조선통신사축제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조선통신사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공간 부족으로 복제유물을 전시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곳을 다녀간 많은 분들이 평화와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산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팀 허장수 팀장은 조선통신사역사관이 어렵게 느껴지는 역사 소재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통신사 역사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조선통신사 국제 문화교류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외에도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고찰하는 다양한 세미나,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특히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다양한 문화컨텐츠 상품, 알찬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역사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쓰시마 역사민속자료관과 시모노세키 시립박물관과 연계해 연구조사사업도 꾸준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평화와 우호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 문 의 | 조선통신사 역사관(631-0858, www.tongsinsa.com)



“노래따라 마음도 흘러가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

매주 목요일 오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는 맑고 청아한 노래가 울려 퍼진다.

물이 맑으면 달은 나타나 보이지만/물이 흐르면 달은 숨어버리고 만다/말은 물 따라 달이 오는 것이 아니고/흐린 물 따라 달이 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마음 그대로’ 를 노래하는 주인공들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창단된 한마음선원 합창단 단원들. 1990년부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들로 창단된 한마음 선원합창단은 1991년 9월 창단발표회를 가진 이래 부산을 비롯한 전국규모의 불교행사에서 활동해 온 인기 합창단이다. 현재 합창단원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 어머니 45명. 가족들 뒷바라지에 바빴던 어머니들이지만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있다.

한마음선원을 찾는 불자들로 구성된 만큼 그동안 단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자랑. 합창단 자체 행사는 물론 불교단체가 주최하는 음악회 등에 자주 초청받을 정도로 전통과 실력을 자랑하는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스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만든 선법가를 주로 부르고 있다.

“일반적인 찬불가가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노래라면 선법가는 마음도리의 법을 설하신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선법가의 가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수행의 지침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극하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됩니다.”

선법가를 부르며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가는 합창단을 지켜보면서 혜도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도 많은 것을 배운다.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김연주 지휘자는 45명 합창단 단원들의 열정에 매번 놀란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의 반주자로 합창단과 인연을 맺은 김연주 지휘자는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마음의 오묘한 도리를 노랫말로 엮은 선법가를 매주 불러온 만큼 노래가사처럼 서로 실천하며 인생을 즐기는 가족 같은 합창단 분위기가 좋아 목요일이 언제나 기다려진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김연주 지휘자와 단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정적인 하모니로 2006년 제 1회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LG휘센 합창경연대회 장려상, 2009년 불교페스티벌 합창제 우수상을 수상하며 선구적인 불교합창단의 자긍심을 이어왔다.

“당시는 불교합창단이 없었던 시절이라 우리합창단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사랑이든 미움이든 모두 마음먹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듯 선법가를 부르면서 노래가사처럼 살았죠.”

한마음선원 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강갑순(59)는 38세에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합창단의 산증인이다. 지난 20여 년간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자신은 물론 노래를 듣는 청중이 하나 되는 순간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는 그는 합창단 활동을 60세까지로 정하고 있어 내년을 끝으로 합창단 활동을 마감한다. 오래 활동한 만큼 아쉬움도 크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합창의 즐거움을 안겨 줄 수 있어 서운함이 덜하다. 그는 삶의 지혜를 담은 선법가를 부르며 보낸 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 선법가의 향기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합창단원들과 봉사할 계획이다. 올해로 졸업(?)하는 김정애(60) 단원 역시 몸은 합창단을 떠나지만 즐거운 합창단 활동을 잊을 수 없다. 어머니의 합창단활동은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선법가로 마음으로 다스리니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어머니의 합창단 활동을 지켜보며 성악가의 꿈을 이룬 자녀도 있다.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오는 11월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후원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일체합창제’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 한마음선원 지원의 모든 한마음합창단이 참가하는 ‘일체합창제’는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계층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하고 상생하는 연주회로 기대가 크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끝난 요즘은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일체합창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갑순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은 또 다른 바람이 있다. 한마음선원이 10년간 진행하고 있는 불사가 올해 잘 마무리된 후 새롭게 단장된 한마음선원에서 합창단공연을 가지고 싶다. 더욱 다양한 연주 무대와 깊은 음악적 발전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한 합창단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한마음선원 합창단. 노래 따라 마음을 다듬어가는 45명 단원들의 하모니가 탐스런 연꽃처럼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

● 문 의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010-2844-8057, 010-6223-4375)



부산 최초의 불교합창단인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연습하고 있다.



선법가를 노래하는 한마음선원합창단은 다양한 불교행사 무대에 서왔다. (사진은 2009년 불교합창페스티벌 출연 당시 모습)



청중에게 한발 다가선 을숙도 명품콘서트

김창욱_음악평론가



을숙도(乙淑島)는 물 맑고 새가 많은 섬이다. 또한 고니와 갈대가 어우러진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곳에는 보기 드물게도 문화공간이 섬 위에 등실 떠 있다. 을숙도문화회관이 바로 그것이다.

2002년에 지어진 을숙도문화회관은, 그러나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전문인력 부족 및 제한된 예산, 낮은 브랜드 인지도, 음향·조명·무대 등의 불비한 시설, 그리고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의 한계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던 것이 을숙도문화회관이 불과 수년 전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자체 기획함으로써 '동네 피아노학원의 발표회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사라 장, 백건우, 정명화와 김선욱, 필라델피아첼버오케스트라, 조지 윈스턴과 같은 내로라하는 국내·외 연주가 및 연주단체가 잇따라 무대에 올랐고, 토요일직접프에 이어 해피콘서트, 명품콘서트, 연극열전 등의 프로그램이 잇따라 기획했기 때문이다.

특히 명품콘서트는 지역민에게 클래식 명곡의 세계로 초청한다는 점에서 사뭇 눈길을 끈다. 매월(3-6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공연되는 명품콘서트는 상반기 4회 가운데 이미 2회가 갈무리된 상태다.

지난달 명품콘서트(5/12 을숙도문화회관 대강당)에는 임준오가 지휘하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세일의 교향시 '오케스트라를 위한 창조'를 비롯, 모차르트의 '바이올린·비올라와 관현악을 위한 합주협주곡(KV. 364)', 그리고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 9번(신세계로부터)'이 차례로 선보였다.

창조-타락-회복의 개념을 차용한 '창조'는 현악파트를 중심으로 하되, 금관악기와 타악기도 즐겨 활용되었다. 그것은 줄곧 음악적 긴장도를 유지시켰고, 각 악기의 독자적인 선율진행과 관·현·타악의 투티(tutti)는 음악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구현해 냈다.

또한 백재진과 김은진이 협연한 '합주협주곡'은 바이올린과 비올라, 듀오와 오케스트라의 일체감이 유독 두드러져 보였다. 특히 듀오의 맑은 음색과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이를 지탱해 주는 오케스트라의 안정감이 돋보였다. 다만 드보르작의 '교향곡'에서는 메마른 음향, 부자연스런 악절의 이음새, 밀도가 떨어지는 다이내믹 등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한편 명품콘서트는 지역 작곡가의 작품을 반드시 1편씩 무대에 올림으로써 창작 음악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점, 비르투오소적 연주자를 협연자로 내세움으로써 지역 연주문화를 제고한다는 점, 여느 음악회와는 달리 시작시간을 8시로 정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다소간의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 2천원의 저렴한 입장료로 을숙도문화회관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카피, 예컨대 '최정상의 연주자', '완벽한 하모니 국내 최정상의 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역사', '세기의 앙상블' 따위의 난만(爛漫)한 수식어는 시종 필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인상파적이지만 인상파가 아닌 원초적 자연같은 고현윤 개인전

(2011.5.10~19 갤러리 화인)

박미경_동서대학교 외래교수



고현윤 작

20세기에는 많은 미술 사조들이 형성되어 가속화된 미술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21세기 현대 미술은 관객 참여와 사회 참여적 예술인 관계예술(Relational Art)과 예술과 비예술, 예술과 과학이 공존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 사조의 한 유형을 통합적 상상력과 감수성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움의 예술미를 찾으려는 작가들이 있다.

1960년대 후반 팝아트의 영향으로 일어난 미국적인 리얼리즘인 극 사실은 요즘 화랑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인상주의를 재해석한 작품들도 보여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연과의 공존 상태가 잊혀져가고 인공물로 이루어진 물건들 속에서 우리의 감성 또한 메말라짐을 느낀다. 모든 창의성은 모방과 습득 속에 통합되어진 새로운 가치 창조이다. 패션의 복고풍은 옛 그대로의 모방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부여한 창조된 복고이다. 예술 또한 같은 맥락으로 여러 사조의 특징을 통합 혹은 분리하여 전혀 다른 기법이나 사조가 아닌 좀 더 발전된 기법이나 사

조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갤러리 화인에서 열린 고현윤의 개인전에서 만난 그의 작품들은 전시 공간을 가득 메운 화려한 색채들로 인해 인상주의 그림을 보는 듯 밝고 화사했다.

나무들로 가득 그려진 숲은 나무들 보다는 배경, 즉 바탕에 더 심혈을 기울인 듯 단풍처럼 울긋불긋하다. 인상주의처럼 빛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관적인 색채조합에 관심을 더 둔 듯 했다. 일필휘지한 붓질로 형태와 색을 칠해 역동성이 느껴졌다. 거리에서 구경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거리의 악사)과 창문이 많은 건물들(창문 풍경)에서는 레드와 오렌지, 노랑 계열들이 짙은 블루와 함께 색의 조화를 이룬다. 블루는 여러 색들을 잡아 주는 텐션(tension) 역할을 한다. 단색으로 채색하지 않은 각각의 색의 조합으로 전체적인 균형의 미가 느껴지는(감뽀 광장에서) 작가의 구성력은 연륜을 짐작하게 한다. 오일 페인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색의 투명도는 한번의 채색만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가을 꽃'은 크레용으로 채색하여 자유로운 드로잉을 더 부각시킨다. 색채의 마술사인 마티스처럼 색을 자유롭게 쓰면서 흠어지지 않는 규칙이 존재하는 까닭에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한번의 붓질까지도 생명력이 느껴진다.

작가는 의외로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이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화려하지만 슬픔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작가의 내재된 감수성의 표현인가? 고현윤의 작품들은 인상파적이지만 인상파가 아닌 현대의 감성을 아우르는 원초적인 자연과 같다.

색을 자유롭게 쓰는 것은 쉬울 수도 있으나 그 색들을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색들의 어울림과 경쾌한 붓 터치는 감성적 호소력으로 예술적 표현을 극대화하여 소통을 꾀하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춤으로 보여주는 동화 속 이야기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6월 1일-2일, 7일-8일 평일 오전 11:00
»» 소극장



마당춤판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 우리춤과 비누방울 불기, 동물 캐릭터 탈 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한다.

- 예술감독/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관람료 균일 1,000원(관람연령 제한 없음, 36개월 이상 유료, 단체는 사전 예약)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멜로매니아 제 17회 정기연주회
6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아마추어 남성 성악가 모임 멜로매니아의 제 17회 정기연주회.

뒤늦게 성악을 공부하며 새롭게 음악인생을 시작한 멜로매니아 단원들은 전문성악가 못지않은 실력과 음악 사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 임금수/망부석
- 김동진/수선화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마르티니/사랑의 기쁨 등 수곡
·출연/원요한, 민정식, 석동호, 한성권, 최성협, 윤치연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원요한(011-590-111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김목경 BAND
6월 3일 금요일 오후 8:00 »» 소극장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두 번째 주인공 김목경 BAND 공연.

국내 블루스 팬들에게 '에릭 클립트'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블루스 가수 김목경은 한국 락의 신개념을 도입한 포크계의 원로이다. 1990년 6월 영국에서 녹음한 1집을 들고 귀국한 이래 김목경은 그동안 7장의 음반과 데뷔 20주년 기념 라이브 음반을 발표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목경은 2003년 동양인 최초로 미국 멤피스의 '빌 스트리트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외국 뮤지션들로부터 '영(Young) 에릭 클립트'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뮤지컬 '광화문연가' 부산공연
6월 4일-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 대극장

'옛사랑' '사랑이 지나가면' '광화문연가' 등을 탄생시킨 작곡가故 이영훈의 주옥같은 히트곡들로 탄생된



뮤지컬 '광화문연가' 부산 공연.
시대를 초월하는 이영훈의 명곡, 최강의 캐스팅, 세 남녀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

년대 유명작곡가 한상훈과 운동권 후배 현우가 광화문 한 구석 라이브카페에서 노래 부르던 최여주를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세 남녀의 가슴앓이가 이영훈의 히트곡들과 함께 전개된다.

- 연출/이지나 · 편곡/이경섭
- 음악감독/김문정
- 출연/윤도현, 송창의, 리사, 임병근, 박정환, 허규, 김태한 외
- ::관람료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S석 77,000원 · A석 66,000원
B석 5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 ::문의 에스제이이엔티(1599-2005)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에서 세상과 통하다
6월 6일-7일 월-화요일 오후 7:00 »» 중극장



미국, 영국, 호주, 중국, 핀란드 등 13개국 150개국 200여 작품을 다양한 색깔들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부산국제무용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춤, 바다에서 세상과 통하다'라는 타이틀로 부산의 바다와 어우러지는 해운대 특설무대공연에 이어 6일과 7일 우리나라 무용 예술계의 주역이 될 열정 넘치는 안무가들을 위한 창작의 장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선정 작품들과 미국, 독일, 이스라엘 무용단의 축하공연, 한국 트러스트 무용단, 장애인무용단 '빛소리친구들'의 폐막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일정

■6일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및 축하공연

손영일 '미친 음악의 거리'

이태상 '앉아있는 소'

유선후 '옛 낮'

편봉화 '터'

미국 River North Dance Chicago

독일 Fernando-Carlos Dance Company

이스라엘 Dorit Weintal & Ellah Nagli

■7일 폐막축하공연

한국 트러스트 무용단, 빛소리친구들 등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부산국제무용제(890-2507, 890-2818)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6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 소극장

신라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중인 열정넘치는 춤꾼들이 졸업을 앞두고 선보이는 졸업작품 발표회.

한국무용, 현대무용, 재즈, 댄스스포츠, 벨리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페이스 쇼퍼(출연/김수경)

아프니까 청춘이다(출연/박경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출연/권예원)

리듬 속 세상의 음표로 살아간다(출연/주미경)

기회(출연/류솔지)

세상 지붕위의 슬픔(출연/박성아) 외

::관람료 무료

::문의 박경호(010-5555-3117)

**창작합창21 제 7회 정기작품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 II**

6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 중극장



성가합창무대, 부산을 노래하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창작 합창음악을 발표해온 창작합창21이 들려주는 제 7회 정기작품 발표회.

황장수가 지휘하는 코람 데오합창단이 박미선, 김

성덕, 이기녕, 정승원, 진소영 등 창작합창21 회원들의 창작합창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박미선/푸르른 시냇가의

김성덕/울어버린 예루살렘아

이기녕/시 23편

정승원/불의 침상

이옥영/희망의 노래

최삼화/우리들이 싸울 것은 등 수곡

· 합창/코람데오합창단(지휘/황장수, 반주/이지혜, 송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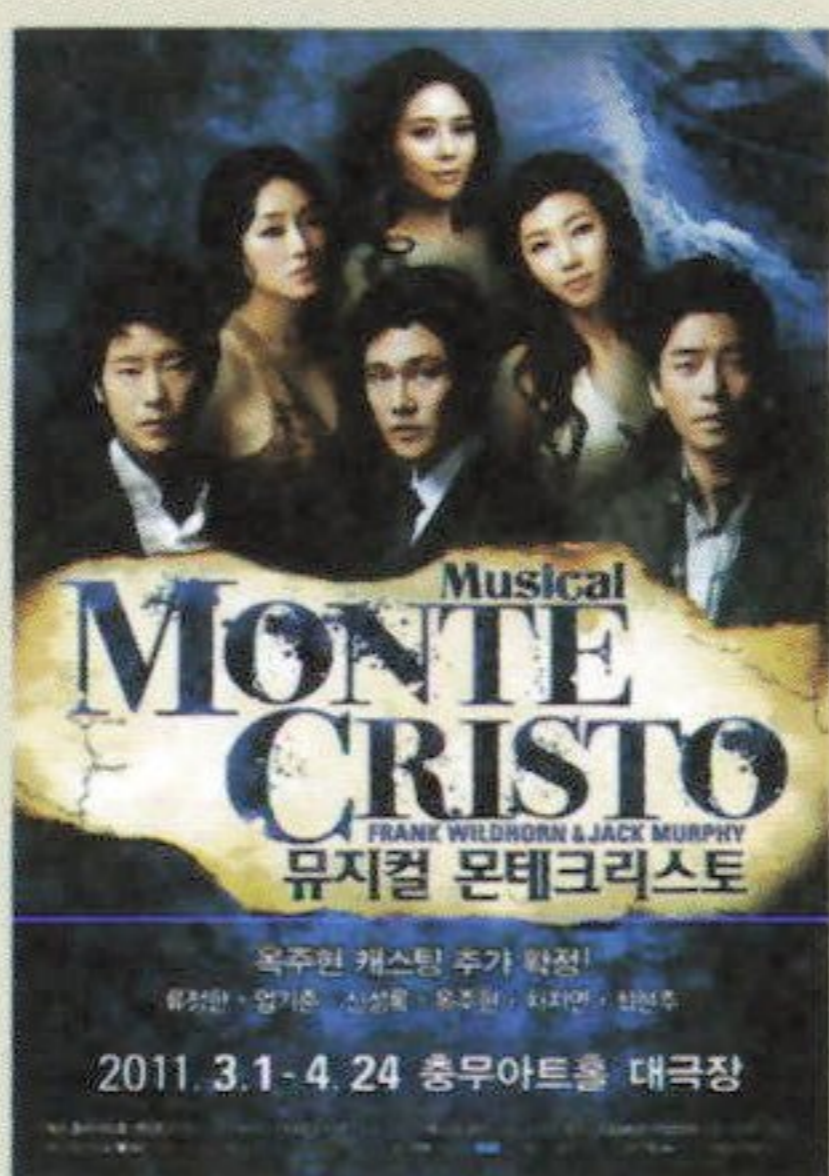
· 소프라노/이민희 · 피아노/김성희

::관람료 초대

::문의 조혜선(890-1325, 010-8501-5117)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부산공연

6월 10일-12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 대극장



'삼총사'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뒤마가 1845년에 발표해 출판 당시 대중들을 사로잡은 탄탄하고 스릴감 넘치는 스토리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지킬앤하이드' 등

의 작곡가인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악을 입혀 탄생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부산공연.

2009년 3월 스위스(Theater St. Gallen)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된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는 2010년 4월 한국 초연에서 애절한 사랑, 음모와 배신, 처절한

복수, 감동의 용서 등 삶의 희로애락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객석 점유율 98%라는 기록을 세웠다.

· 책임프로듀스/엄홍현

· 프로듀스/김지원 · 연출/로버트 요한슨

· 협력 연출 & 한국어 가사/박인선

· 음악감독/원미슬

출연

류정한, 엄기준, 신성록, 옥주현, 최현주, 최민철, 강태을, 김성기, 김장섭, 조순창, 장대웅, 김성민, 김영주 외

::관람료 VIP석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B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인코리안 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 13회 정기연주회**

6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 중극장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부속단체인 순수 아마추어오케스트라 인코리안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제 13회 정기연주회.

인코리안 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2001년 '부산아마추어스트링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이래 2003년 9월에 창단연주회를 기점으로 연 2회의 정기연주회를 꾸준히 가져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심포니 제 35번 '하프너'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 2번 1악장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 2번 3악장

박범훈/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김동조/농촌의 아침 등 수곡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지휘/김용문(동아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 협연/이은솔(피아노, 진해여고 3년), 최시정(플루트, 동아대학교 기악과, 프라임 플루트콰이어 단원), 사물놀이(피리 손한별 외 5명)

::관람료 초대

::문 의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010-4842-6688)

UKO(United Korean Orchestra) 정기연주회 제 22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6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이기균



서혜경

부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UKO(United Korean Orchestra)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하는 '사랑나눔 음악회'.

이번 무대는 경성대학교 이기균 교수의 지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의 협연으로 감미로운 사랑의 선율을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서혜경은 유방암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무대에 복귀, 2008년 1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컴백 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과 3번을 동시에 연주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20a 중 '알츠'
차이코프스키/피아노협주곡 제1번 내림나단조 작품 23
림스카-코르사코프/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작품 35

- 지휘/이기균(경성대학교 교수)
- 협연/서혜경(피아니스트)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정희자(011-589-3111)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6월 13일-19일 월-일요일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4:00 >>> 소극장



이오네스코의 자전적 희곡 'Ce formidable bordel!'을 재구성한 부산시립극단 제 41회 정기공연 'noWhere'.

2009년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극단이 초연해 화제를 모은 'noWhere(지금...여기)'는 어렵고 난해하다는 부조리극의 고정관념을 깬 세련된 부조리극으로 호평받았다.

6월 정년퇴임하는 배우 박찬영이 운 좋게 로또에 당첨된 주인공 박찬영으로 열연, 급작스러운 물질적 풍요 후에 찾아오는 주변의 변화를 겪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재미있게 던진다.

- 원작/E. 이오네스코 'Ce Formidable Bordel'
- 번역/정보임 · 재구성, 연출/김지용

출연

박찬영, 유성주, 이혁우, 이돈희, 정형심, 이현주, 김은희, 염지선, 황창기, 김은옥, 김두리, 김주연 외

::관람료 균일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부산시립합창단 제 138회 정기연주회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진혼곡 (Ein Deutsches Requiem)

6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 대극장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진혼곡'.

존경하는 스승 슈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레퀴엠 작곡



김강규

남순천

김종화

을 시작한 브람스는 1865년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1868년 '독일레퀴엠'을 완성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가톨릭교회에서 미사 때 부르기 위해 작곡된 기존 라틴어 레퀴엠과 달리 음악회용으로 작곡된 '독일레퀴엠'은 죽은이를 떠나보내고 살아남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음악이다.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솔로/소프라노 남순천, 바리톤 김종화
- 반주/이승윤, 이경미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 MBC 창사 52주년 기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70회 정기연주회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I Symphony IV

6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지난해 탄생 150주년에 이어 올해 서거 10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2009년 6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 이후 말러 교향곡 1번, 2번, 5번을 연주해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대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생애와 그의 작품을 기리기 위해 말러 교향곡 4번에 도전한다. 교향곡 4번은 밝고 간결하며 아름다운 곡으로 4악장에 소프라노 독창을 배치, 천국 생활의 즐거움을 묘사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오은경이 경쾌하고 밝은 선율의 평온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 41번 다장조 '주피터' 작품 551
말러/교향곡 제 4번 사장조



리 신차오



오은경

· 지휘/리 신차오
 · 협연/오은경(소프라노, 세종대학교 교수)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 11회 아르스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2001년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권남희,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로 창단된 아르스 현악 4중주단은 그동안 부산 MBC 목요음악회, 부산음악협회 실내악 축제 등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라벨/현악 4중주
 쇼스타코비치/피아노 5중주
 · 피아노/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
 ::관람료 초대
 ::문의 정매너지먼트(011-589-3111)

닥터스 심포닉 밴드(Doctors Symphonic Band) 제 10회 정기연주회

6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 대극장

부산, 경남지역의 의사, 치과의사 밴드로 1999년 창단된 닥터스 심포닉 밴드는 그동안 치료를 통해 아픈 사



람을 돌보고 보듬으며, 음악을 통해 사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웨버/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베르디/축배의 노래
 김태영(편곡)/한국민요 모음곡
 Masato Myokoin(편곡)/라틴 팝 스페셜 등 수곡
 · 지휘/정흥기
 · 협연/소프라노 이민희, 테너 이홍길, 이승우, 우원석
 ::관람료 초대
 ::문의 정흥기(611-7855, 010-2561-6047)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 제 2회 정기연주회

6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 중극장



전영수 박현정 박송희

전문 지휘자와 파트별 강사들의 지도 아래 연습하고 있는 United Korean Youth Orchestra는 매년 2~3회의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연주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을 난치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열매'에 전달한다.

::프로그램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바단조 작품 84
 로자로/마림바 협주곡 제 2번 제 2악장
 쇼스타코비치/재즈 오케스트라 모음곡 제 2번 중 왈츠
 비틀즈/Hey Jude, I Want to Hold Your Hand 등
 · 지휘/전영수(음악감독,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마림바/박송희(부산예고 3학년)
 · 소프라노/박현정(경성대, 부산교대, 울산대 등 출강)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재복(019-540-1538)

부산하모니합창단 제 8회 정기연주회 'Jazz Missa'

6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 대극장



예술적이고 재미있는 합창음악을 연주하며 민간합창의 새로운 장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하모니합창단의 제 8회 정기연주회.

미국 예일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Temple 여성합창단, Ars Nova 합창단 등을 지휘하며 폭넓은 음악활동을 하다가 올해 귀국한 최정일의 객원지휘로 'A Little Jazz Mass' 테마곡을 중심으로 평화를 전하는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 지휘/최정일(객원지휘자)
 · 피아노/윤지영 · 드럼/김진훈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하모니합창단
 (610-1304, 010-2593-1651)

조갑용 개인발표회 조갑용의 '길'

6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 중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11-가호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전수조교, 수원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 경기도립국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갑용의 개인발표회 '길'.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통령상(1985), 경기국악제 기악부 대상(2002)을 수상한 조갑용은 한국의 음악 사물놀이

Program

부산문화회관 공 / 연 / 안 / 내



(1991, 1993), 조갑용 성주굿(1999) 음반에 이어 2011년 조갑용의 '길'을 발매했다.

::프로그램

성주굿, 태평소 사물놀이, 산조병주, 설장구, 호남우도, 가야금 중주-돈돌나

리, 풍물판굿

- 소리, 상쇠, 태평소, 아쟁/조갑용
- 지휘/이동훈 · 춤/김혜경
- 특별출연/호산 가야금 연주단
- 사물반주/이부산, 강호규, 이상관
- 가야금/정경옥 · 해금/김정림
- 연주/강영진, 엄익준, 정주아, 김현주, 김지현, 하지희, 오상훈, 전현진, 정수경, 최윤희, 최희정 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주현(011-581-3000)

하늘이 주신 선물 Dear My Family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콰르텟 콘서트
6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 소극장



김정희



김정현

신라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정희와 중앙대학교와 동대학원, 미국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대학원, 인디애나 뮤직컨서바토리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Chicago City Symphony Orchestra 단원, 인디애나 뮤직컨서바토리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정현의 제자들이 함께 하는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 콰르텟 콘서트.

::프로그램

노영심/ 학교가는 길(2 Pianos 8 hands)

모차르트/작은별 연주곡
동요/예쁜아기곰, 반딧불, 가을들판, 바람새, 나의방, 새싹꿈, 빗방울소리 등 수곡
· 연주/김정희, 김정현, 송지환, 이지연, 홍부임, 곡민정, 김동연, 황보경, 최정인, 강령경, 김지수 외

::관람료 미정

::문의 김정희(010-4552-4106)

YMCA 부산오페라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현대음악의 진수와 비틀즈,
뮤지컬 'Grease'의 앙상블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문화소외계층 및 일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능교육,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온 오페라 전문 합창단 부산오페라합창단의 제 3회 정기연주회.

부산오페라합창단은 즐겁고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부산YMCA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으로 2009년 3월 창단되었다.

::프로그램

바르톡/Four Slovak Folk Songs
합창으로 들어보는 '비틀즈' /Yesterday, Let It Be, Yellow Submarine, Girl, Michelle, Hey Jude
갈라 뮤지컬 'Gr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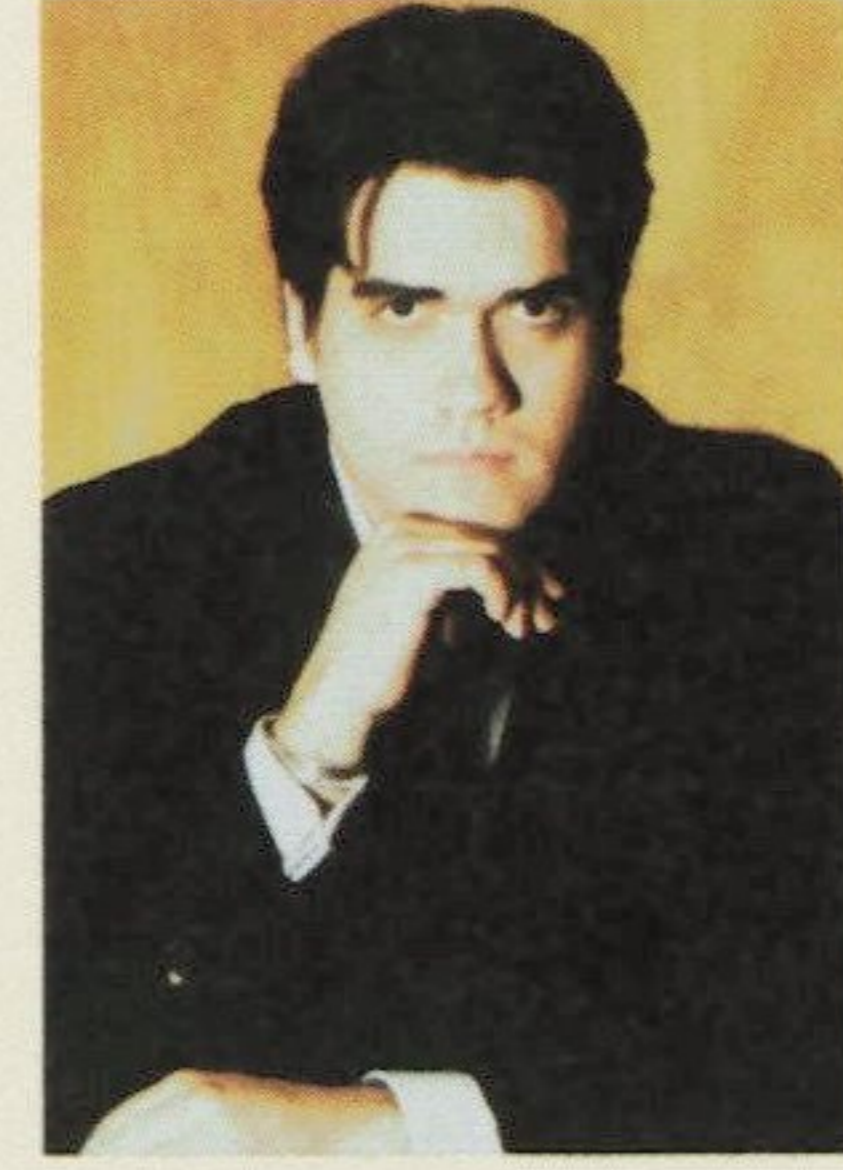
· 지휘/김명규 · 반주/김덕희, 하영화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YMCA 부산오페라합창단(802-6209)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및 순회연주회
'라틴 클래식'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 대극장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출신의 젊은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Manuel Lopez)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라틴 클래식'.

지휘자 마누엘 로페스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

스트라와 베네수엘라 테레사 카레노 유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하며 '라이징 스타, 빼어난 재능을 지닌 지휘자'로 각광 받아왔다.

::프로그램

이노센테 카레노/교향시 '마르가리테나'
알베르토 히나스테라/무곡 모음 '에스탄시아' 작품8a
호세 파블로 몬카요/우아판고
실베스트레 레부엘타스/센세마야
아르투로 마르케스/단순 제 2번
· 지휘/마누엘 로페스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길(道)-지수복 제자발표회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00 >>> 소극장



성금연, 박초월, 김소희, 박귀희 등 당대 최고의 명창을 사사하고 판소리, 가야금 병창의 맥을 이어온 지수복 선생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무대 '길'.

부산을 중심으로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로

소리꾼 지수복 선생은 17세 때 임춘앵 단체에 입단해 창극 활동을 시작, 햇님창극단, 새한여성국극단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프로그램

단가 중 '녹음방초'

적벽가 중 '화룡도', '새타령'

흥보가 중 '저 아전', '유색황금눈'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박타는 대목'
 심청가 중 '물에 빠지는 대목', '항성올라가는 대목'
 수궁가 중 '고고천변', '육자백이' 등
 출연

지수복, 천주미, 김영아, 이하나, 김재은, 박나현, 김현정, 김민선, 김계영, 이윤경, 김지애, 신현주, 류태경, 김애리

관람료 초대

문의 김계영(010-9700-7787)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10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7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 중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과 함께 하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화려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협연자들의 뛰어난 기량을 통해 관객들에게 바

다양한 악기의 협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 '피델리오' 서곡 작품 72

모차르트/호른 협주곡 라장조 작품 142 중 제 1악장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모차르트/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작품 314 중 제 1악장
 차이코프스키/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장조 작품

33 중 서주와 주제, 제 1, 2, 3, 7변주

모차르트/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작품 622 중 제 3악장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중 제 3악장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최보린(바이올린, 부산대 3학년), 최서연(바이올린, 부산대 3학년), 윤주연(첼로, 부산대 2학년), 박선영(오보에, 부산대 3학년), 이효주(클라리넷, 경성대 4학년), 이시원(호른, 경성대 4학년)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5: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춤소리에술단

6월 4일 토요일 오후 5:30



프로그램

::지전춤(춤/김정원)

망자의 넋을 불러 부정을 가시게 하고 한을 풀어주어 극락으로 천도하는 춤.

::살풀이춤(춤/윤정미, 남선주, 신윤경)

남도 무무(巫舞) 계통의 춤으로 살, 즉 액(厄)을 푸다는 뜻을 가진 민속무용.

::동래학춤(춤/이성훈)

동래지역 한량들이 즐겨추던 동래덧배기춤의 한 분파.

::진주교방굿거리춤(춤/김정원, 남선주, 신윤경)

고려문종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관기제도에 의해 교방청에서 전승된 춤.

::진도북춤(춤/윤정미, 김순선, 이남정)

농악의 한 부분으로 공연되어오던 진도북춤을 인간문화재 박병천 선생이 새롭게 안무한 작품.

::태평무(춤/김정원)

왕과 왕비, 태평성대를 축원하기 위해 추는 춤.

한누리우리춤연구회 '여인별곡'

6월 25일 토요일 오후 5:30

우리의 정신과 문화의 향기를 곳곳에 알리고 있는 한누리우리춤 연구회의 무대. 지극히 소극적이면서 강인



함이 담겨있는 그 절제된 여인들의 '사랑'을 한국 전통 춤사위로 풀어 본다.

프로그램

::산 조

옛 여인의 삶의 정서가 절제된 기교와 함께 단아하고도 화사하게 표현되는 춤.

::입춤

일명 '허튼 춤'이라고도 하는 입춤은 권번이나 교방에서 기녀들에 의해 추어지던 즉흥무.

::장고춤

장고를 매고 한과 슬픔을 장고 장단의 고저와 강약에 따라 흥겹고 경쾌한 춤사위에 날려 보내본다.

::못잊어

김대성 곡에 맞추어 입을 향한 그리움을 늦그릇의 맑은 소리에 몸짓을 담아 표현해 본다.

::살풀이 춤

인간 감정을 아름다운 춤사위로 표현하는 예술적 가치가 큰 한국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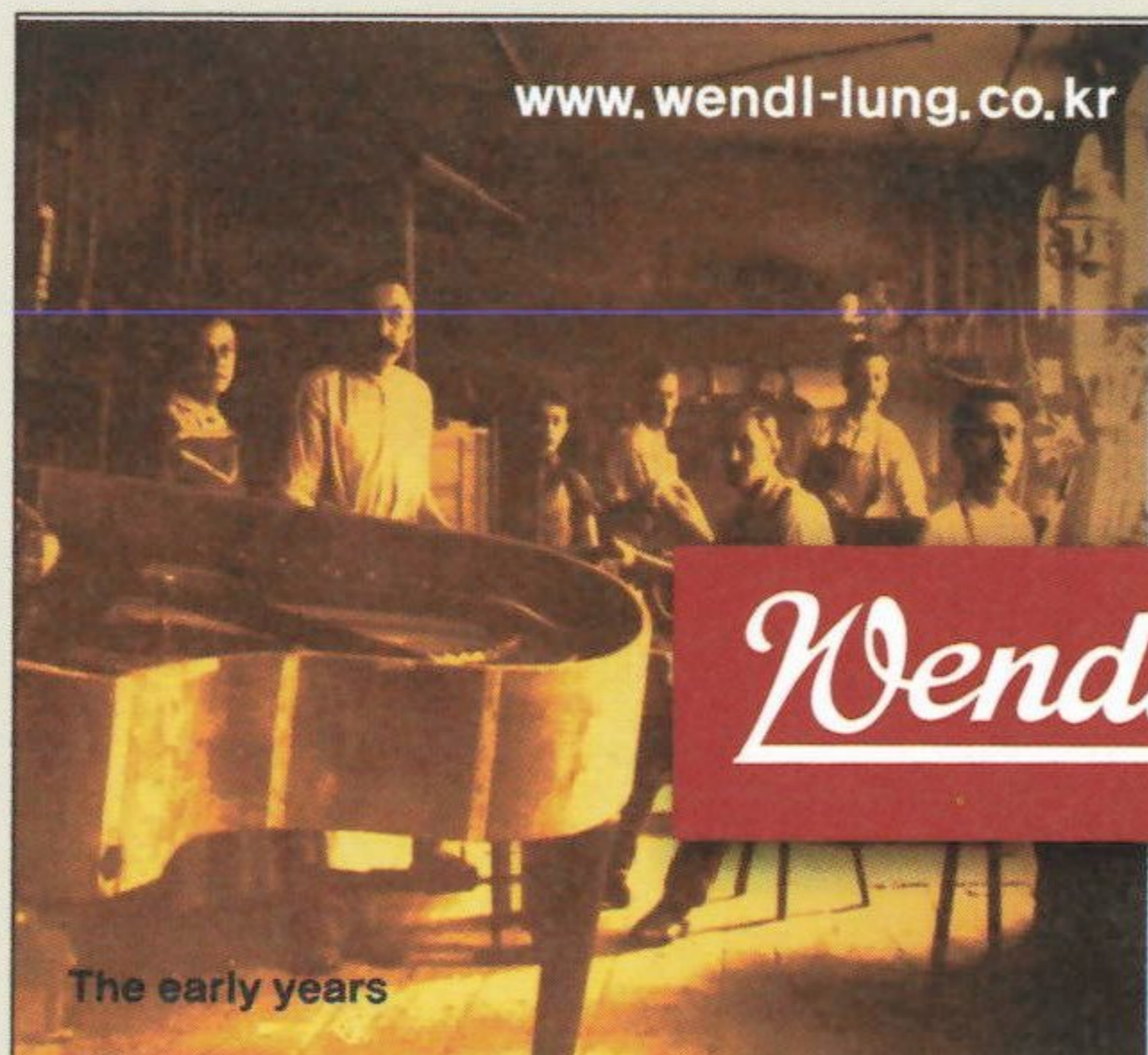
::지전춤

흰 창호지로 만든 지전을 사방으로 휘저으며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풀어주는 춤이다.

※사회/황준연

관람료 : 무료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MUSIC

남성중창단 칸타빌레가 부르는 '교과서 음악의 Solo와 Harmony'

6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남성양상블의 매력인 넉넉함과 편안함, 드라마틱한 강력함과 화려함을 자유로이 표현할 줄 아는 프로 남성 중창단 칸타빌레가 교과서에 수록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출연/김길수, 이홍득, 이은민, 안상철, 박기범, 이한성, 양승엽, 이상철, 김정대, 김인재, 양종모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안상철(010-2400-5271)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일 피아니스트 테니스 김슨 & 김남숙 2인 음악회
미국 아리조나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테니스 김슨과 고신대학교 김남숙 교수가 함께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8일 오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All of Brahms'



동아대학교와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사)부산시오페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오현정은 이번 무대에서 독일의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의 작품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진성

▶15일 강혜숙 귀국 피아노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함부르크 브람스 콘서바토리움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강혜숙 독주회.

▶22일 해운대 클라리넷 4중주 창단연주회

클라리네티스트 김태경, 김영희, 신혜숙, 김정민으로 결성된 해운대 클라리넷 4중주 창단무대.

▶29일 최낙주 & 황남용 조인트 리사이틀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수 무대에 서온 플루티스트 최낙주와 영남

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부페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산현대음악양상블 단원, 동성 'Dream' 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애창곡의 향연

6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정성희, 임혜정, 테너 김한길, 조주환, 바리톤 강재권 등 부산지역 성악가들과 CEO중창단(지도/박근기), 안나콰이어(지휘/강재권)가 출연, 국내외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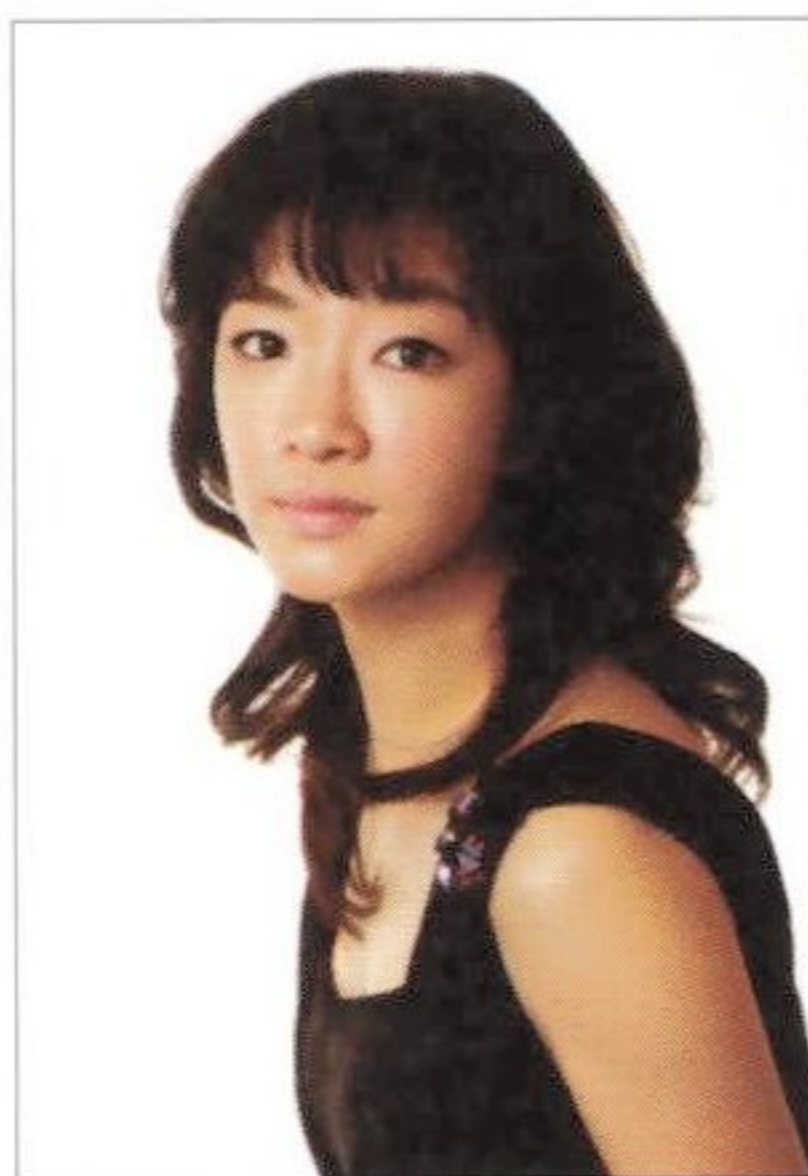
· 피아노/이현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5,000원

::문의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이경아 피아노독주회

6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칼스루에 국립음대, 프랑스 파리고등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 '풍부한 소리의 울림, 놀라운 색채의 다양성'을 지닌 피아니스트로 호평받아온

피아니스트 이경아 독주회.

::프로그램

드뷔시/전주곡집 중 '라빈장군' '물의 요정' '불꽃'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30번 마장조 작품 109 등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일상설무대 '꿀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2일 해설이 있는 가곡의 밤

유명 가곡의 작곡 배경과 가사의 의미를 상세한 해설로 알아보는 해설이 있는 가곡의 밤.

▶9일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종걸

뉴에이지적이면서도 팝적인 요소를 갖춘 핑거스타일 기타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타리스트 김종걸의 무대.

▶16일 Polar's acoustic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대표적인 프로젝트팀인 'Polacoustic' 과 'New Romantics of You' 의 어쿠스틱 콜라보레이션 무대.

▶23일 홍노경의 아름다운 재즈

대학가요제 수상으로 이름을 알린 홍노경과 그의 밴드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재즈공연.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금요해피콘서트-오카리니스트 박종근

6월 3일 금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이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마련하는 상설 무대.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과 소프라노 박미경, 손희정, 메조소프라노 정옥심, 테너 김진영, 오보이스트 류재환, 톱연주가 구자봉, 피아니스트 이미영이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11)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4일 프로그램

포구락, 판소리, 대금독주 '청성자진한잎', 살풀이, 실내악 25현금3중주, 경기민요, 밀양백중놀이, 사물놀이

▶11일, 25일 프로그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리



기 위해 만든 가무악희(歌舞樂戲) 총체극 '부산 아라 (Welcome to POT land)' 를 무대에 올린다.

▶18일 프로그램

산조춤, 남여창가곡 '태평가', 호적풍류, 동래한량춤, 설장구협주곡 '모리', 태평무, 동부민요, 판굿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월요음악회
매주 월요일 오후 8:00(둘째주 월요일 공연없음)
▶▶ 가톨릭센터 소극장

▶6일 부산반주음악연구소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피아니스트 박미은을 회장으로, 전문 반주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부산반주음악연구소 회원들의 무대. 슈베르트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를 부산반주음악연구소 회원들의 반주로 바리톤 조성빈, 테너 조윤환이 들려준다.

· 반주/서보연, 이미희, 김수희, 장유진, 하영화

▶20일 부산반주음악연구소

-푸치니 오페라 '사랑의 묘약'

부산반주음악연구소 회원들의 반주로 성악가 박영희, 김동희, 김옥, 김정현, 전병호, 조성빈이 들려주는 푸치니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갈라무대.

· 반주/이용란, 하은아, 조은지, 김윤경, 백홍향, 류승은

▶27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10 '팔리아치'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더불어 베리스모 오페라를 대표하는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갈라무대.

· 출연/장은영, 양승엽, 김상호, 장진규, 김정대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보빈(010-9880-8447)

제 3회 부산시 어머니합창단 페스티벌

6월 7일 화요일 오후 5:00 ▶▶ 시민회관 대극장

구 여성합창단의 기량향상과 부산 합창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해 부산지역 12개구 여성합창단이 참가하는 제 3회 부산시 어머니합창단 페스티벌.

· 특별출연/소리바다

::관람료 초대

::문의 김정옥(011-833-0621)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제 12회 정기연주회
금난새와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6월 7일 화요일 오후 7: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매년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끈 지휘자 금난새가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멋진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협주곡 제 2번

모차르트/바순협주곡 내림나장조 K.191 등

· 관현악 지휘/금난새 · 합창 지휘/이건륜

· 협연/김진행(피아노), 노동준(바순), 김민지(소프라노)

::관람료 초대

::문의 브니엘예술고등학교(582-7671)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6월 7일(화), 14일(화)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7일 이대하 거문고독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야금 주자 이대하 독주회.

프로그램

별곡, 배음조 허튼가락(이건용 곡), 금을 위한 에메이징 그레이스(이은경 곡),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 연주/이대하(거문고), 하지희(옥류금, 25현 가야금),

송강수(장구)

▶14일 이현미의 춤 '이야기 속으로'



신라대학교 무용과 및 동대학원,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이현미무용단 단장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현미의 춤.

이번 무대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나

연극, 뮤지컬 속 이야기를 춤으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을 선보인다.

· 출연/이현미, 김연희, 하경자, 김신희, 김선희

· 특별출연/조영선(춤예술원 단원)

· 우정출연/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야류팀

· 사물놀이 연주/풍물패 다락

::관람료 균일 6,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내 최고 전문 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행사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p>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p> <p>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p>	<p>피아노 성악 연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p>
<p>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 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p>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전화 051-505-5995 팩스 051-505-5935 www.glovil.org / glovil@paran.com

을숙도 명품콘서트

6월 7일 화요일 오후 8: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수준높은 클래식무대를 선보이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인제대학교 교수이자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인 첼리스트 양욱진이 생상스의 '첼로협주곡'을 들려준다.

· 연주/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지휘/김준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김도현·배채은 바이올린 Duo Concert

6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초등학교 5학년인 김도현(용문초등), 배채은(무정초등) 등이 그동안 쌓은 연주실력을 선보이는 무대.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비탈리/사콘드 등 수곡

::관람료 무료

::문의 최옥경(010-2850-0822)

정인경 발표무대 12가사

6월 10일 금요일 오후 7:00 >>>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현재 한얼정악연구소 대표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가사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인경의 12가사 전곡 발표무대.

정인경은 전국가사경창대회 장원, 전국 '시조, 가곡, 가사' 대회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창/정인경, 이희재, 박수진, 정유정, 이전매리
- 대금/채수만, 이현경 · 장구/정동주
- 춤/김정원 · 사회/최세영

::관람료 초대

::문의 정인경(010-3870-8597)

창단 13주년 기념

2011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6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8년 창단 후 15차례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기획연주와 이탈리아 5개도시 순회연주, 전주 세계소리축제 초청공연 등 다수 무대를 통해 우리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음악의 영역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예타래의 창단 13주년 기념음악회.

- 연주/정세윤(피아노), 조익래(색소폰), 이갑석(소금), 허인대(장구), 류성식(피리), 최지환(대금), 이광수(첼로), 박은정, 이초희, 나주희(가야금), 조위현(해금), 조현영(작곡)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최지환(010-7676-9124)

토요해피콘서트

6월 11일(토), 25일(토) 오전 11:0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에 마련하는 토요해피콘서트.

▶11일 성악 듀오 콘서트

소프라노 구민영과 테너 홍지형이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주는 성악 듀오무대.

▶25일 '4크라베이스 드보르작 음악회'

4대의 클라리넷과 1대의 더블베이스로 구성된 4크라베이스 무대. 드보르작 5중주 '아메리카'를 비롯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음악을 들려준다.

- 연주/황윤원, 송성, 한상헌, 황수빈(이상 클라리넷), 황성준(더블베이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제 2회 피아노듀오

Piano Festival in Busan

6월 12일 일요일 오후 2: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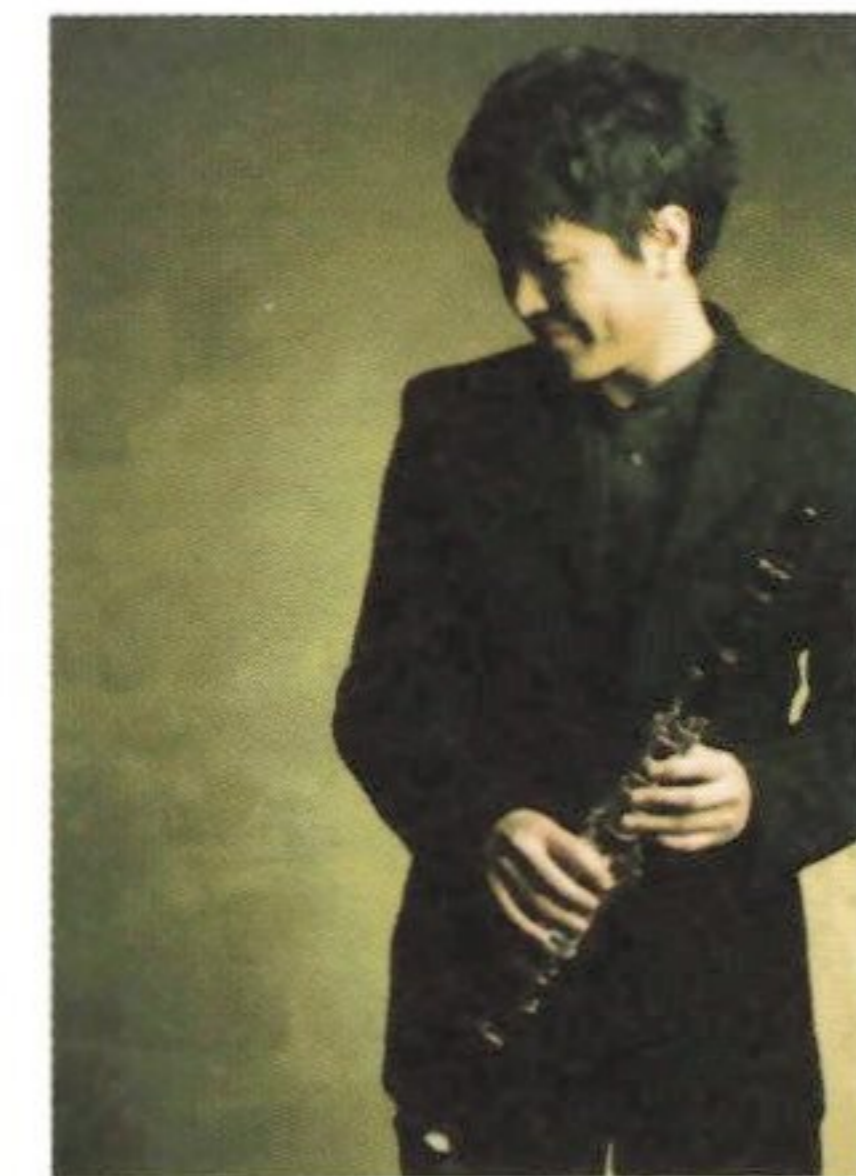
모든 인류의 공통언어인 음악을 통해 한·일 양국의 친선과 우호를 증진하는 교류음악회.

전문 연주자들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한·일 연주자 13개팀 65명이 참가, 기악독주, 앙상블, 독창, 합창 등 다양한 무대를 펼친다.

::문의 윤혜림(010-2301-5927)

금정문화회관 명품기획공연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초청 리사이틀

6월 12일 일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 초청무대.

2008년 스페인 클라리넷 국제콩쿠르 '도스 에르마나스(Dos Hermanas)' 1위,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는 채재일은 현재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프로그램

핀지/5개의 바가텔

파가니니/무궁동 작품 11

뿔랑/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테마가 있는 브런치 콘서트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늦은 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관객들을 위해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마련하는 '테마가 있는 브런치 콘서트'. 소중한 우리음악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국악청 예술단이 판소리, 가야금병창, 남도민요, 창극, 기악, 난타 등 우리 전통국악의 멋과 흥을 펼친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제 7회 동의대학교 피아니스트 동문연주회

6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5년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의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동의대학교 피아니스트 동문연주회.

::프로그램

리스트/스페인 랩소디
브람스/피아노 5중주 등

· 연주/김미현, 심정연, 김경표, 최진현, 최태수, 서영란, 신진희, 최승희, 최윤경, 서숙지, 안진숙, 정연희, 최은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동의대학교 피아니스트협회(019-567-8085)

부산 3개대학 합동 관악연주회

6월 14일 화요일 오후 7:00 >>>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의 관악연주 발전을 위해 동아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관악전공자들이 함께하는 부산 3개 대학 합동 관악연주회.

· 지휘/정우영(동아대학교), 하호석(부산대학교)
송기태(동의대학교)

::관람료 균일 3,000원

::문의 강경한(010-2800-0604)

SOUL String Ensemble 특별연주회

지성호 초청 독주회

6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구성된 SOUL String Ensemble 특별연주회.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SOUL String Ensemble의 이번 무대는 연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지성호 초청 독주회로 부산을 찾는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새롬(010-9088-5143)

해설이 있는 음악회 '토요뮤직점프'

6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뉴프라이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작곡가 임지훈의 창작곡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를 비롯 오케스트라 악기의 이해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김희정 바이올린 리사이틀

6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연세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에센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신포니에타 단원, 제천팔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쉐킷4C 리더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독주회.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바이올린 소나타 제 2번 라장조 작품 94
야나체크/바이올린 소나타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위대한 탱고

· 피아노/최은영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 1회 부산·경남 하모니카 동호회 '和音精', 일본 간사이 하모니카연맹 교류회

6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www.piano123.co.kr

조율사 강규찬

H.P 017. 556. 9410

- > 산업기사 (국가공인 1급 조율사)
- > 일본야마하 기술학교 그랜드피아노 부문 디플롬
- > 러시아 조율협회 그랜드피아노 수리부문 디플롬
- > 스타인웨이 리빌더 수회연수

■그랜드피아노(전공자용, 연주용) 조율, 수리, 대여, 리빌더 전문



부산, 창원지역 하모니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결성된 아마추어 하모니카 동호회 '和音精' 과 일본 간서지방 200개 하모니카 단체로 결성된 '간사이 하모니카연맹' 이 함께하는 한·일 하모니카 교류음악회.
 ::관람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의 김병섭(010-4540-1996)

노블오카리나앙상블 초청공연
 6월 19일 일요일 오후 6: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10년 12월 오카리나 전문 생산업체인 '노블 오카리나' 이종근 대표의 노력으로 결성된 오카리나 전문 연주단체인 노블오카리나앙상블 초청공연.
 ·연주/이종근(단장), 이다호, 민유경, 모은혜, 서혜진, 김혜은, 최지영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20명 이상 단체 20% 할인)
 ::문의 이창희(010-2546-3995)

부산신포니에타 제 75회 정기연주회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6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 탄탄한 연주실력을 선보여온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의 정기연주회.



제임스 리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미국 줄리아드대 음대 2학년에 재학중인 첼리스트 제임스 리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닐센/현을 위한 모음곡 작품 1
 모차르트/ '극장 지배인' 서곡
 슈만/첼로협주곡 등
 ·지휘/이동신 ·협연/제임스 리(첼로)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김영희(010-8519-0448)

제 58회 한낮의 유U;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 & 서울
클래시컬 플레이어즈 오케스트라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1:00 >>>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자리매김한 한 낮의 유U; 콘서트.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한국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과 2003년 창단된 국내 유일의 고전음악 전문오케스트라인 서울 클래식 플레이어즈 초청무대로 마련된다.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국제신문(500-5222)

2011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자포르지에 필하모니 초청음악회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957년 우크라이나 중동부지방의 자포르지에 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한 후 다양한 장르와 다변화된 음악연주로 우크라이나 유명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한 자포



김영근
 지에 필하모니 초청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교향악단 지휘자로 있는 김영근이 지휘한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6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아미치 세텔레'가 이태리 작곡가 토스티와 도나우디의 아름다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모아 마련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출연/이철성, 김충식, 김유진, 김정아, 김화정 외
 ::관람료 초대
 ::문의 김보라(010-9598-0047)

제 2회 숲 속의 열린 음악회
 6월 21일 화요일 오후 8:0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셋째주 화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클래식에서부터 가곡, 오페라 아리아,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리스트/피아노 소나타 나단조
 카치니/아베마리아 등 수곡
 ·출연/박현정(소프라노), 허동권(테너), 유형광(베이스), 유진희(첼로), 이동섭(피아노), 홍광현(클래식기타)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보은(010-9880-8447)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7회 정기연주회
웃맵시를 새롭게 여미고**

6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있는 주영위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57회 정기연주회.

2011년 대구시립국악관 초연곡인 '상주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 등 대구시립국악단 위촉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정동희/국악관현악 '쾌지나'

권은실/대금협주곡 '하늘소리, 청성'

임교민/세계를 향한 메아리 등

· 객원지휘/주영위(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

· 협연/유경조(대금), 윤성(노래)

· 객원출연/최영민(팀파니, 대구시립국악단 단원)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

부산챔버싱어즈 정기연주회

6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7년 1월 창단 후 수준 높은 화음으로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다양한 합창곡을 연주해온 여성합창단인 부산챔버싱어즈(단장/강귀랑)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몰리/그대의 사랑 잃었네

엔니오 모리코네/넬라 환타지아 등 수곡

· 지휘/김현식 · 반주/최은진

관람료 초대

문의 강귀랑(010-8477-4569)

목요국악콘서트 '바람 부는 June'

6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정통국악과 퓨전국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음악대륙 가이아'의 목요국악콘서트.

프로그램

원장현류 대금산조, 경기 대풍류, 가야금과 기타 '淸風', 그 시절의 세상, 시대를 초월한 마음 등 수곡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2)

송영훈의 4 첼리스트 콘서트

The 4 Cellists, 2011

6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 **시민회관 대극장**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첼리스트 송영훈과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우승자로 동양적 감성으로 빛을 발하는 중국 출신의 리 웨이, 세계 명문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로 폭넓은 연주활동을 가져온 스웨덴 출신의 조엘 마로시, 스웨덴의 가장 손꼽히는 연주자 클래스 군나르손 등 동서양의 동세대 남성 첼리스트 4인이 펼치는 첼로의 향연.

클래식곡을 비롯해 탱고, 컨템포러리, 영화음악 등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연주곡을 4대의 첼로로 다채롭고 파워풀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33,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티켓

링크 1588-7890 전화예매시 30% 할인)

문의 더 스톱프(02-2658-3546)

6·25 특집 스페셜 콘서트

우리는 하나

6월 25일 토요일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새터민(북한 이주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안익태의 한국환상곡 '코리아 환타지'를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

2011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 부산공연

6월 26일 일요일 오후 6:00 >>> **시민회관 대극장**



낭만파시대의 영향에서 벗어난 최고의 바흐 연주와 현대음악에의 뛰어난 해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뮌헨의 ARD 대회 최우수상을 비롯해 피에르 랑팔(파리), 레오나르도 드로렌조(이태리) 등 유명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프랑스 출신의 플루티스트 마갈리 모시니어가 협연한다.

관람료 VIP석 120,000원 · R석 99,000원

S석 77,000원 · A석 55,000원

문의 퍼니엔터(1588-8477)

기타 신동 정성하 With 울리 뵘거스하우젠

콜라보레이션 콘서트

6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유튜브 동영상으로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기타 신동 정성하와 그가 가장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이자 독일의 세계적인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인 울리 뵘거스하우젠이 함께 하는 무대.

관람료 R석 44,000원 · S석 33,000원
문의 프리덤콘서트(752-5547)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 42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6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 글로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관람료 자율(이웃돕기 성금)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한국농요의 재발견 천년의 삶의 소리, 오선에 수놓다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창작음악과 현대음악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 음악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고자 지난 1996년 창단된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의 무대.

사라져가는 한국의 농요를 채보, 현대의 어법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한국농요의 재발견' 프로젝트 무대로, 예천, 통영지방에서 전해내려오는 모내기 소리인 '아부레이수나'를 비롯해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김동조/농촌의 아침
곽진향/첼로협주곡 '조령'

박창민/황조가 등 수곡
· 지휘/최홍기
· 협연/첼리스트 배무영, 소프라노 김진희, 테너 김주권, 광주영어방송 어린이합창단(지도/배선경)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권준 피아노 독주회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고도로 집중된 섬세한 표현력과 풍부한 서정성으로 호평받는 피아니스트 권준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짜르테움, 미국 신시네티 대학을 졸업한 권준은 미

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권준(010-8717-7963)

황일희 첼로 독주회

6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과 신시네티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프렐미에 스트링콰르텟, 솔로이스츠 챔버그룹, ENC 첼로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황일희 독주회.

2007년 음악저널이 선정하는 제 18회 신인음악상을 수상한 황일희는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피아노/함인아
관람료 초대
문의 황일희(018-277-4248)

리스트와 떠나는 순례의 길 이시내 피아노 리사이틀

7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열정과 부드러움이 녹아 있는 음색의 소유자인 피아니스트 이시내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영국 스토클랜드 왕립 음악 드라마 아카데미(RSAMD)를 졸업하고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이시내는 이번 무대에서 리스트의 고도의 테크닉과 음악성이 요구되는 명곡 '순례의 해'를 들려준다.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PLAY

스릴러 심리 라이브뮤직극 '신의 아그네스'
3월 25일(금)-6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 AN아트홀.Red

'갓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죽인 수녀'라는 충격적인 소재로 이 시대 기적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존 필미어 원작의 고전 '신의 아그네스'.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주)WSM(600-1716)

연극 '내이름은 김삼순'
5월 5일(목)-6월 6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2005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삼순이 신드롬'을 일으켰던 인기드라마를 무대로 옮긴 연극.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창작뮤지컬 '그라찌에빠빠' 시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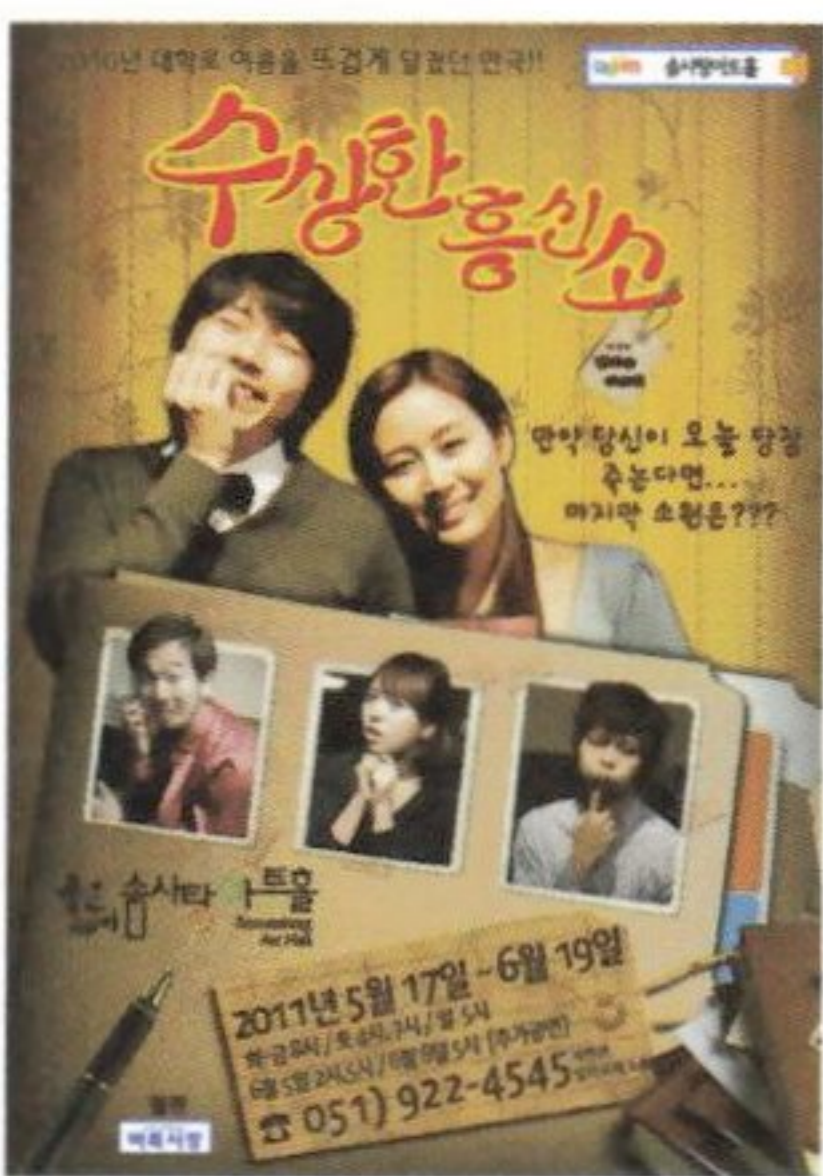
5월 13일(금)-6월 6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6/6일은 오후 8:00 공연) >>> 용천지탈소극장

유태인 학살이 자행되었던 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폭력적인 현실에서도 어린 아들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부성애를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무대로 옮긴 창작뮤지컬.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 의 창작극 연구소 몽키프로젝트
(070-4069-7100, 010-5394-5826)

2011 폭풍 흥행작 '수상한 흥신소'

5월 17일(화)-6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5:00(6/5일 오후 2:00, 5:00, 월요일 휴관) >>> 솜사탕 아트홀



영혼들이 이승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주인공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먼저 떠난 자의 안타까움과 홀로 남겨진 자의 슬픔을 웃음으로 풀어낸다.

·출연/박상협, 이장원, 김관장, 이진영, 김보람, 김민태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 의 솜사탕아트홀(922-4545)

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5월 18일(수)-7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
>>> 사랑과혁명 소극장

10년 동안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남자와 10년 동안 한 사람만을 마음에 품어온 여자 두나, 두 사람의 사랑찾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콘서트 뮤지컬.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 의 SM기획(1600-1602)

2011 극단 새벽 기획전 니르바나로 가는 길

5월 19일(목)-7월 30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일-화요일 공연없음) >>> 소극장 실천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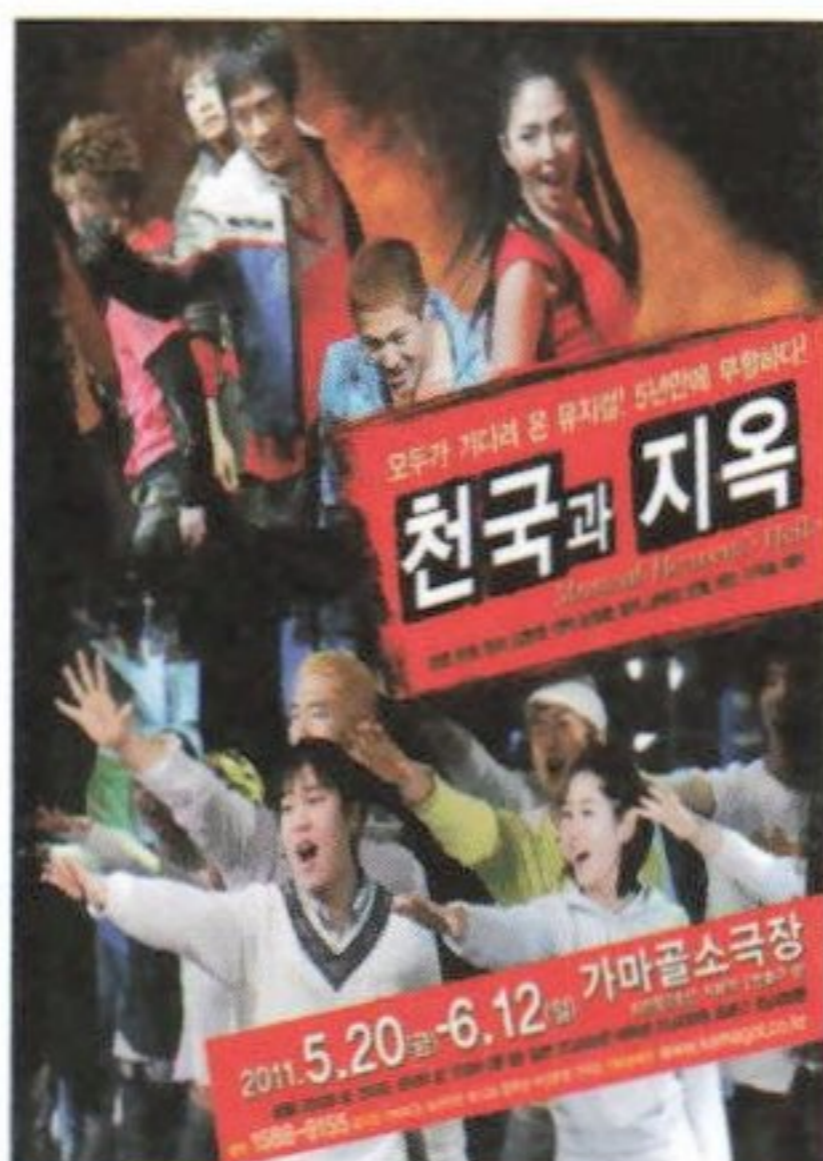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진보 작가로 '아들 후가드'의 '메카로 가는 길'을 읽고 떠올린 단상으로 새롭게 창작한 독후감 연극 '나르바나로 가는 길'.

·작, 연출/이성민
·출연/유미희, 변현주, 이현식
::관람료 일반 20,000원·청소년 15,000원
::문 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뮤지컬 천국과 지옥

5월 20일(금)-6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공휴일 오후 3:00 (월요일 휴관) >>> 가마골소극장



오펜바하의 오페레타 '지옥으로 간 오르페오'를 원곡으로, 대학 새내기들의 사랑과 질투, 우정을 힙합과 재즈로 풀어낸 뮤지컬 '천국과 지옥'.

·원곡/오펜바하
·음악/강중환

·각색/김현영 ·연출/남미정
·출연/김용래, 박인화, 김해선, 박정무, 김도훈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제 1회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5월 20일(금)-7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 미리내소극장,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오랜 세월 변함없이 무대의 자리를 지켜온 실력과 배우 4인이 펼치는 창작 1인극 열전.

▶닭잡아 먹고 오리발
5월 20일(금)-6월 3일(금) 미리내소극장
6월 7일(화)-8일(수), 14일(화)-15일(수)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시대를 풍자한 호민의 1인극.
·작/김문홍 ·연출/구민주

▶지니스토리
6월 4일(토)-6일(월) 미리내소극장
2009 세계델픽대회 즉흥마임부문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마임리스트 김세진의 옴니버스극.
·작, 연출, 출연/김세진

▶복마전
6월 10일(금)-24일(금) 미리내소극장
47년 연기인생에서 처음으로 1인극에 도전하는 윤석이의 무대 '복마전'.
·작/김문홍 ·연출/이동재

▶영순아 어디 가니
7월 1일(금)-10일(일) 미리내소극장
자살증후군에 시달리는 영순이의 삶을 강렬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무대로 선보이는 구민주의 1인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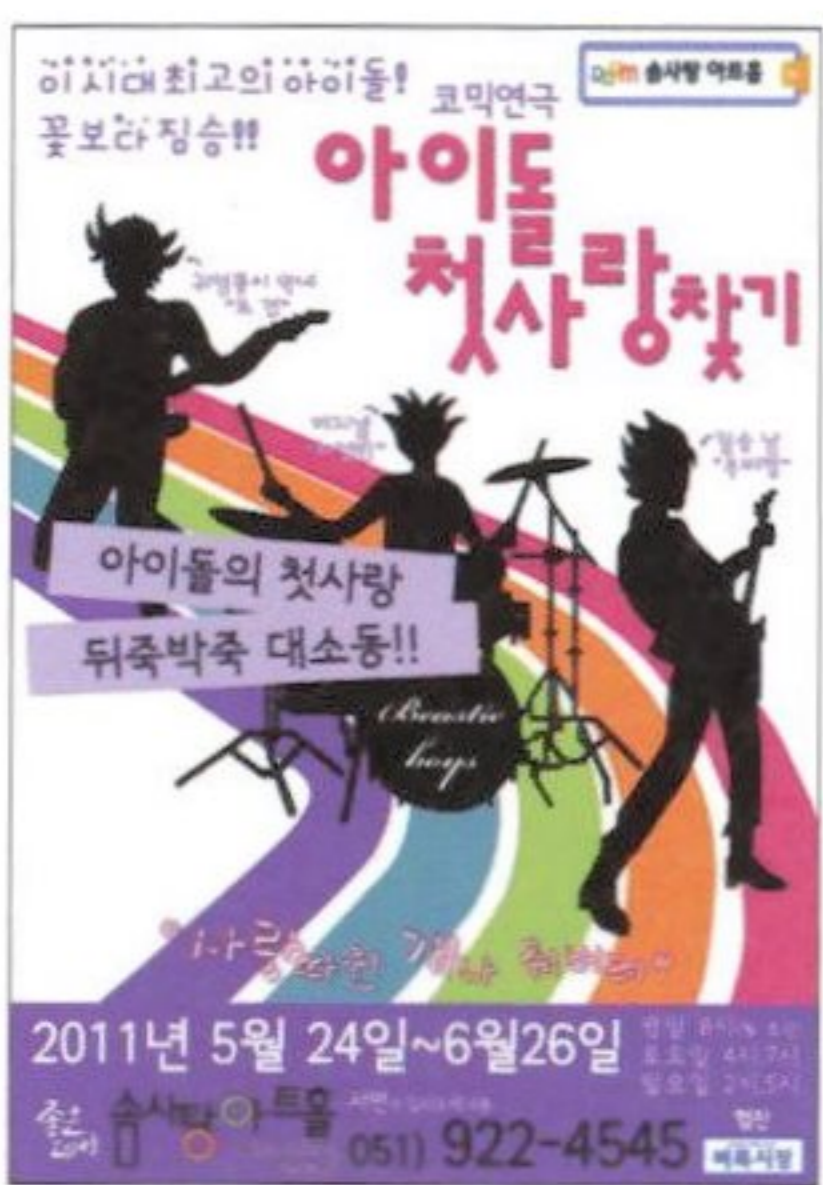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 작/이훈주 · 연출/호민
 ::관람료 균일 20,000원
 (4작품 패키지티켓 30,000원)
 ::문 의 극단 아센(504-2544)

코믹극 '아이돌 첫사랑찾기'

5월 24일(화)-6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6/6일 오후 5:00, 월요일 휴관) >>> **솜사탕 아트홀**



아이돌 그룹을 취재하기 위해 남장하고 주방장으로 잠입한 연예부 기자가 펼치는 좌충우돌 소동극 '아이돌 첫사랑찾기'.

· 연출/이승원
 · 출연/이혜미, 이성윤, 이상형, 강시형, 권미나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 의 솜사탕아트홀(922-4545)

슬랩스틱 코미디극 '칼숨의 맛'

5월 27일(금)-6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휴관) >>> **공간소극장**



완전한 환경파괴로 과학기술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미래의 시대를 배경으로 환경 파괴, 인간성 파괴라는 주제를 벌난 유머와 슬랩스틱 코미디로 구성한 연극 '칼숨의 맛'.

· 작/김원 · 연출/김만중
 · 출연/김근아, 김정환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드라마팩토리 '햄릿'

6월 14일(화)-28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휴관)
 >>> **가마골소극장**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세계적인 고전이자 비극의 정수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기본 드라마에 충실하게 재구성한 연극 '햄릿'.

· 작/셰익스피어
 · 재구성, 연출/김세환
 · 출연/박태수, 김서현, 신현규, 민혜진, 이태겸, 최영무, 은상욱, 김륜호, 박신영

::관람료 일반 20,000원 · 초중고 15,000원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연극 '물지마 육남매'

5월 27일(금)-6월 30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6/7일, 월요일 공연없음) >>> **에저또 소극장**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가는 육남매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연극 '물지마 육남매'.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미니티켓(1600-1716)

2011년 부두연극단 워크샵 공연 남편을 빌려드립니다

6월 1일(수)-6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5:00
 (6/6일은 오후 3:00, 6:00) >>> **액터스소극장**

2007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와 자살문제를 그린 연극 '남편을 빌려드립니다'.

· 예술감독/이성규
 · 작/이해성 · 연출/백권집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액터스소극장(611-6616)

가족뮤지컬 빨간모자 - 부산

6월 1일-2일 수-목요일 오전 10:10, 11:20

>>>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3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4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0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11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2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원작인 동화의 극적 재미를 살리면서 늙은 연극배우인 할아버지와 손녀간의 또 다른 가족간의 사랑이야기를 더한 창작 가족뮤지컬 '빨간 모자'.

· 연출/김수진
 · 출연/주진우, 강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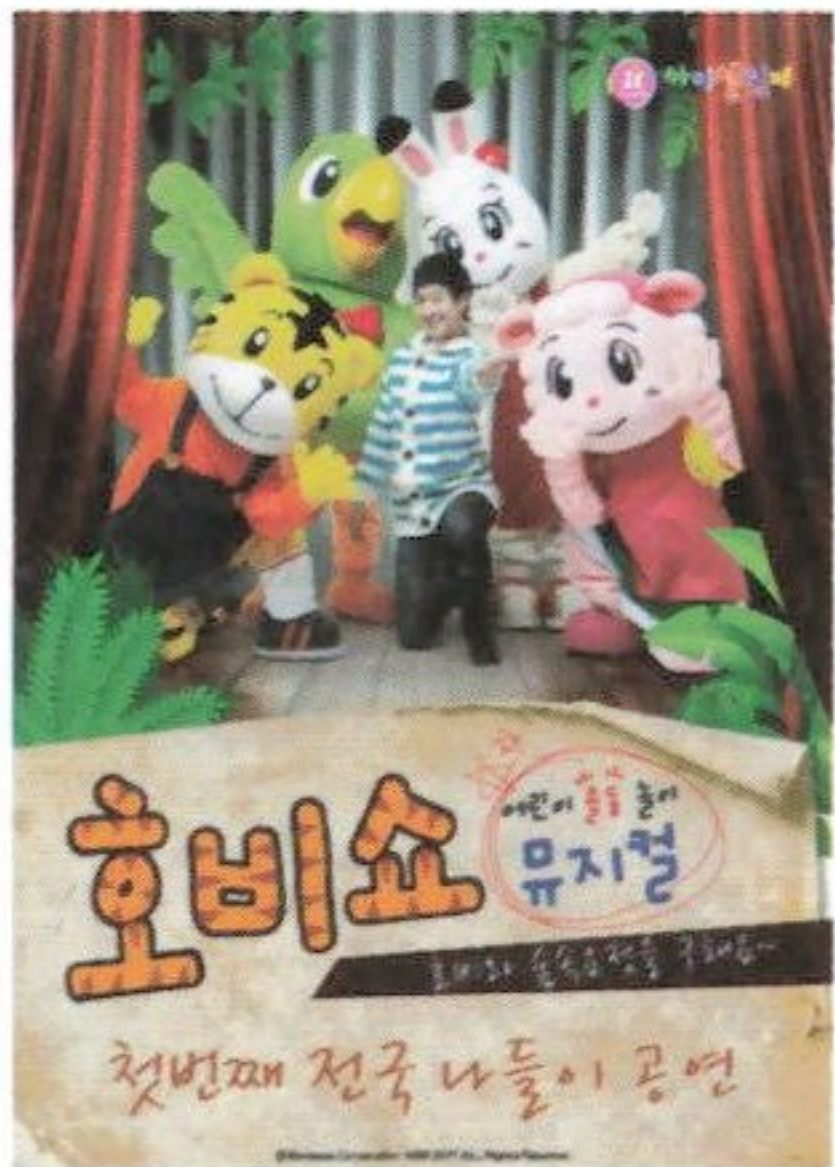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15,000원(평일 공연은 반드시 예약)
 ::문 의 DUBU기획(02-2654-6854)

어린이 율동 뮤지컬 '호비쇼'

6월 3일-5일 금-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6일 월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 **MBC롯데아트홀**

용감한 친구 호비와 함께 신나게 박수치며 노래하는 어린이 감성 체험형 뮤지컬.



쏟아지는 눈과 별빛으로 수놓아진 하늘,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자라는 푸른 숲 등 마치 마법과도 같은 생생한 무대연출이 어린이들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관람료 R석 35,000원
S석 30,000원

::문의 (주)글로벌키즈(02-1577-1876)

뮤지컬 '락시터'

6월 3일(금)-7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공휴일 오후 3:00, 6:30
(6/7일, 월요일 휴관)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어깨가 무거운 30대 가계복과 마음만은 늘 청춘인 60대 오범하가 뉴시터에서 만나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다양한 인간군상들의 가슴 따뜻한 삶을 폭넓은 공감대로 풀어낸 코미디 뮤지컬 '락시터'.

·작, 연출/위성신
·출연/김탄현, 유승일, 김도원, 이성욱, 맹상렬, 강민호, 김시권, 오의식 외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6월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 시민회관 소극장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가족뮤지컬 '인어공주'. 특수조명과 효과로 신비한 바닷속 세상이 무대에 펼쳐진다.

::관람료 균일 20,000원(예매시 30% 할인)

::문의 플러스 기획(080-071-1212)

연극 라이어 3탄 '튀어!!'

6월 10일(금)-7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휴관)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우연히 택시 안에서 자신의 가방과 야쿠자의 돈가방을 바꿔두고 내린 주인공의 좌충우돌 헤프닝을 그린 코미극.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연극 '열대야_Drunken Night'

6월 11일(토)-8월 15일(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공휴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 용천지랄소극장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 밤, 삼겹살집에서 만난 세 친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린 작품.

::관람료 일반 30,000원 · 중고생 20,000원

::문의 문화기획단 무대공감(623-0678)

연극 '도둑놈 다이어리'

6월 14일(화)-30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극장



고위관직자를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는 의좋은 형제가 사랑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품.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40%, 주말 3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스테디셀러 희망뮤지컬 '연탄길'

6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9일 일요일 오후 2:00, 6:00 >>> 시민회관 대극장



가난하지만 마음 따뜻한 이웃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극으로, 실화가 전하는 따뜻한 사랑과 감동이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창작뮤지컬 '연탄길'.

·작, 연출/유혜정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22,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주)WSM(1566-5490)

플라잉 어드벤처 뮤지컬 '구름빵'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8:00, 25일-2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 MBC롯데아트홀



구름빵을 먹고 하늘을 날아 가족과 친구를 돕는 고양이 남매 흥비, 흥시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극.

·원작/백희나 ·극본/오치운
·작곡/김성균 ·연출/허승민
·출연/박종태, 김현정, 권혁미, 김초록, 노은경 외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5,000원

::문의 MBC롯데아트홀(1688-8998)

Program

기타공연장 공 / 연 / 안 / 내

가족뮤지컬 '책먹는 여우'

6월 2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책을 너무나 좋아해 책을 읽고 먹어치우는 여우가 주인공인 가족뮤지컬 '책먹는 여우'.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
::문의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DANCE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에서 세상과 통하다 6월 3일(금)-7일(화)

»»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등

세계 해양 춤 축제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 7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에서 세상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13개국 150개팀 200여 작품이 선보인다.

▶개막식

3일(금) 오후 7: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초청작 공연

3일(금)-5일(일) 오후 7: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BID 춤 아카데미 초청공연

4일(토) 오후 6:00 해운대 해변특설무대

국내 무용전공 교수진의 초대공연.

·출연/장정윤(동아대), 김은정(부산예술대학), 한은주(경성대), 루치아노브 비탈리(신라대), 박은화(부산대)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6일(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대한민국 무용계의 주역이 될 춤작가(안무, 출연) 발굴 시상 및 공연.

▶BID 폐막식

7일(화) 오후 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의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90-2507, www.bidf.or.kr)

제 15회 라흐마니노프와 함께하는 민병수 발레단

6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민병수 교수가 이끄는 민병수 발레단이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모티브로 한 창작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Midsummer Nights Dream, Intolerable Love
라흐마니노프를 위하여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대학교 무용학과(510-1740)

2011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마당출판 '평강과 온달'

6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7일 금요일 오후 7:3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4일 금요일 오후 7:30 »» 동래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전통설화 '바보온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마당출판.

·안무, 구성/홍기태(수석 안무자)

·연출, 각색, 대본/오정국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제 17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6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통해 순수 창작발레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동아발레단의 정기공연.

::작품

해적 3막 중에서(재안무/안미진), The Diary of Anne Frank(안무/유성민), 마지막 잎새(안무/권미정) 외

민, 마지막 잎새(안무/권미정) 외

·연출/김복선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동아대학교 무용학과(200-7819)

국립부산국악원과 함께하는 대학무용축전 '뿌리춤전'

6월 28일-29일 화-수요일 오후 7:30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선보이는 대학무용축전.

::작품

경성대학교 '사(沙)_시원의 메시지'(안무/최은희)

부산대학교 '회란(廻鸞)'(안무/강미리)

신라대학교 '파란(波瀾)'(안무/정신혜)

::관람료 균일 8,000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MOVIE

시네마테크 부산 '류승완의 액션 스쿨'

5월 30일(화)-6월 5일(일)

»»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한국 액션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 류승완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와 '원한의 거리에 눈이 내린다(감독/임권택)', '비트(감독/김성수)',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감독/이명세)' 등 10편의 액션영화가 상영된다.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ONCERT

박정현 콘서트 '조금 더 가까이'

6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5일 일요일 오후 5:00

»» KBS부산홀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55,000원

문의 (주)WSM(1600-1716)

뮤직 스토리-프리덤 콘서트 '로맨틱 펀치'

6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그룹 부활 라이브 콘서트 IN 부산

6월 25일 오후 4:00, 7:30 >>> KBS부산홀

관람료 VIP석 88,000원 · R석 77,000원

문의 SM기획(1600-1602)

EVENT

제 103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6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초대시인/조성래, 김점미, 서화성, 김다희, 고명자

찬조출연/이진희(연극배우), 임지연(소프라노)

관람료 무료

문의 김예강(010-5516-1867)

제 36회 부산 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6월 18일(토)-19일(일) >>> 동래문화회관 대, 소극장

참가대상/전공자 및 일반인(대학생 포함)부,

고등학생부

참가부문/무용부, 기악부, 성악부

신청서 접수기간/6월 17일(금) 오후 12:00까지

문의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555-0092,

www.pusanminsok.or.kr)

GALLERY

롯데갤러리 광복점 제 1회 야외조각전 Sky:High展

4월 29일(금)-7월 5일(화)

>>> 롯데백화점 광복점 옥상공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2)

김유미 도예 초대전

5월 17일(화)-6월 5일(일) >>> 갤러리 예가



문의 갤러리 예가(624-0933)

정광식 개인전

5월 18일(수)-6월 16일(목) >>> 갤러리 가양

문의 갤러리 가양(752-7830)

사진전 사람 사이의 벽들 -알렉상드라 노보세로프, 프랑크 네스

5월 21일(토)-7월 10일(일) >>> 고은사진미술관 본관

문의 고은사진미술관(744-3933)

로버트 인디애나 'Love to Love'

5월 25일(수)-6월 22일(수) >>>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678-2610~2)

five+2인전

5월 27일(금)-6월 17일(금) >>> 갤러리 봄디



김응기 작 '말'

초대작가/강이수, 김문규, 김원백, 김응기, 김정호, 송주섭, 심점환

문의 갤러리 봄디(070-7720-6862)

2011 부산판화제 'Fresh & Wide'展

5월 30일(월)-6월 5일(일) >>> 부산시청 2, 3전시실

부산미술협회 판화분과 회원 18명과 지역의 청년작가 33명의 작품 총 80여점을 선보이는 2011 부산판화제.

문의 김미경(632-2400, 010-4020-0245)

The Photographer

6월 3일(금)-6월 30일(목) >>>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문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김설화 연꽃그림 초대전 -가없는 곳에서 만나다-

6월 7일(화)-6월 30일(목) >>>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한 편의 SF영화를 보는 듯한 후련함 존 루터 '글로리아'

김희성_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스케일 큰 SF영화의 맛을 제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꼭 있어야 할 것은 금관악기의 활약이 두드러진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연주일 것이다. SF영화의 명작들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타워즈', '수퍼맨', 'E.T.' 등의 영화장면을 떠올리면 반드시 주제선율이 함께 기억이 날 정도로 영화의 장면장면을 제대로 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활기찬 금관악기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장엄한 관현악과 합창이 울려 퍼지며 영웅의 귀환을 환영하는 음악으로 생각했는데 어울리지 않게도 종교음악이다. 그것도 현대 작곡가의 미사음악이라면 더더욱 아이러니하다. 곡명과 작곡가도 모른채 우연히 이 곡을 접하고는 '멋지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매력을 느꼈으나 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아쉬워하던 참에 지인의 소개로 곡명과 작곡가를 알게 되었다. 바로 영국의 작곡가인 존 루터(John Rutter)의 '글로리아(Gloria)'이다.

종교음악가로서 잘 알려진 존 루터의 세 악장으로 구성된 17분 정도의 짧은 이 작품은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고 존 루터의 분신과도 같은 캠브리지 싱어스와 시티 오브 런던 시포니아의 연주에 필립 존스 브라스 앙상블이 협연하여 연주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 음반에는 존 루터의 성가곡 10곡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성가곡 중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과 'For the beauty of the earth'의 대중적인 인기는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정도로 오히려 '글로리아'를 능가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거행된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에서도 존 루터 작품인 'This is the day'라는 합창곡이 자칫 딱딱하고 엄숙하여 숨쉬기도 힘들 것 같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공기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바꿔 주었다.

194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존 루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는 정말 난해한 현대음악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누구라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작품들을 작곡해왔다. 그의 음악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광고 배경음악으로 그의 작품이 사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작곡하였지만 역시 그의 주된 작품은 종교음악이며 'Gloria' 'Magnificat' 'Requiem' 'Te Deum' 등이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네 작품을 할인 판매하는 음반들 속에서 한꺼번에 우연히 찾아내고는 황재한 듯한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존 루터는 자신의 작품을 지휘한 음반을 포함하여 다양한 음반을 발표하였는데 제작사 또한 그가 직접 설립한 콜레기움(Collegium) 레코드이다. 존 루터는 작곡과 지휘 뿐만 아니라 전문 세미나 강사로서도 뛰어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1997년에는 내한하여 종교음악에 대한 세미나와 직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대중적인 인기와 다양한 작품이 있어 교회 성가대나 아마추어와 전문 합창단의 연주곡목에 그의 작품은 자주 등장하며 안산시립 합창단은 음반도 출시하고 있다. 작년 8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립 합창단의 교류음악회 '한여름밤 꿈의 합창축제' 무대에서 '글로리아'가 연주되었는데 당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시민회관에서 이루어진 연주회에서, 금관악기까지 동원된 합창공연은 현악기 없이도 표현은 섬세하였고 넓은 홀을 가득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웅장함을 들려주었다.

스트레스 가득한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날려보내고 싶거나 노곤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존 루터의 '글로리아'를 감상해 보면 어떨까.

2011 부산국제연극제 댄스씨어터 창 '수동과 두통'

아이티지진을 모티브로 한 '두통', 자신의 두개골을 꺼집어내고 피를 흘리며 神에게 저항도 해보지만 결국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세 명의 무용수와 실물크기의 인형이 등장하는 '수동'도 참 인상적이었다. 두 작품 모두 무거운 주제였지만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에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두통거리(?)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이 낳은 현대무용가 김남진님의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김말선(사상구 덕포2동)

2011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못 말리는 장의사'

'못 말리는 장의사'라는 제목에 끌려 극장을 찾았다. 장의사가 등장하는 것도 이색적인데 거기다 죽어서라도 관을 채우고 싶어 하는 장의사들이 진정 한국의 관객들에게 어떤 웃음을 안겨줄지 기대가 컸다. 한 시간 남짓 공연을 보는 동안 한국과 머나먼 스페인인 사람의 웃음코드에, 청중들을 이끌어가는 4명의 스페인 배우에게 나도 모르게 박수를 보내게 되었다.

-이윤정(서구 토성동)

부산시립합창단 가요합창음악회 '김광석...15...추억...합창'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지지 않고 빛나는 故 김광석의 노래를 부산시립합창단의 합창을 통해서 듣고, 때로는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잔잔한 감동과 기쁨을 얻은 시간이었다. 김광석과 절친했던 가수 안치환이 들려주는 고인의 추억담과 노래 역시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신혜(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립무용단 춤극 '맹진사댁 경사'

예전 TV에서 봤던 영화 '맹진사댁 경사'가 춤극으로 올려진다는 소식에 가벼운 기대감을 안고 공연장을 찾았다. 평소 무용공연을 자주 관람하지 못했지만 드라마, 연극으로도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 쉽게 작품에 빠질 수 있었다.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춤사위와 더불어 화려한 무대에 잠시도 시선을 땔 수 없었다.

-정유진(동구 초량동)

연극 '염쟁이 유씨'

오랜만에 본 연극 '염쟁이 유씨'는 보는 내내 눈물짓거나 미소짓게 만들며 나의 주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로잡았다. 관객과 배우가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좋았고 주인공 스스로가 연극의 무대를 전통문화 체험장이라고 일컬었듯이 이 연극은 죽음에 대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삶이란 주위의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이라던 대사가 잔잔히 가슴에 와닿았던 연극이었다.

-조잔디(금정구 남산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향 전문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리스트 - 리제 드 라 살르

▶연주: 리제 드 라 살르(피아노)

높은 평가를 받았던 쇼팽 음반이 나온 지 1년만에 리제 드 라 살르의 나이브 레이블을 위한 6번째 음반이 나왔다. 쇼팽처럼 이번 음반의 프로그램은 올해 탄생 2백주년이 된 리스트에게 헌정되었다. 드 라 살르는 리스트의 방대한 피아노 레퍼토리 중에서 단테 소나타와 같이 대규모 작품에다 '먹구름'과 같은 소품들,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그리고 바그너의 명곡들의 편곡판들을 수록하여 다채로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발라드 2번, 장송곡 같은 리스트의 오리지널 작품을 골라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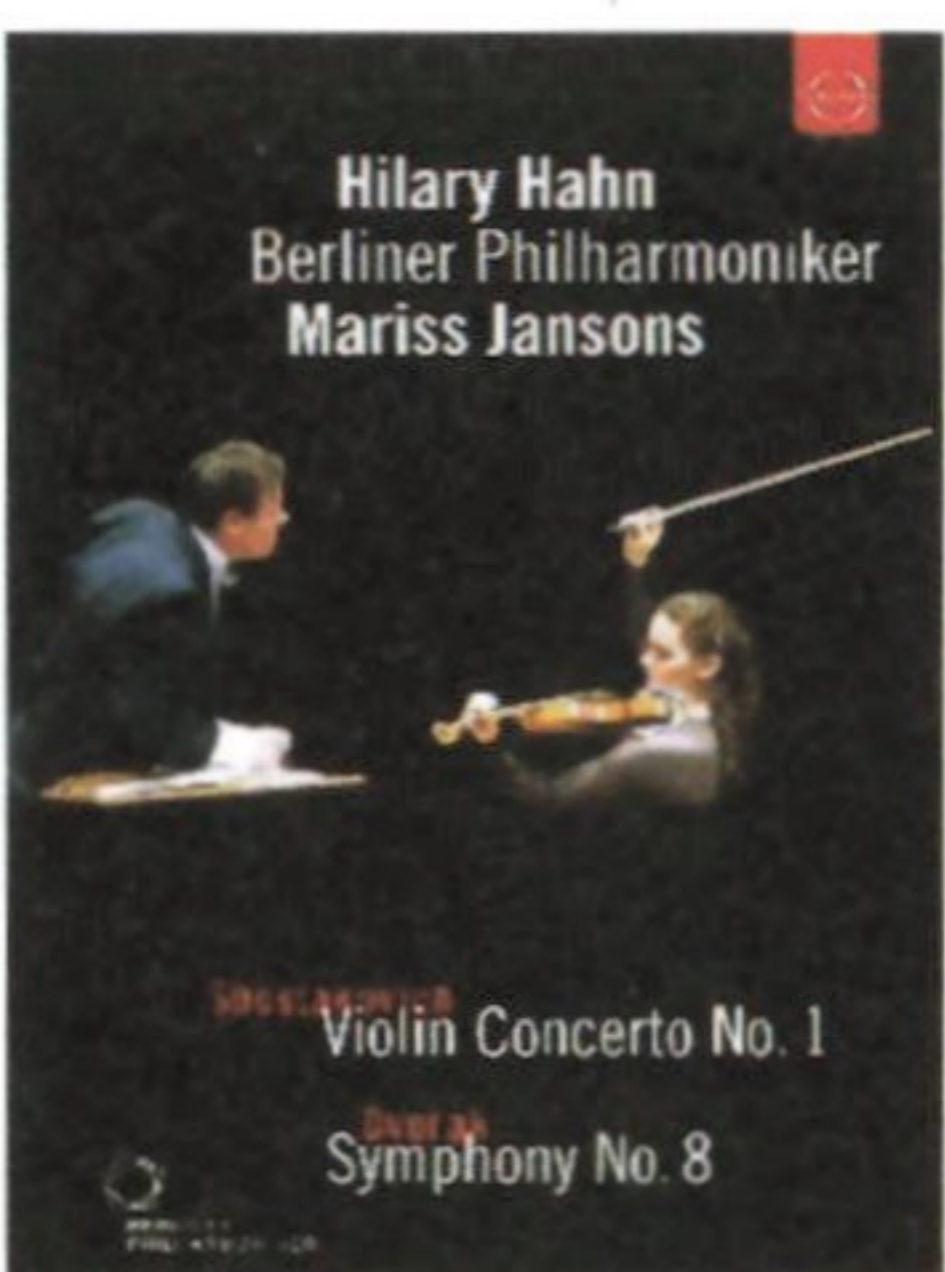
1988년생인 리제 드 라 살르는 4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9살 때 처음 연주회를 가졌으며 13살 때 가진 첫 번째 협주곡 협연 무대는 라디오 프랑스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2001년 이후 그녀는 베를린 필 하모니 홀, 할리우드 보울, 위그모어 홀, 뉴욕 메트 뮤지엄, 암스텔담 콘서트헤보우, 파리 상젤리제 극장 등 세계 유수의 연주회장을 누비기 시작했다. 라벨과 라흐마니노프의 작품들을 담은 데뷔 앨범을 통해 나이브 레이블과 인연을 맺은 드 라 살르의 2004년 바흐와 리스트 앨범과 2007년 로렌스 포스터가 이끄는 굴베키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녹음한 쇼스타코비치와 리스트,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음반은 '이달의 음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에 발매된 모차르트와 프로코피에프 작품을 두 장의 CD에 담은 리사이틀 음반은 그라모폰지의 '에디터스 초이스'와 더불어 BBC 뮤직 매거진의 '초이스' 음반으로 선정된 바 있다.



슈베르트 바이올린 전곡 - 요한나 마르치

▶연주: 요한나 마르치(바이올린), 장 안토니에티(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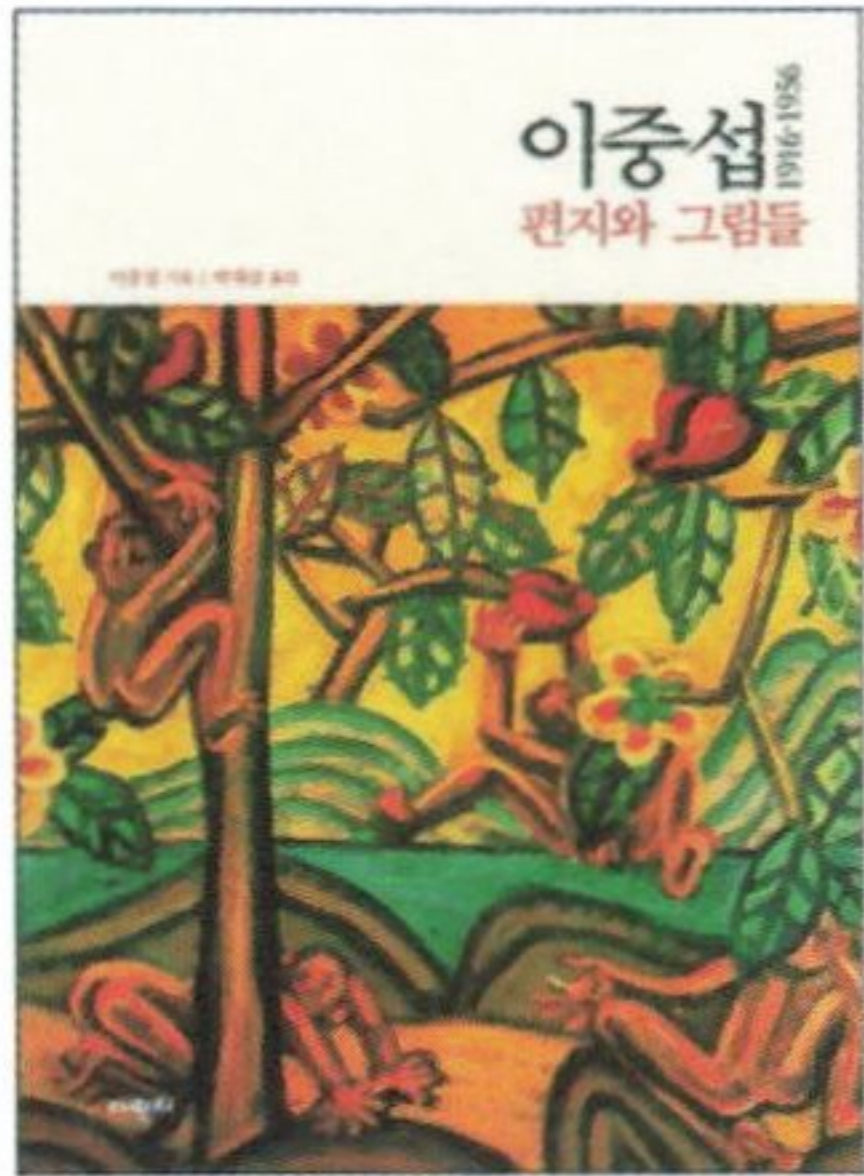
요한나 마르치와 장 안토니에티가 1955년 9월부터 11월까지 베를린에서 녹음한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작품집 전집 녹음은 바흐와 함께 마르치의 얼마 안 되는 스튜디오 정규 녹음 중 백미이자 감히 전설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명연주이다. 슈베르트 바이올린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린 선구적인 녹음이면서도 지나친 과장이나 화장기가 조금도 없이 소박하면서도 은은한 정열이 배어나오는 고매한 품격과 우아한 아름다움이 지금까지도 깊은 감동을 주는 연주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연주를 능가할 만한 전곡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터내셔널 발매로는 최초로 CD화되었으며, 오리지널 마스터테잎으로 새롭게 리마스터링해서 음질도 로컬 라이선스보다 더 훌륭하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도쿄 산토리홀 실황

▶연주: 힐러리 한(바이올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마리스 얀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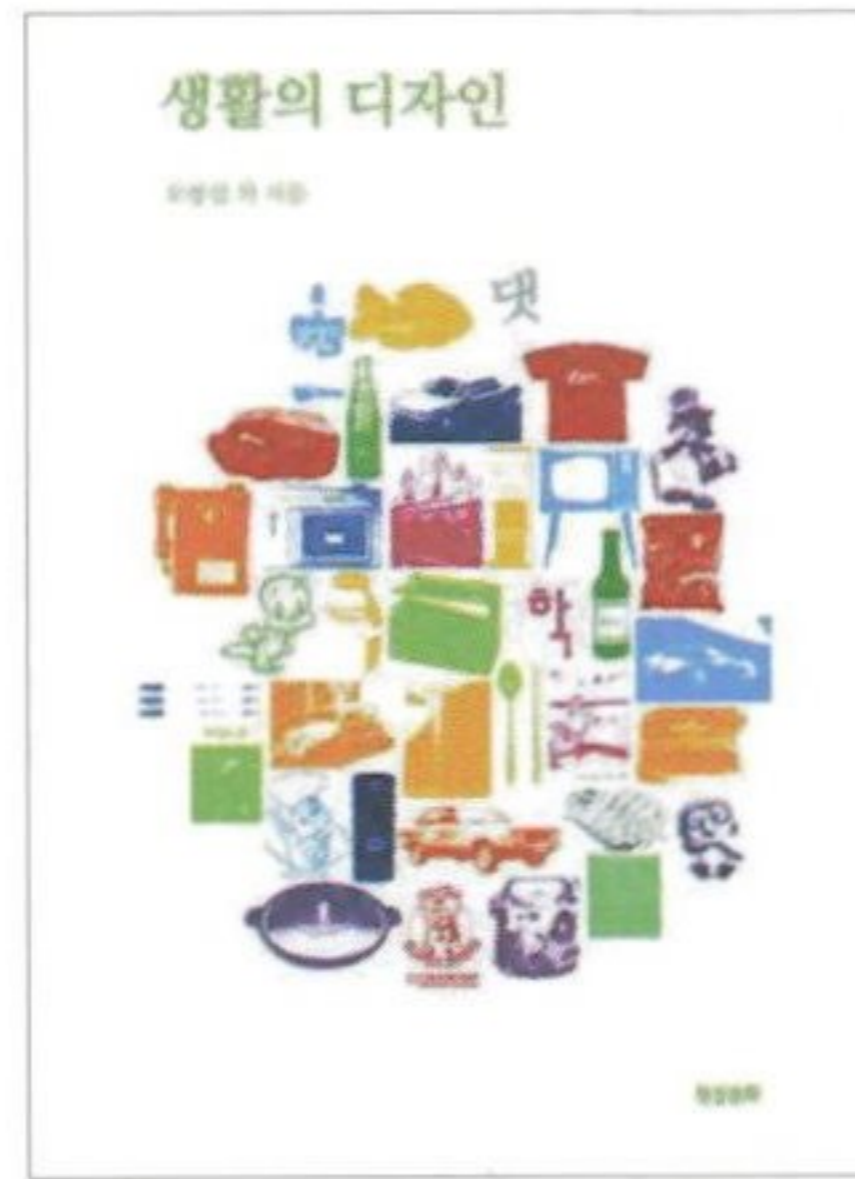
현재 율리아 피셔, 야이네 안센과 더불어 젊은 여류 바이올리니스트의 트로이카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 출신의 힐러리 한은 수차례의 내한 공연을 통해 우리 음악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본 영상은 힐러리 한이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 더불어 일본에서 가졌던 역사적인 공연실황을 담고 있다. 2000년 11월 26일 도쿄 산토리 홀에서 있었던 이 콘서트에서 힐러리 한은 쇼스타코비치가 오이스트라흐를 염두에 두고 완성했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을 무대에 올렸다. 가녀린 체구로 강력한 에너지와 화려한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이 난곡에 맞서는 힐러리 한의 당당한 모습과 능란한 연주는 큰 감흥을 안겨주었다. 드보르작의 3대 교향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미를 자랑하는 교향곡 8번과 오페라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훌륭히 축약해 놓은 베버의 오베론 서곡에서는 얀손스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베를린 필 단원들의 뛰어난 기량이 빛을 발한다.



이중섭 1916-1956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 지음, 박재삼 역 / 다빈치
/ 256p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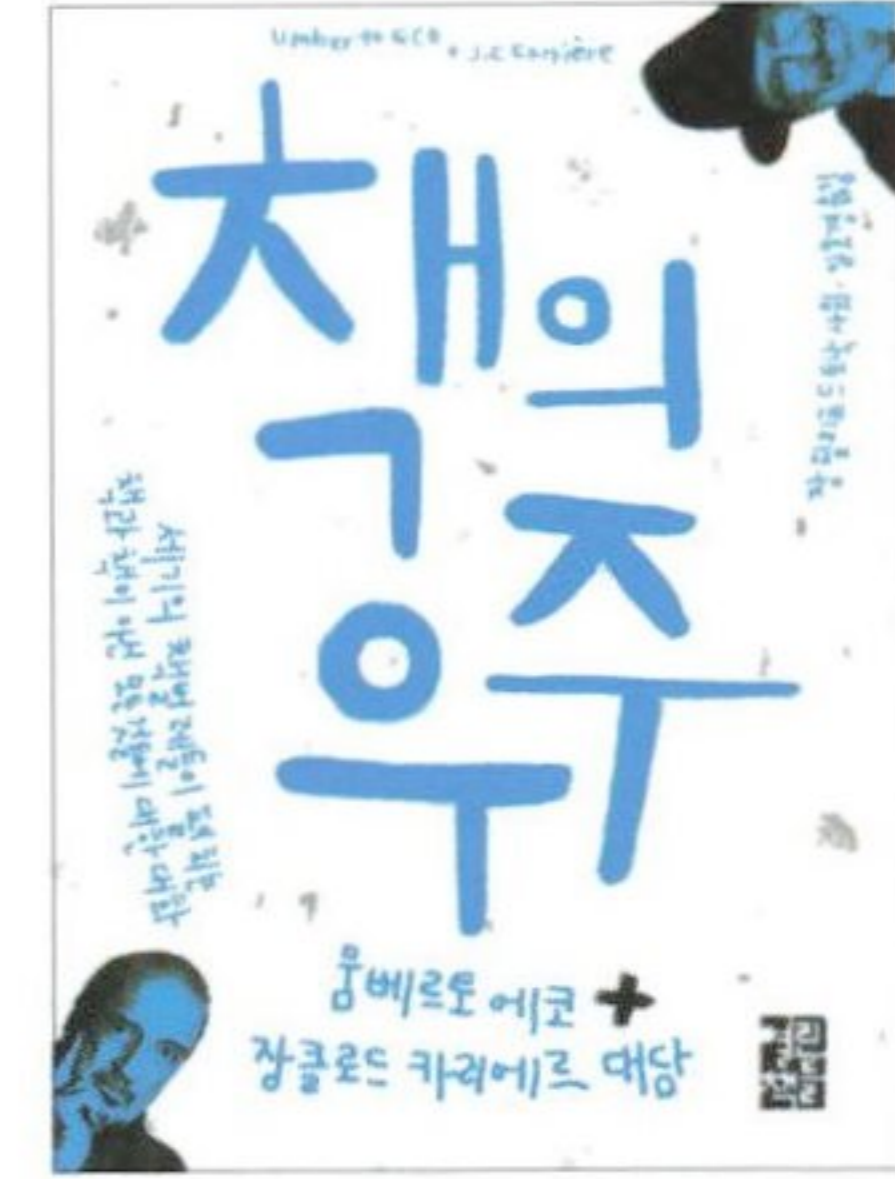
한국아트밸류연구소가 발표한 '2010년 한국미술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미술 경매시장에서 가장 돈보인 작가는 이중섭이었다. 이중섭의 대표작 '황소'가 35억 6000만 원에 낙찰돼 지난해 국내작가 미술품 경매가 1위를 차지했다. 이중섭에 쏟아지는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렇게 신화로 남은 화가 이중섭이 직접 쓰고 그린 것을 시인 박재삼이 번역한 책을 읽어보자. 이 책은 2000년에 출간된 <이중섭, 그대에게 가는 길>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유화, 수채화, 스케치, 구아슈화, 은종이 그림 등 이중섭의 대표 작품 90여 점과 더불어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이중섭이 일본에 있던 아내 이남덕(마사코) 여사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남덕 여사가 이중섭에게 보낸 편지, 이중섭이 결혼 전 마사코에게 띄운 그림엽서 등이 담겨 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는 와중에 혼신의 힘을 쏟아 한 점 한 점 완성한 그림들의 붓 터치와 색감 하나하나 예술에 있어 '정직한 화공' 이기를 자처한 이중섭의 노력과 고민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의 분신이다.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진실된 자료이다.



생활의 디자인

김명환 외 지음 / 현실문화연구
/ 248p / 12,500원

한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생활 속 디자인을 통해 우리의 근현대 풍속사를 살펴보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물건들은 개인이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대량생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대량생산된 물건들은 당대의 사회적 필요와 욕구, 이에 부응하는 기술적, 경제적 능력, 이러한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일상문화 등 그 시대의 면면을 드러낸다. 철가방, 봉어빵, 이태리 타월, 소주병, 바나나맛 우유, 빨간 돼지저금통 등 변함없는 디자인으로 이리 삶의 일부가 된 물건들이 있다. 오랫동안 우리가 즐기고 사랑했던 물건, 그래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물건들은 언제 누가 만든 것일까. 이 책에서는 14명의 디자인 전문가가 재발견한 52개의 디자인들이 소개된다. 왜 봉어빵은 그 많은 생선들을 제치고 '봉어' 빵이 됐는지, 오늘날 책과 인쇄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조체는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70년대 주방 가전제품들을 치장한 '꽃무늬 장식'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 책에 등장하는 디자인들은 우리를 추억 속에 빠뜨리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다시금 발견하게 한다. 생활 속 디자인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 수 있다.



책의 우주

움베르토 에코 지음, 임호경 옮김 / 열린책들
/ 384p / 14,000원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지성 움베르토 에코와 장클로드 카리에르가 책에 대하여 함께 대화를 나눈 대담집. 지독한 애서가이며 구텐베르크 성서 초판본을 손에 넣는 게 여생의 꿈이라는 두 사람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고전하고 있는 책의 가치를 되짚고, 파피루스에서 전자책에 이르기까지 책의 흥망성쇠를 논하는가 하면 미래의 책, 책의 미래를 점치기도 한다. 움베르토 에코와 장클로드 카리에르가 지금 만나야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전자책의 출현과 종이책의 위기 때문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 열풍이 불고 있는 이때, 두 사람은 책의 운명을 어떻게 점치고 있을까? 애서가, 특히 고서 수집가인 두 사람에게 전자책의 출현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자책이 가져다줄 편리함을 애써 부정하지도, 종이책의 멸종 가능성을 놓고 혀를 차지도 않는다. 움베르토 에코는 종이책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발명품으로서 책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이라는 주제로 두 고수가 나누는 대화는 흡사 신선놀음에 가깝다. 책에 관한 그들의 지식은 끝을 가늠하기 힘들다. 이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는 기분이다.

새롭게 단장한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지난 2월부터 3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월 2일 새롭게 문을 연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이 쾌적한 전시공간과 현대적 감각의 시민 휴식 편의 시설로 전시실 이용자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5월 5건의 전시회가 열린데 이어 6월에는 부산회화제 비롯해 한서미술대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등이 열린다.



6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6월에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6월에는 1일 국악관현악단의 꿈나무소망심기공연을 시작으로 8회의 공연이 부산전역에서 열린다.

일정

6월 1일(수)	11:00	을숙도문화회관	꿈나무소망심기공연 '다송중학교 초청공연' (출연/국악관현악단)
6월 6일(월)	10:00	중앙공원	내사랑부산공연 '현충일 추념식' (출연/합창단)
6월 8일(수)	12:30	시청로비	내사랑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출연/교향악단)
6월 10일(금)	12:30	테크노파크	근로자를 위한 활력공연 '테크노파크 근로자와 함께' (출연/교향악단)
6월 15일(수)	12:30	장소 미정	내사랑부산공연 '걷고 싶은 부산' (출연/합창단)
6월 15일(수)	15:00	모라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모라 주공 1단지 주민들과' (출연/국악관현단)
6월 22일(수)	12:30	시청로비	내사랑부산공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로비콘서트' (출연/무용단)
6월 27일(월)	14:00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금정구종합복지관에서' (출연/무용단)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6)

한마음선원 합창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단체가입

1990년 창단 이래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5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으로 단체 가입했다.

부산 최초의 불교합창단으로 창단된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그동안 찬불가곡과 합창의 밤, 부산불교합창제, 심장병어린이돕기 음악회, 불교페스티벌 합창제 등에서 우리가곡, 부처님 말씀을 담은 선법가를 노래해왔다.

제 1회 찬불가 경연대회 대상, 휘선합창경연대회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한마음선원 합창단은 이번 정기회원 가입으로 단원은 물론 단원 가족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갈 계획이다.



부산문화회관 공연관람 예절안내

◎ 공연장 도착 및 입장시간 준수

- 공연장 도착은 30분 전, 객석 입장은 공연 시작 10분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이 시작된 후에 도착하셨다면 로비에서 기다린 후,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중간 입장은 한 곡이 끝난 다음이나 휴식시간에 가능합니다.
- 공연 중 자신의 좌석을 찾지 말고 빈자석에 앉았다가 휴식시간에 자신의 좌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부산문화회관의 성숙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조 바랍니다.

산 높고 물 맑은 선비의 고장 함양

연이어 내리던 봄비가 그치면서 5월의 싱그러움이 더하던 지난 5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3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5월 테마여행지는 사대부의 풍류가 남아있는 선비의 고장 함양. 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릴 만큼 일찍부터 묵향의 꽃이 핀 선비의 고장으로, 유서 깊은 향교와 서원, 누각, 정자 등이 곳곳에 남아 있다.

테마여행지로서는 처음인데다 지난 2월 구제역으로 여행이 취소된 곳이라 '함양' 여행에 대한 정기회원들의 설렘은 더욱 컸다. 이번 테마여행 역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홍보담당 김태훈 씨가 함께 동행했다.

출근길 정체를 피해 이른 아침부터 모인 정기회원 가족들은 세 시간을 달려 목적지인 함양에 도착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박숙향 문화유산해설사를 따라 테마여행 첫 일정인 '선비문화탐방길 답사'를 시작했다.

제주 '올레길'과 부산의 '갈맷길', 지리산 '둘레길'처럼 함양이 자랑하는 '선비문화탐방길'은 짙은 물빛이 푸른 구슬과 같다하여 '옥류수'라 불리는 금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화림동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이다. 특히 계곡을 따라 거연정, 군자정, 동호정, 경

모정 등 4곳의 정자가 서 있어 '영남 정자문화의 보고'로 알려진 함양의 진면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선비길 답사의 첫 출발지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 구름다리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연정(居然亭). 전날까지 내린 비로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선비길 탐방이 시작됐다.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길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광에 회원가족들의 발걸음이 절로 가볍다. 얼마쯤 걷다보니 성리학의 대가인 '일두 정여창' 선생을 기리는 군자정이 내려다 보인다. 일두 선생의 처가인 이 곳 봉전마을에 세워진 군자정은 '해동군자가 쉬던 곳'이라는 뜻에서 '군자정'이라 이름부쳐졌다 한다.

다시 계곡을 따라 내려가니 계곡 맞은 편 화림동계곡에 자리한 정자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면서도 규모가 큰 동호정이 회원들을 반갑게 맞는다. 조선 선조 때 학자인 동호 장만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동호정은 화려한 단청과 함께 투박스러운 나무계단이 어우러져 멋스러움을 자아낸다. 원래는 계곡을 건너 동호정에서 답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전날 내린 비로 불어난 계곡물에 돌다리가 잠기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 다곡마을에서 선비길 탐방 일정을 마쳤다. 농월정 터에서 출발해 경모정, 동호



정, 군자정, 거연정, 선비문화관까지 걷는 화림동계곡 코스는 전체 8.7Km로, 3시간이 소요된다.

답사를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오후 일정을 위해 지곡 개평 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고색창연한 전통한옥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함양의 선비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개평마을은 일두 정여창 고택을 비롯해 풍천노씨 대종가, 노참판댁 고가, 하동정씨 고가 등 100여 가구가 넘는 한옥들이 보존되어 있다.

마을에 들어서자 당송으로 불리는 처진 소나무 두 그루가 눈에 띈다. 높이 16m에 나무동치의 둘레는 2.95m, 가지둘레 21m인 이 소나무는 수령이 500년으로 추정된다. 오후 일정에 앞서 구수한 된장찌개와 청국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박숙향 해설사의 안내로 중요민속자료 제 186호로 지정된 일두 정여창 고택을 둘러봤다.

일두 정여창 선생은 조선 최고의 유학자를 뜻하는 ‘동방 5현’의 한분으로, 많은 유학자들의 스승으로 추대받고 있는 인물이다. 정여창 고택은 그가 죽은 후 선조 무렵(15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3,000여 평의 대지에 사랑채, 안채, 행랑채 등 12동의 건물이 배치된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양반 고택이다.

고택을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화전과 다식만들기 체험을 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함양의 특산물인 자색 고구마가루를 섞은 반죽에 인근에서 뜯은 아카시아꽃 등을 얹어 부쳐낸 화전은 고운 보랏빛 빛깔과 꽃잎이 어우러져 눈이 먼저 즐겁다. 구수한 콩가루 반죽을 다식판에 꺾꺾 눌러 찍어내는 다식 만들기에 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씨와 함께하는 동래야류 배워보기. 문둥이과장,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과장으로 구성된 동래야류 중 제 4과장인 할미과장 부분을 따라 배워보았다. 치마저고리 복장에 할미가면까지 쓴 장래훈 씨의 익살스러운 가르침에 회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5월의 푸른 자연 속에서 마음껏 풍류를 즐길 수 있었던 함양 여행. 눈부시게 푸르렀던 함양의 자연만큼 오랫동안 회원가족들의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2011년 7월에는 **포항**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6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테마여행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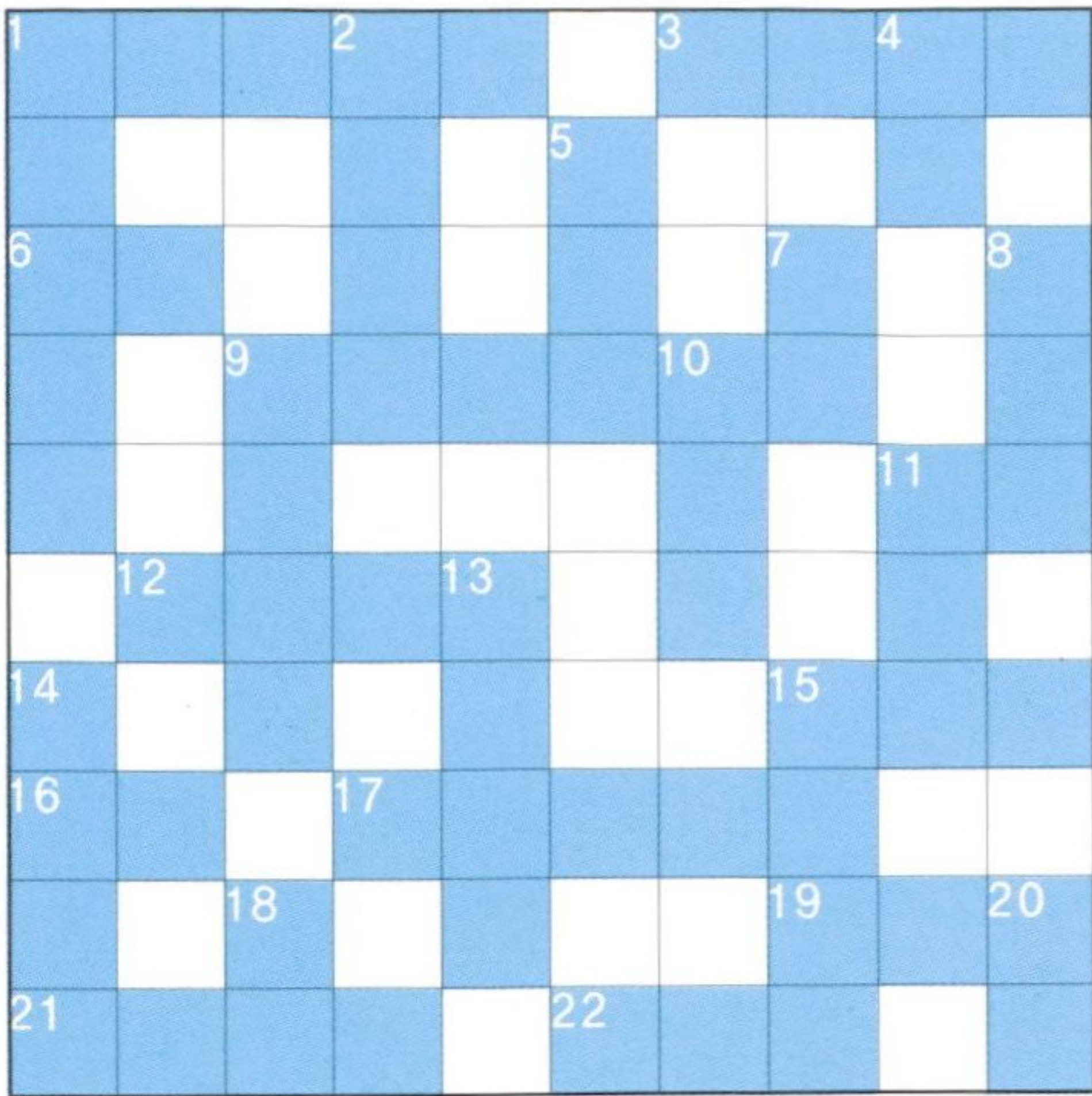
신규가입자

권유진(남구 대연4동)
김광성(부산진구 당감3동)
김송이(남구 문현3동)
김화련(해운대구 우2동)
박혜정(해운대구 중동)
배종완(남구 용호동)
이준혁(해운대구 좌4동)
제정미(남구 용호동)
진영목(동래구 복천동)
하은유(동래구 복천동)

엽서당첨자

김수정(해운대구 우동)
박동희(연제구 법원북로)
안선희(사하구 신평동)
임영해(남구 대연5동)
장옥숙(사상구 감전동)
최종원(동래구 안락동)
황광주(수영구 망미2동)
홍사랑(중구 부평동1가)
황선순(사하구 다대1동)
허지아(해운대구 좌4동)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1_ 뉴에이지 음악을 대표하는 미국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1996년 그래미어워드 최우수 뉴에이지 앨범상을 수상한 'December'는 우리나라에서만 100만장 이상이 팔렸다. 7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관광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 3_ 장국영, 왕조현 주연의 홍콩 환타지영화. 올해 5월 새롭게 리메이크되어 국내에서 개봉됐다.
- 6_ 698년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동모산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국세를 떨쳤으나 926년 요나라에 망하였다.
- 9_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라는 마술나라로 가게 된 도로시의 모험을 그린 뮤지컬영화.
- 11_ 신들린 남자 무당.

- 12_ 봄베이(Bombay, 뭍바이의 옛 영어 지명)와 할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로, 인도의 영화 산업을 일컫는 용어.
- 15_ 남성의 테너와 베이스 사이의 음역. 또는 그 음역의 가수.
- 16_ 신라 때에 발달한 것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
- 17_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그 전개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린 것.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소설, 기록 등이 있다.
- 19_ 벨기에의 작가인 페요가 만들어낸 만화 캐릭터. 하늘색의 몸 색깔에 하얀 모자와 바지를 입고 있다. 1981년 미국에서 제작한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로도 유명하며, 우리나라에 수입될 당시 공산주의적인 이상향을 그린다는 이유로 수입이 한때 불허되기도 했다.
- 21_ 유럽 남부의 지중해에 돌출한 반도와 그 부근의 섬으로 이루어진 공화국. 그리스와 더불어 서양 문명의 원천이었던 국가로, 수도는 로마.
- 22_ 기악을 위한 독주곡 또는 실내악으로, 순수 예술적 감상 내지는 오락을 목적으로 하며, 몇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로열쇠

- 1_ '무용계의 모차르트'라 불리는 세계적인 안무가. 그가 안무한 오리건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8월 부산을 찾는다.
- 2_ 1977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조지 루카스 감독의 미국 공상과학영화 6부작 시리즈.
- 4_ 두 사람이 맨손으로 맞잡고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힘을 이용하여 던져 넘어뜨리거나 조르거나 눌러 승부를 겨루는 운동. 일본의 옛 무술인 유술(柔術)에서 비롯되었다.

- 5_ 14회나 그래미상을 수상한 프랑스 태생의 중국계 첼리스트. 음악과 청중과의 새로운 접근을 꾀하고, 서구 전통음악의 형식을 벗어나는 시도를 보여왔다.
- 7_ 영화 '아리랑' '병어리 삼룡' 등을 제작한 한국 영화계의 선두자인 나운규의 호. 그의 호를 딴 〇〇영화제가 매년 9월 열리고 있다.
- 8_ 황진이 미색에 빠져 망신을 당했던 인물로, 시조 '청산리(靑山裏) 〇〇〇~'로 유명하다.
- 9_ 점토나 도자기로 만든 간단한 취주악기.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를 뜻한다.
- 10_ 지리산 천왕봉 동쪽 중턱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찰.
- 11_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〇〇〇 세계 문학상'이 올해부터 제정되어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 2회 〇〇〇 문학제' 기간에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 13_ 영국의 괴기소설가 B.스토커의 소설. 흡혈귀 소설의 원조가 되었으며, 이후 영화, 연극, 뮤지컬 등으로 각색되어 공연되어 오고 있다.
- 14_ 강제규 감독, 장동건, 오기다리 조의 신작 전쟁영화. 5월 칸영화제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외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아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 15_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 이탈리아어로 '바 안에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 18_ 인도의 여성들이 입는 민속 의상. 한 장의 기다란 견포(絹布) 또는 면포를 허리에 감고 어깨에 두르거나 머리에 덮어 씌워 입는다.
- 20_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직업 선수→아마추어

지난호 정답

맹	진	사	택	경	사	방	정	환
모	투	주	공	자	웅			
삼	리	마	레	전	원			
천	지	임	시			유		
지	농		피	아	노	관		
교	향	악	축	제	바	바	순	
	수	배	알	타	미	라		
사	현	의	노	래		춤		
대		노	스	토	원			
부	당	거	래	카	타	르	시	스

퍼즐당첨자 명단

BS부산은행 조은극장

- 김광열(부산진구 양정1동)
- 김대숙(연제구 연산동)
- 김현주(연제구 거제 3동)
- 신소희(남구 대연동)
- 윤정희(양산시 물금읍)

공간소극장

- 강휘빈(해운대구 반송3동)
- 김숙희(부산진구 개금동)
- 박선자(사상구 주례2동)
- 손효정(남구 대연1동)
- 최남이(사상구 과법동)

큰집

- 김윤경(중구 중앙동)
- 박창수(부산진구 전포대로)
- 손서영(금정구 두구동)
- 이미진(서구 토성동)
- 장은주(사하구 당리동)

나랏소

- 김은영(영도구 영선동)
- 박경미(남구 대연3동)
- 양호경(남구 용호1동)
- 이귀숙(해운대구 좌4동)
- 정윤지(금정구 장전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 1588-2757

세계적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식당 전문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1년 6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라리크레시

2011. 6. 30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 I. Carreño Tone Poem "Margariteña"
- A. Ginastera Dance Suite "Estancia"
- J. P. Moncayo Huapango
- S. Revueltas Sensemayá
- A. Márquez Danzón No.2

지휘 **마누엘 로페스**
Manuel López

주 최  부산광역시 후 원  metro

문 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 장 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2011년 7월 8일 금요일 동해의 열정을 품은 포항



국립등대박물관

동해바다의 생명, 열정을 품고 있는 항구도시 포항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
한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한 호미곶, 국내 유일의 등대전문박물관인 국립등대박물관을 시작으로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 비전을 담은 포스코 역사박물관(The POSCO Museum), 동해안 최대의 상설시장인 죽도어시장 등을 둘러보며 포항의 여름을 즐긴다.

-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호미곶 도착, 국립등대박물관, 새천년기념관 관람
- ☞ 11:40 포항제철 이동
- ☞ 12:30 중식 후 포항제철, 포스코역사관 견학
- ☞ 15:00 포항함 이동, 견학
- ☞ 16:00 죽도시장 방문
- ☞ 17:00 부산으로 출발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남해 유배문학관

쪽빛 바다와 초록빛 들녘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여름 여행.
바닷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듯한 돌멩이 하나도 바다와 어우러져 시로 다시 태어나는 남해. 국내 최대, 최초의 남해 유배문학관을 시작으로 보물섬 남해의 상징 마늘나라 전시관, 이국적인 독일마을에서 남해의 여름을 즐긴다.

- ☞ 07: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 10:00 유배문학관, 보물섬 마늘나라 전시관 관람
- ☞ 12:00 두모마을 이동, 개매기 체험
- ☞ 13:00 중식 및 자유시간
-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6:00 독일마을 방문
- ☞ 16:3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여행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154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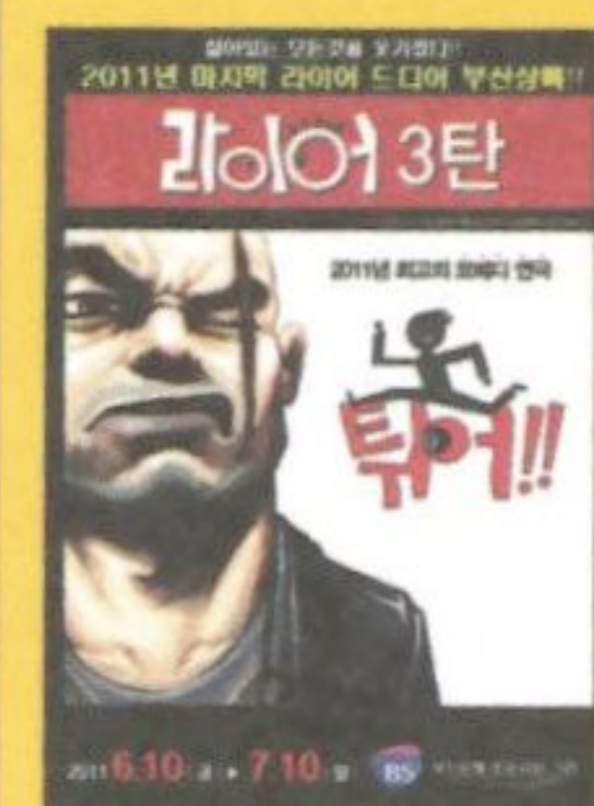
식사·Wine·Beer·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연극 **라이어 투어!!** 20% 할인



2011.6.10(금) ~ 7.10(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휴관)

▶ 입장권: 균일 30,000원
▶ 장 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1588-2757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 날짜: 2011.1.1(토)~2011.12.31(토)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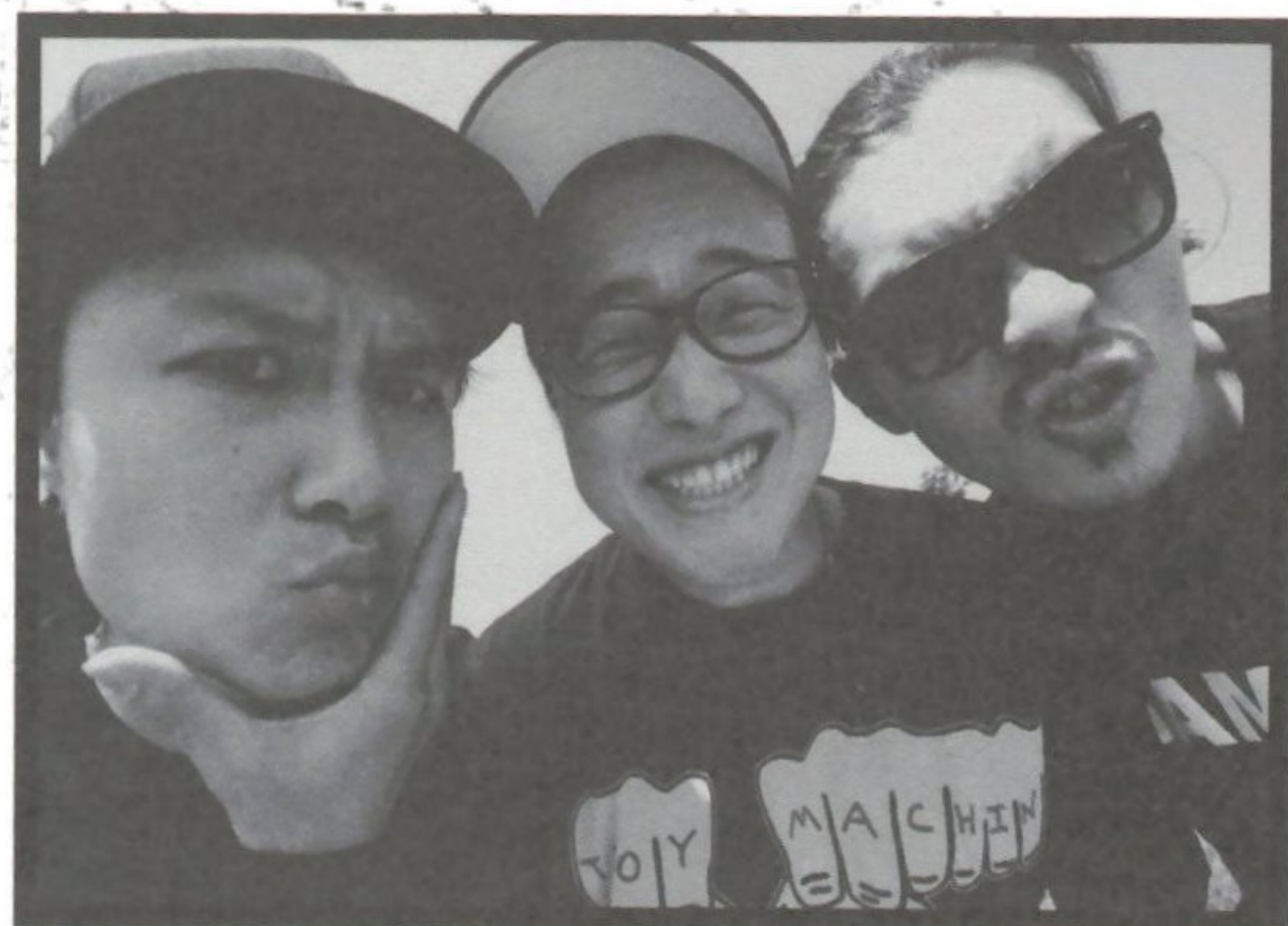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옐로우몬스터즈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21'

2011. 7.15(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균일 30,000원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58)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씨아클럽 하늘아래 그 콘서트 club.eyworld.com/0911.concert

금경 (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 051-611-1960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회원명
-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 e-mail
-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NO

“ 화학 및 IT 소재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하고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기업 (주)엠피온스 입니다”



사업분야

경화제사업(Hardner)

-각종 수지의 고무,실리콘의 중합반응 개시제,가교제,개질제,경화제등에 사용

수지사업(Resins)

-인조대리석 공정에 적합한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체도료용 수지분야도 있음

첨가제사업(Additives)

-고기능성 첨가제는 분체도료나 고분자성형물딩,나노향균코팅첨가제에 사용

기타상품(Others)

-고온경화제 및 각종 모노머의 중합개시제, 점도조절제, 가교제 등

본사 &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753-19번지
TEL : 052-239-0970~2 FAX : 052-239-3796

남원공장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 118-1번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

George Winston Summer Concert

하늘, 바다, 도시, 들판, 산, 나무...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싼 공기와 일상의 아름다움..
바삐 내달기만 하던 삶을 돌아보고
잠시 머물러 쉬어 갈수 있는 휴식을 찾는다.

2011년 조지 윈스턴의 여름 이야기-

2011.7.5(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부산MBC

주관_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라임기획 SERVICE MARKETING

입장권_ VIP석 88,000원 /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예매_ AUCTION YES24.COM 멕스티켓 인터파크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의_ 1600-1602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대연지하철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